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
강화 전등사 수목장
대한불교 조계종 전등사 032. 937. 0125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12월 20일(음력 11월 1일) 수요일 (주간) 제 608 호

‘현대불교’ 폐간 위기…“적자 감당 못해”

12월 3일 이사회 결의, 연말까지 제작 일방적 통보… ‘교계 충격’

직원들 ‘비대위’ 구성 “가용자산 70억 … 납득 못해” 철회 요구

현대불교신문이 폐간될 위기에 놓였다. ‘현대불교’ 운영주체인 한마음선원은 전격적으로 신문사 폐간 결정을 내리고, 이 사실을 12월 7일 직원들에게 통고했다.

현대불교신문사 사장 혜월 스님은 “누적된 재정적자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폐간키로 12월 3일 열린 이사회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혜월 스님은 또 “회계법인을 통해 신문사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며 “12월 27일자 신문을 끝으로 신문발행을 중지하니 3주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폐간 통고를 받은 직후 신문사 직원들은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회를 열고 “폐간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재고해 달라”는 입장을 결의하는 한편, 이 같은 입장을 혜월 스님과 한마음선원 측에 전달했다.

이어 현대불교 노동조합도 양보하는 자세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11일 임시총회를 열어 노조를 해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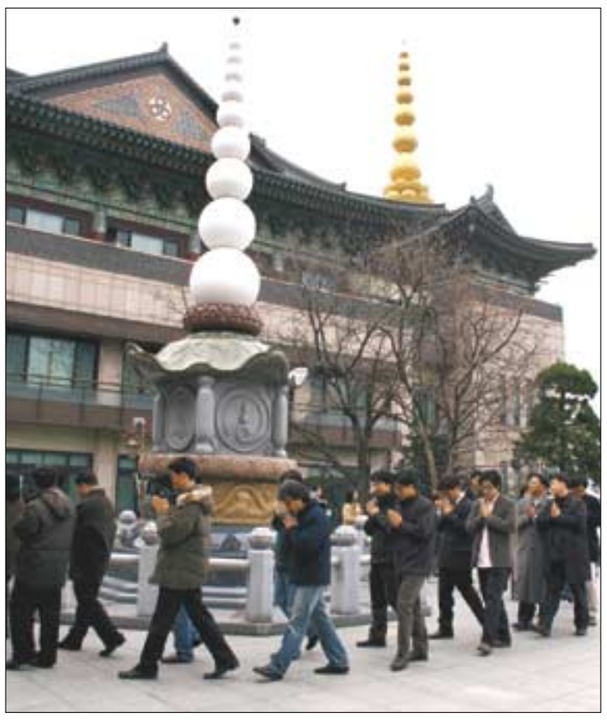
이와 함께 비상대책위는 대립보다는 이해와 대화로 폐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자구노력을 통해 신문사를 정상화한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14일 발표한 ‘현대불교 폐간 결정의 배경과 직원들의 입장’에서 △현대불교의 창간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제호를 유지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경비절감을 통해 독자적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조처해 줄것과 △신문의 지속적 발간을 위해 현재의 사무실과 집기, 각종 자료, 온라인 시스템 등 유·무형 자산을 직원들에게 양도해 줄 것을 한마음선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현대불교’ 폐간 결정은 단순히 일개 신문사의 존폐 문제가 아니라 불교계 내부는 물론이고 불교의 대외적 위상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대불교’은 1994년 창간후 12년 동안 불교언론 발전과 포교, 그리고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우선 ‘현대불교’ 폐간은 신문사가 축적해 놓은 지적 자산과 인프라를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적 자산과 인프라는 12년이라는 시간과,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막대한 결과물이자 불교계 공공 자산이다. 폐간을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도 바로 불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사회의 공기인 언론사가 운영주체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현 재정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폐간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폐간 결정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인 현대불교신문사 직원 40명이 12월 14일 한마음선원을 방문해 폐간을 철회해 달라는 ‘참회의 탑돌이’를 하고 있다.

현재 ‘현대불교’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 자산은 약 70억원 가량이다. 한편 결과 현재의 자산 현황이 총자산대비 -5.4억원으로 드러났지만, 현재의 보유자산을 감안하면 폐간을 단행해야 할 만큼의 위기상황은 아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회사내 구조조정이 시작돼 고객부, 출판부, 부다피아 등의 부서가 정리되면서 40명이 넘는 직원이 회사를 떠났고 이에 따라 적자폭은 크게 줄어들었다.

경영자의 부실경영과 이사회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일방적 폐간 결정으로 직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다. 이는 가혹이나 열악한 불교계 언론 환경을 더욱 훼손하고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례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대불교’는 적자를 극복하지도 못해왔지만 불교언론의 질을 높이고 불교문화 발전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불교계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마음선원과 직원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수치상의 손실만을 내세워 신문을 폐간한다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불교포교 사업은 모두 접어야 한다는 논리이며, 이런 논리라면 어느 누가 주인의식을 갖고 불교계에서 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해결적 폐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불교’ 폐간에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것이다.

경영적자를 해결하겠다는 한마음선원의 입장은 당연하다. 그러나 법인자체를 해산해 폐간하겠다는 것은 다른 운영주체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인한 방법’이라는 것이 불자들의 시각이다.

관련기사 4 · 5 · 24면

☞5면에 계속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12~13면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
시방세계 9면
제1회 청담문화공연 현장
연말연시를 산사에서
템플스테이 · 기도처안내 7면
군포교 활성화 좌담 8면
‘능엄주’ 염송수행 11면
‘꽃비’ 들고 온 원성 스님 16면

“경악… 안될말 … 큰 손실”

종단협 · 재가연대 등 전국서 반대성명 잇따라

‘현대불교신문 폐간을 철회하라’는 함성이 물밀 듯 밀려들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의 전격적인 폐간 결정에 대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불자모임 이타회,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광주전남포교사단 등 광주전남 13개 단체, 한국불교기자협회, 불교출판협회가 12월 13~15일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등도 ‘현대불교’ 폐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곧 성명서를 발표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열린우리당 불자국회의원 모임인 이타회(회장 윤원호 의원)는 12월 13일 “현대불교신문 폐간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면에 계속

“폐간결정 비불교적 처사 지혜모아 대안 찾아야”

긴급좌담 ‘폐간은 막아야…’서 참석자들 지적

“12년 동안 사찰을 짓고 불교회관을 건립하는 불사 이상의 효과를 거둔 <현대불교>는 불교계의 공공자산이므로 폐간은 안 된다.”

한마음선원의 현대불교신문 폐간 결의가 있은 후 ‘폐간은 막아야 한다’를 주제로 한 긴급좌담이 12월 15일 서울 사간동 태고종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좌담에서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과 성태용 (사)우리는선우 이사장(건국대 교수), 최정희 前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등 참석자들은 “<현대불교> 폐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비불교적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종훈 스님은 “신행 포교 혁신, 불교문화 창달, 불교학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현대불교>를 폐간하는 일은 한마음선원 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체의 큰 손실”이라며 “재정적자와 같은 사업적 개념으로 폐간을 결정한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용 이사장과 최정희 前 편집국장도 스님의 뜻에 공감을 표시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성태용 이사장은 “<현대불교>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고 자산을 축적했으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불교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한마음선원은 이를 아름답게 회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고, 직원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더라도 숙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간 결정 재고가 선행돼야 하며, 종교인으로서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리지 않길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최정희 前 편집국장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서로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폐간을 막기 위해 한마음선원이 아니더라도 <현대불교>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별취재팀

☞긴급좌담 4면에

금주 24면 발행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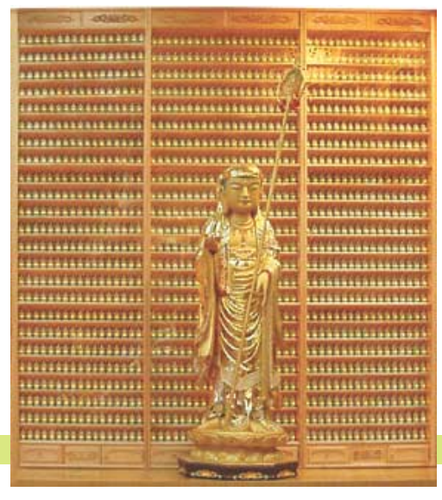


종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 상 품
영구위패
LED 인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질병 · 노후 걱정없는 ‘수행의 길’

해인사, 사중 출신 사미(니) 종합보험 가입키로 … 60세 이상 스님은 실버보험

법보종찰 해인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합보험 가입을 통한 승려 노후복지 개선안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인사(주지 현응)는 사중으로 출가하는 모든 스님들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시키겠다고 최근 밝혔다.

내년부터 해인사행자교육원을 거쳐 사미(니)계를 받은 모든 스님들을 평생 각종 질병과 재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 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것.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60세 이상 중진급 스님들에 대해서도 오는 1월 1일부터 실버보험에 가입해 노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해인사가 인재양성 및 수행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재원은 각 말사가 부담하는 교구분담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해인사로 출가해 봄 가을 행자교육원을 거쳐 사미(니)계를 받는 예비 스님들은 년 평균 50여명. 지난해 해인사에 행자교육원이 만들어지면서 출가자가 한 철 35명으로 늘었지만 재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것이 해인사의 전언이다. 매년 말사가 부담하는 교구분담금이 1억5천만원 가량이며 이를 승려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배지선 기자

☞1면에서 이어짐

이타회는 성명서를 통해 “불교 언론은 한국불교 미래에 대한 발전과 감시의 기능을 동시에 추구하여 세계 속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교계 언론사 폐간을 막고 회생할 수 있도록 불교계의 관심과 애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여태동)도 14일 “현대불교신문이 12년 동안 축적해 놓은 수많은 자료는 불교의 자산이자 불자들의 자양분인 만큼, 폐간으로 인해 자산이 묻힌다는 것은 크나큰 손실이므로 폐간 결정은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불교기자협회는 “현대불교신문사 직원들이 구조조정을 감수하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었기에 폐간 결정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다른 운영주체가 신문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폐간 결정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광주전남 포교사단등 13개 광주 전남지역 단체들도 현대불교신문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13개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불교계를 대표하는 신문인 ‘현대불교’가 폐간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광주 · 전남지역 불자들은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자구책을 강구할 기회도 없이 무조건 폐간하겠다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신문사 직원들은 임금삭감, 퇴직금 반납 등으로 신문사를 유지하겠다는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상만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불교발전을 이끌어 온 언론이며 불교의 자산으로 현대불교신문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쌓아온 신문사 노하우와 자료 등 유 · 무형의 자산을 살릴 수 있도록 신문사 직원 또는 또 다른 운영주체가 신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 스님)도 15일 성명서에서 “그간 불교계에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해 온 ‘현대불교’의 폐간 결정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며 “사회의 공기라는 유력한 언론매체의 폐간이 너무 급격하고 파격적으로 이루어져서 놀라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15일 현대불교신문의 원만한 해결 특별취재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조계종 관람료 위원회와 대책위는 12월 13일 연석회의를 열고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른 문제를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동국대 총장에 오영교 前 행자부장관

교수대우 · 기반시설개선 등 108 프로젝트 제시 예정

동국대 제16대 총장에 오영교 前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이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12월 12일 학교 본관에서 제224차 이사회를 열고 오영교 前 장관을 차기 총장으로 선임했다. 오영교 총장선출자의 임기는 내년 3월부터 4년간이다.

선출 확정 후 열린 인터뷰에서 오 총장선출자는 “행자부 장관, 코트라 사장 시절의 경험을 살려 대학의 새로운 전형을 세우고, 동국대를 세계적인 불교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대학이 되려면 좋은 학생이 들어와야 하고, 좋은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교수진이 있어야 한다”며 교수 대우 및 기반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오 총장선출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108프로젝트’를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장 출마 배경에 대해 오 총장선출자는 “동국대에 관계된 인사들의 권유가 있었다”며 “새로운 도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불자인 오 총장선출자는 종립학교인 대전 보문고 시절 불교에 입문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지도위원을 역임한 오 前 장관은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 발기인으로도 참여했다. 법명은 무착.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장 영배 스님을 비롯해 현성, 종상, 장윤, 영담, 정념, 혜림 스님, 홍기삼, 김재기, 황창규, 이재창 이사 등 11명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내년 6월까지 관람료 매표소 ‘그대로’

조계종 관람료위 · 대책위 연석회의서 결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관람료 위원회 · 대책위원회 연석회의(위원장 범여)가 1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현실화에 대한 경과보고와 향후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문화재관람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2007년 6월까지 현재의 매표소를 존치키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의 실무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문화재관람료 단독 징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며 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른 향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모든 관람료 사찰이 함께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단독 징수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국민 홍보와 탐방객에 대한 안내판 등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한 준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정진석 추기경 21일 승가원 방문

지난 4월 지관 스님 성가정입양원 방문의 ‘답방’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성북구 안암동 소재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을 방문한다.

정진석 추기경의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가톨릭 사회복지시설인 ‘성가정입양원’을 방문한 것의 답방형식으로 추진된다.

정진석 추기경은 승가원을 방문해 장애아동시설에 대한 시설 현황 보고를 듣고 지원금을 전달하며,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환담을 나눈 뒤 시설을 시찰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정 추기경의 불교시설 방문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종교간 화해와 평화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총무원장 스님도 이미 가톨릭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다”며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나눔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보광사 ‘창건주지위 확인’ 서울지법서 기각

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11월 14일자로 서울 보광사, 청주 충북불교회관, 부산 보광사에 대한 현중 · 황운스님 측의 ‘창건주 지위 확인’ 청구를 이유없음으로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일 스님의 창건주 지위의 위임 또는 승계의 의사 표시는 실질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며 “원고들의 창건주 지위의 확인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단법인 선학원은 12월 13일 중앙선원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의 지혜가 모이면 태산을 옮긴다’는 격언처럼 공의를 모으고 갈등을 중재한다면 원융산림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번 판결이 겸허히 수용되어 더 이상 ‘보상과 창건주 문제’로 불교계에 누를 끼치지 않고 정일 선사의 정신이 이어져 현중 스님 측이 남산문도회의 일원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범불교 규탄대회 갖기로

20일 성북불교사암련

성북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수스님)는 12월 10일 성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성북구 교동협의회’ 관련 제4차 대책회의를 갖고 12월 20일 오후 2시 성북구청 앞에서 ‘종교편향 범불교규탄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서찬교 성북구청장의 일간지 지면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한편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12월 4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사회부장 지원 스님과의 면담만 가졌다. 또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의 구청장 공식사과와 진행과정 공개, 대책수립 요구에 대해서는 12월 8일 공문을 통해 그간 물의를 빚었던 교동협의회를 백지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식 기자

“불경소리 듣고 산다”

이명박씨 지관스님 예방

이명박 前 서울시장이 12월 1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이 전 시장은 “사무실이 조계사 맞은편에 있어 불경 소리를 듣고 산다”며 “최근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 템플스테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보고 일부 국회의원을 직접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불교사상은 인류 통합의 핵심 키워드”라며 “덕분에 템플스테이를 활성화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이재정 통일부장관도 12월 15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김두식 기자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모집

www.njutcm.edu.cn

조기유학생모집
초 · 중 · 고1,2학년(남경국제학교)
♣제출서류
· 최종 재학 및 졸업증명서 · 건강진단서
· 여권사진10매 · 입학신청서 1통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내신 80점 이상)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사과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중국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및유학생전용 기숙사,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삼화불교대학 교학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1월 26일까지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市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황진영(유성여고) ▲이창영(마산고) ▲황성환(대건고)
▲정재형(성문고) ▲박은수(대덕고) ▲박상준(구정고)
▲이상훈(성신고)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서연호(한국항공대) ▲김인환(인항고)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재문(경남대) ▲김민성(휘문고)
▲김준호(배문고) ▲최종건(UCLA) ▲한효정(단국대)
▲이경환(배제대) ▲이거성(연세대) ▲박병수(명지대)
▲이종환(우석대) ▲강민정(경희대학원) ▲강성우(호남대)
▲박영문(명지대) ▲박병수(연세대) ▲김정우(현대교)
▲강성우(호남대) ▲이정화(건국대) ▲강민정(경희대)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환경5계 제정은 시대적 요청”

환경연대-조계종 환경委 로드맵 마련
내년 3월 시안 발표…초파일 前 선포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과 친환경 사상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환경5계 제정의 로드맵이 나왔다.

불교환경연대와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1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환경5계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로드맵을 설명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환경5계 제정 문제를 공론화하고 내년 3월께 두번째 세미나를 열어 환경5계의 구체적인 시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각 종단과 불교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내년 부처님오신날 전까지 환경5계를 확정, 대대적인 선포식과 불자들의 실천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첫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은 “오늘날 환경문제는 물질적인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신적인 문제가 물질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환경보존을 스스로 다짐하고 실천하기 위한 환경5계를 제정하고 사회적인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생태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간의 불교환경운동이 임기응변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다고 지적한 김재일 소장은 “환경5계는 가장 불교적이면서 새로운 환경운동이 될 수 있다”며 △참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사부대중의 근본계여야 한다 △불교의 사회참여로 확대돼야 한다 △대국민 약속이어야 한다 등 환경5계의 1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정길 에코붓다 대표는 환경5계 제정은 시대적 요청임을 강조했다. 유정길 대표는 “굳이 시대적인 방편인 환경5계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위기의 시대에 새롭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 생활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실천위원회 또는 행동위원회를 구성해 꾸준히 지속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재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환경5계를 제정하고 실천하는 일은 시민운동과 종교적 실천운동이 결합된 형태의 환경운동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접근”이라며 “환경5계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계율에 정통한 율사, 불교사상을 이해하는 학자, 불교변혁을 시도하는 운동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국제선센터 설립 필요”

종훈 스님, 템플스테이 활성화 토론회서 주장

“간화선을 수행을 장기간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국제선센터)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은 12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1박 2일의 단기간이므로 장기간(1주일 이상)에 걸쳐 수행하고자 하는 참가자들은 현재 사찰여건상 불가능하다”며 프랑스의 플럼빌리지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계진 의원실과 국회문화정책포럼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종훈 스님은 또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양성 등 경상비 지원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종훈 스님은 “사찰별 참가자 안내 책자 보급, 참가자들에 대한 비주얼 서비스 제공(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 인력양성 및 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훈 스님은 이 외에도 템플스테이 주무관리부서인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템플스테이 사업 유도를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홍석 문화관광부 관광사업팀장은 템플스테이 운영 개선과제로 △수용태세 개선 △체험프로그램 차별화 부족 △선진외국인과 GNP 2만불 시대에 걸맞는 방문객 만족도 제고 △단기 및 장기 템플스테이 수요측정에 따른 전략 수립 △지역관광코스 등과 연계한 사찰 특화마케팅 등을 제시했다.

조덕현 한국관광공사 전략상품개발팀장도 △명확한 목표시장 설정 △선택과 집중을 통한 템플스테이 사찰 육성 △프로그램 다양화 △한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 △템플스테이 관광 브랜드화 전략 수립 등을 템플스테이를 통한 한류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내놓았다. 남동우 기자

불교방송 4대 이사장에 종하 스님 만장일치 추대



불교방송 제4대 이사장에 종하 스님(사진 · 서울 관음사 주지)이 선임됐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12월 13일 마포 홀리데이 인서울에서 열린 제60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종하 스님을 새 이사장에 선임했다. 종하 스님의 임기는 내년 1월에 시작되며 4년간이다.

종하 스님은 “불교방송 이사장을 맡게 돼서 무거운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불교방송의 현안을 실무자와 사장, 이사진의 뜻을 받들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성관 · 효림)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10년 전 불교방송 공금횡령 사건 당시 이사장으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재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에 상당한 의혹을 불러온 바 있는 당사자가 또다시 경영 일선의 최고 책임자로 돌아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하 스님은 1958년 해인사로 출가해 59년 고봉 스님, 68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종회의원을 9 차례, 중앙종회의장을 두 차례 역임했으며, 불교방송국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강지연 · 박봉영 기자

불교 · 개신교 등 강원도 종교지도자 9명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결의

불교 등 강원지역 범 종교 단체는 12월 13일 춘천 강원도개발공사 소회의실에서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대표자 결의대회’를 갖고 유치열기 확산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종교 지도자 9명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강원도는 우리나라 분단의 중심지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인류 평화 공존의 정신을 되새기는 올림픽 정신을 발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다짐했다.

이들은 또 유치 결의문을 통해 동계올림픽 평창 개최를 염원하면서 범국민적 유치 열기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7월 4일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12월 17일부터 유치 기원 200일 기도를 시작하기로 결의하고 입재에 들어갔다. 불교계에서는 태고종 석왕사 주지 백운 스님과 천태종 삼운사 주지 월도 스님이 참여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과 종교인 기도회 내용을 내년 2월에 실시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현지 실사 시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알기쉬운 불교영어 강좌
국제포교사회, 1월 6일 개강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강영성)는 제4기 알기 쉬운 불교영어 강좌 회원을 모집한다. 강좌는 1월 6일부터 3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진행된다.

총 8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불교 교리, 역사, 부처님 생애, 문화 등 불교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영어로 소개할 예정이다. 수업료는 8주 과정에 5만원이며, 강좌 수료자에게는 국제포교사양성과정 선발시험 응시시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접수는 12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국제포교사회 사무국(02-722-2206)으로. 남동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현법 스님이 낸 가처분 소송 기각

“재가연대 활동 공익 위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는 현법 스님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참여불교재가연대와 불교정보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12월 7일 기각했다.

민사50부는 “참여불교재가연대와 불교정보센터가 발표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 및 이로부터 야기되는 의혹들에 관한 것이어서 진실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과 ‘조계종의 종헌과 종법규정에서 정한 중앙종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주로 신도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으로서 조계종의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있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불교재가연대는 12월 13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조계종단의 구성원인 사부대중이 누구나 종단의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출가자의 위신과 권위를 이유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자정활동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중앙종회의원과 종무원들은 공인으로서, 그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는 조계종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봉영 기자

서울 노숙인시설 종사자
임금 20% 상향 조정

그동안 열악한 처우와 보수를 받아오던 서울시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내년부터 보다 나은 근무여건에서 종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12일 ‘2007년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을 평균 20%정도 소폭 향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노숙인 복지시설은 복지시설 분야 중에서도 특히 낮은 보수를 받아왔다. 서울복지재단이 지난 7월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수지급기준에 따른 시설유형별 연봉을 비교 조사한 결과,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상담봉사를 하는 5년차 사회복지사는 평균 2100만원을 받는 반면, 노숙인보호시설 사회복지사는 1800만원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비 기자



토론회에는 이상득 국회부의장,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조배숙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등이 참석해 경청했다.

국제포교 걸림돌 “언어장벽 · 무관심”

세계화 세미나서 지적

“한국불교 세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의 장애와 종단의 무관심 때문이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1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나온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수행이 국제포교의 핵심키워드임을 재확인했다. 각국의 불교가 포교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적인 요소가 없다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국불교의 세계화가 나라별 언어 · 문화적 차이, 현지법과 한국법 차이, 열악한 포교재정 등에서 기인한 만큼 이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국제포교 활성화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해 발제한 기후 스님(前 호주 정법사 주지)은 이를 위해 △재정적 뒷받침 △1본사 1해외포교당 운영 △분담금에 해외포교당 운영비 항목 추가 △국제포교 인재 양성 △해외포교 시스템 구축 등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또 미주지역과 유럽지역 발제자 진월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과 이동호 발틱연구소장은 인터넷 활용, 외국인 한국문화 체험 확대, 재난구제활동 강화 등이 뒤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포근한 남쪽나라 제주도 겨울수련을 떠나요

생활속에서 깨닫는 참선의 길

삼매체험 30주년 7일간 집중수련

바로 끊고 바로 먹는 쉬운 금강단식 - 직효(피부미용 아토피 체중감량 위장 고혈압 당뇨 각종질환 금연 체질개선 등)

- 단식으로 맑고 가볍게 화두참선에 들어간다.
- 회두 의심만 할 줄 알면 세상살이는 가볍다.
- 피부미용(아토피) 체중조절(1일 최고 3kg감량) 고혈압 당뇨. 금연 체질개선 직효-바로 끊고 바로 먹어 위험부담없는 단식.
- 신체정신 부담없이 단식참선으로 시작.
- 단식전 예비단식과 단식 후 보식이 필요없음.
- 수료 후 직장생활 중에 단식 가능함.
- 하루시간 - 참선법문 좌선 행선 요가 운동 취침
- 통화 후 차수를 정하고 항공편 예약 요.

1. 홈페이지 : www.wseon.com 원명선원.kr
2. 대상 및 인원 : 고교 이상 일반인 (본인의사 확인요)
3. 수련일정 (6박 7일)
◆ 1차 : 07. 1. 4 ~ 1. 10 ◆ 2차 : 07. 1. 16 ~ 1. 22
4. 접수처 : ’06년 12월 30일까지 선착순 00명
제주시 화북1동 원명선원(교대 옆) ☎ 064)755-3322
5. 회 비 : 후원금으로 받음(생계가 어려운자는 고려함)

본분도량 한라산 원명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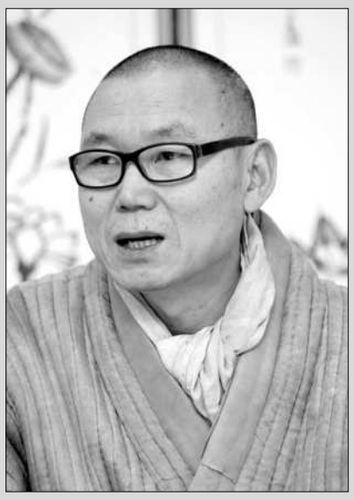
긴급 좌담 / 현대불교신문 폐간은 막아야 한다

불교언론 자립풍토 형성 계기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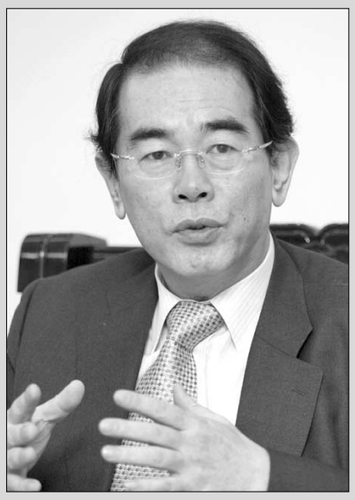
참 석 자

종훈 스님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성태용
(사)우리는선우 이사장
최정희
前 현대불교 편집국장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1994년 창간 이래 신행과 포교를 이끄는 정론지로서 선도적 행보를 해온 현대불교신문. 운영주체인 한마음선원의 법인 해체 결의로 12월 27일자로 폐간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 일이 알려지면서 1000만 불자들의 대변지를 자임하며 불교언론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현대불교'가 폐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여론이 회오리처럼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폐간위기를 맞은 본지는 12월 15일 태고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과 성태용 (사)우리는선우 이사장, 최정희 前 <현대불교> 편집국장을 초청, 긴급좌담을 열었다.


종훈 스님


최정희


성태용

"사업적 개념으로 폐간 결정한 것은 위험한 발상"

"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 모색하면서 문제 풀어가야"

"'현대불교'는 이미 불교계 공공자산… 독자 생각 먼저"

성태용 <현대불교> 폐간결정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주변에서도 엄청나게 놀라고 충격을 받고 있다. 불교언론을 선도해 온 현대불교신문이 폐간된다는 것은 운영주체인 한마음선원은 물론 나아가 불교계 전체의 큰 손실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포교와 전법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현대불교>의 위기가 단지 <현대불교>만의 위기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종훈 불교언론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해온 <현대불교> 폐간 소식은 매우 의아하고 당혹스럽다. 특히 한마음선원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든지 재정적인 파산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데도 <현대불교> 폐간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적자를 감안하지 않고 운영해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 신행 포교 혁신, 불교문화 창달, 불교학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해 온 <현대불교>를 폐간한다면 한마음선원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체의 큰 손실이 될 것이다.

성태용 불교언론이 재정 지원없이 운영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한마음선원이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현대불교>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찍이 신문을 통한 포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원과 노력을 기울인 점은 한마음선원의 큰 업적이다.

최정희 <현대불교>는 12년 동안 사찰을 짓고 불교회관을 건립하는 불사 이상의 효과를 냈다. 전국의 중·고교에 데생용 반가사유상을 보급하고 어린이와 군포교를 위한 후원 유도, 불자들의 신행혁신을 위한 각종 법회, 불교의 사회복지활동 장려 등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

성태용 <현대불교>가 지닌 강점은, 불교교단 문제에는 중도적인 견지에서 접근하고 수행, 신행, 포교, 문화, 수행환경 수호 등의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보도해 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대장경 전산화 불사가 이루어질 때 <현대불교>는 그 필요성과 진행상황 등을 자세하게 보도함으로써 불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불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그동안 <현대불교>가 일군 성과와 업적, 그리고 구축한 인프라와 데이터를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교계 전체의 큰 손실

종훈 조계종 스님들에게는 '포교 역경 교육'이라는 3대 역점과제가 있다. 한마음선원도 내부적으로는 수행을 하면서 3대 역점과제를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3대 목표 달성에 현대불교신문만한 것이 있겠는가. 재정적자와 같은 사업적 개념으로 폐간을 결정한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과연 지금의 상황이 <현대불교>를 폐간으로 몰고갈 상황인가? 폐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종사자들인데 그것이 정당한가를 돌아봐야 한다. 불과 3주 전에 회사해체를 통고한 것은 너무나 비불교적인 처사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성태용 한마음선원만큼 포교의지를 갖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적자를 감수해가며 그동안 유지해왔다는 것만 해도 큰 포교의지라 말 할 수 있다. <현대불교>를 어떤 식으로든 살리고 유지하는 방향이 그 포교의지에 상응하는 일이다. 그동안 운영이 어려웠다면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고 원만히 해결해 나가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최정희 불교언론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흑자를 내는 길은 참으로 어렵다. 그런 가운데 한마음선원의 부담이 컸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동안 <현대불교>의 업적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한마음선원의 전법원력과 구성원들의 뜻을 모은 노력의 결실이다.

성태용 지난 12년 동안 <현대불교>가 걸어온 길은 곧 한마음선원의 포교의지와 다름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대불교>는 한마음선원만의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사회의 결정이 법적인 효력은 있겠지만 <현대불교>는 이미 불교계 공공자산이 됐다. 수많은 독자가 있고, 신문사가 추진한, 각종 공익을 위한 불사에 협조했던 사찰과 불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종훈 법인 해체, 즉 폐간은 법률적인 방법이겠지만, 모든 일에는 도덕적인 문제가 결부된다. <현대불교>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계의 문제다. 이들의 어려움을 방관하는 것은 비불교적이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희생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점이다.

서로 타협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양보하고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마음선원의 위상은 <현대불교>를 운영한 후 엄청나게 달라졌다. <현대불교>가 없었더라면 한마음선원의 위상이 지금과 같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한마음선원이 <현대불교>를 계속 유지한다면 지금의 출혈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

▶한마음선원의 '언론불사' 업적 지대

최정희 한마음선원은 <현대불교>를 창간함으로써 불교언론 발전과 불교의 사회화에 기여했다. <현대불교>도 그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회생을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급하다. 또 이를 계기로 <현대불교>가 건전한 구조를 지닌 신문사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성태용 한마음선원의 공을 부정하는 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을 잘 해오다가도 그만두게 되면 오히려 반대충격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폐간한다고 했을 때 한마음선원이 져야할 부담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시작을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잘 해 오던 것을 접는 것은 큰 실망이며, 거꾸로 원망으로 돌아가게 된다. 불교가 뒷걸음질 칠 것이 뻔한 일을 결정한 한마음선원의 재고가 필요하다.

종훈 인프라와 데이터 등 <현대불교>가 갖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 아주 많다고 본다. 그것만으로도 지원없이 운영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대불교>에 몸담고 있는 이들의 마음가짐이다. 종사자들의 마음자세에 따라 폐간될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상황을 파악해보니, 폐간 결정이후 종사자들이 한마음선원에 요구하는 내용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누구나 공감할만한 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선원이 조금만 마음을 열면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 폐간까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조금만 달라,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데이터를 양도해달라, 그러면 자구노력을 통해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돈으로 평가못할 자산 축적

성태용 <현대불교> 같은 언론을 하나 제대로 키우기가 어려운데, 이런 상황이 온데 대해 한편으로는 슬픈 생각이 든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한정하기 보다는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돌아보자. 종단은 종단대로, 불자는 불자대로 불교언론이 자생할 수 없는 구조를 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2, 제3의 사태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불교언론이 자립할 수 있는 풍토를 모든 종단과 사찰, 스님과 신도들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특히 문제의 핵심에 자리한 한마음선원은 <현대불교>의 업적과 역할을 생각해보고, <현대불교> 종사자들은 그동안 한마음선원이 얼마나 어렵게 운영해왔는가 하는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회생의 길을 찾아가는 수순이 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불교언론의 현주소가 점검되고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종훈 지난 20여년 동안 불교언론이 꽤 늘었다. 이런 환경에서 <현대불교>는 얼마나 차별화하고 경쟁력 있는 신문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성태용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언론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 <현대불교>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자산을 축적했다. 이를 앞으로 더 활용한다면 틀림없이 불교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한마음선원은 이를 아름답게 회향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해주어야 하고, 직원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더라도 숙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폐간 결정이 재고돼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가치·위상 재인식… 발전기회로

최정희 12년동안 한마음선원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은 감사해야할 일이다. 그만큼 현장에서 뛰는 포교사의 몫을 <현대불교>가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이 한마음선원의 공이다. 이 공을 모든 대중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폭을 최소화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혹은 한마음선원이 아니라도 <현대불교>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현대불교>가 폐간되는 일은 절대 안된다.

넓은 시각으로 한마음선원, <현대불교> 경영진, 직원들 모두 그동안의 자세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내 몫을 다하고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

종훈 <현대불교> 폐간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폐간은 절대 안 된다는 전제에는 한결같은 의견이다. 한마음선원은 <현대불교>를 짐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함께 굴러가는 바퀴로 인식해야 한다. 제 식구 키우는 데도 학비가 드는 것처럼 한마음선원이 <현대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주길 바란다. <현대불교> 직원들은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용맹정진해 나가길 기대한다.

성태용 한마음선원에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속사정이 있고 그만큼 괴로움도 컸을 것이다. 또 폐간 결정을 한 후의 파장을 보면서 <현대불교>의 가치와 위상을 재인식하는 계기도 됐을 것이다. <현대불교> 직원들에게는 12년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한걸음씩만 양보한다면 <현대불교>가 위기를 모면하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는다.

정리=특별취재팀


한마음선원이 <현대불교> 폐간을 결의한 이후 '불교계 공공자산인 현대불교의 폐간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기 위한 긴급좌담이 12월 15일 태고종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열렸다.

세계선문화타운 설립 가속화

추진위 출범식 갖고 향후 일정 밝혀

세계선문화타운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세계선문화타운추진위원회(이사장 정여)는 12월 19일 부산 금정구에 사무실을 열고 현판식과 출범식을 개최했다.

현판식과 출범식에 앞서 (사)세계선문화타운추진위원회는 12월 13일 간담회를 열고 세계선문화타운 추진현황, 사업개요, 향후 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세계선문화타운추진위원회는 부산 범어사와 금정구 일대 100만평 부지에 참선수련시설과 전통문화체험시설, 세계선문화 체험관 등 선문화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2012년까지 금정구 일원을 선 문화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추진 중인 동해, 울진, 경주, 부산 등의 동해안 관광벨트개발계획에 세계선문화타운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 지난 11월 채택이 확정 됐다. 내년 상반기부터 민 · 관 협력 시범사업으로 진행, 하반기 중에는 국책사업선정 여부가

참선수련시설 · 체험관 등
2012년까지 테마파크 조성
유네스코에 프로그램 제시
세계에 적극 홍보할 계획

결정 될 예정이다.

추진위는 현재 예정부지 100만평 중 10만평을 확보한 상태이며 6500억 원을 사업비로 추정하고 개발추진법인을 개설, 예산 및 투자자 모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범어사를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공동목표인 추진위는 유네스코가 차기 10년 기획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류 정신문화프로그램에 '선 로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세계선문화타운과 범어사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숙제가 많다. 부지매입 과정에서의 마찰과 예산확보, 녹지보존대책 방안 등 세계선문화체험타운의 청사진 뒤에 가려진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다 선문화센터 부지 10만평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를 심의하는 것과 관련, 시와 범어사가 금정산 훼손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은아 기자

"사랑의 옷 입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한국JTS, 北에 내복 1만 벌 보내



따뜻한 내복 1만 벌이 북한 지역의 고아원과 양로원으로 전달되기 위해 12월 12일 부산항을 출발했다.

한국JTS(이사장 법륜)는 부산항 제3부두에서 북한 청진, 길주, 회령 등 북한지역 고아원과 양로원에 내복 1만 벌과 겨울나기 용품을, 함경북도 도인민병원에는 수술대, 안과수술현미경 등 의료기를 지원하는 선적식을 가졌다(사진).

이날 선적된 물품들은 개원지원, '북한 어린이에게 내복보내기' 거리모금액 등 총 1억8900만원 상당으로 전국 정토회 법당이 있는 지역에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선적식에서는 두 달 동안 '북한 어린이에게 내복보내기 캠페인'과 거리모금을 펼쳐온 회원들의 소감을 나누며 북한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천미희 기자

부산불교거사림회 소림사로 사무실 이전

부산불교거사림회(회장 배호암)는 12월 12일 부산 소림사 법당에서 사무실 이전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제 782회 정기법회를 겸해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을 초청법사로 열린 이날 법회는 소림사 회주 정일 스님, 소림사 주지 혜전 스님, 배호암 회장, 부산불교거사림회 전직 회장을 비롯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배호암 회장은 "소림사와는 15년 동안 부산불교거사림회 운영이사회를 열어오며 각별한 인연이 있었는데 다시 사무실을 이곳으로 옮겨와 법회를 개최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부산불교의 뿌리를 내리는데 거름이 될 수 있도록 포교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부산불교신도회 김장 봉사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 이사들과 회원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김장담기에 나섰다.

부산불교신도회 복지환경분과(위원장 김영기) 주관으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복지환경분과위원장의 집에서 진행된 김장은 20명에 가까운 봉사자들이 매일 참여해 마무리됐다.

봉사자들의 정성으로 버무려진 300포기의 김장 김치는 부산불교신도회 이사들의 추천을 받은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이웃 100가구에 전달됐다. 김치 5kg과 쌀 10kg 1포대를 부산 전역에 살고 있는 이웃에 전달하는데 필요한 차량봉사는 부산개인택시불자회(김기태)에서 힘을 보탰다. 천미희 기자

마창불교련, 시민불교문화상 시상

마창불교연합회(회장 원정)와 진해사암연합회(회장 운성)는 12월 18일 마산사보이호텔에서 제16회 시민불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문학상에 오하룡 시인, 예술상에 조현계 수채화가, 행원상에 홍중조 향토사학자, 단체상에 마산MBC의 <문명을 새기다, 대장경> 제작팀(PD 안관수, 촬영 손무성)이 수상했다. 천미희 기자

12년 '공든탑' 무너뜨릴 수 없어…직원 독자적 발행 의지

한마음선원의 (주)현대불교신문사 해산 결의는 반드시 무효화 돼야 한다 (현대불교 폐간결정 배경과 직원들 입장 및 요구사항)

☞1면에서 계속

15일 현재 불교계를 대표하는 종단 지도자들과 단체등 많은 사부대중이 '현대불교' 폐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상당수 단체들과 불자들은 '현대불교' 폐간 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할 뜻을 전해왔다.

'현대불교' 직원들은 제살을 도려내는 자구노력과, 대립보다는 불자다운 모습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현대불교신문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12월 14일 발표한 '현대불교 폐간 결정의 배경과 직원들의 입장' 전문이다.

특별취재팀

현대불교신문사 직원 일동은 한마음선원의 현대불교 폐간 결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선원의 여러 가지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 있어도 폐간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사실 지난 12년 간 현대불교는 탄탄대로를 달려왔습니다. 그 바탕에 한마음선원의 아낌없는 정성이 깔려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대불교 직원들도 한마음선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몇 개월 새 60여 명의 직원이 구조조정될 때에도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나아가 직원들은 회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방향을 신문사 측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지금, 한마음선원과 머리를 맞대고 신문사를 살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2년간의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이 부족했다면, 다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자발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자구노력 의지를 이미 한마음선원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한마음선원은 여전히 폐간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직원들의 자발적 자구노력은 지속적으로 전개하되, 현 상황에 대한 불자들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모든 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일방적 해산 결정…일방적 청산 통보

1994년 10월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기치로 창간된 현대불교가 '폐간'이라는 어불성설의 위기 앞에 놓였다.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을 비롯한 12명의 스님과 1명의 재가자 감사로 구성된 (주)현대불교신문사 이사회가 12월 3일 법인의 해산, 즉 현대불교의 폐간을 결의한 것이다. 그리고 경영진은 12월 7일 오후 3시 사장실에서 부장급 이상의 간부들에게 해산 결의를 통보 했으며 3시 30분에는 노동조합 임원진에게 같은 사항을 통고했다. 현대불교의 폐간 이유는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사회의 결정을 직원 전원은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현대불교는 지난 12년간 불교계에 신행 풍토의 진작과 문화 학술의 발전 등 포괄적인 포교활동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오며 불교계와 사회의 공기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간'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종사자들의 생계문제를 넘어 불교계와 사회의 중요한 자산을 허망하게 소멸시켜 버리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불교계의 언론은 물론 모든 문화 사업은 적자를 각오하고 진행되고 있다. 포교에 대한 소명의식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신문을 발행하고 각종 문화 사업을 전개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현대불교 역시 적자를 예상하고 창간됐으며 12년간의 적자 역시 적자라는 개념을 넘어 포교와 불교문화 발전을 위한 '투자'의 개념에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므로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폐간을 선언하기보다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노력이 앞서야 할 것이다. 또 새로운 운영 주체를 물색해 경영에서는 손을 떼더라도 현대불교의 존립은 유지시키는 것이 창간 당사자인 한마음 선원의 도리일 것이다.

2. 자산 70억원 회수 위해 폐간 한다?

지금의 현대불교 재정 상황은 대행스님의 창간정신을 일순간에 꺾을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단 3주를 남겨두고 폐간을 통보한 것은 적자운영과 상관없는 한마음 선원 내부의 문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대행 큰스님의 건강 악화로 시주금이 대폭 줄었다' 거나 '일부 지원에서 불사를 진행하며 현대불교에 투자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등의 소문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김 전 대표이사가 국제신문으로 자리를 옮기며 회사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올 6월부터 고객부, 출판부, 부다피아 등의 부서가 정리되며 40명이 넘는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다. 그러한 가운데 이사회는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현대불교의 자산과 지난 12년간의 경영수지를 매우 세부적으로 실사했다. 그리고 그 실사 결과 현재의 자산 현황이 총자산대비 -5.4억으로 결론 났다. 이사회는 이 결론을 들며 향후 매월 발생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폐간을 결의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현대불교의 가용 자산은 약 70억원이다. 이 같은 자산을 바탕으로 현재의 회사 구조를 긴축하고 그간의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수익사업을 벌여 나간다면 적자폭을 대폭 줄여 창간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말의 대안도 없이 폐간을 추진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한마음 선원이 어떤 내부적인 사유로 현대불교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폐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내부적인 사유에 대한 정황은 다각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3. 폐간을 목적에 둔 '경영실사' 믿을 수 있는가?

이사회는 지난 수개월간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의 경영실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경영실사는 경영쇄신을 위한 회사 상황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폐간을 목적으로 하고 '짜 맞추기' 식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경영실사는 실사의 기산 시점으로부터 현재의 상황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이사회가 내놓은 '자산 부채 보고서'는 이미 폐간 이후의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직원의 퇴직금을 다 지급 했을 경우와 자산의 감가상각부문, 재고자산의 평가까지 포함해 작성됐다. 특히 국제신문에 대여금으로 지출된 약 20억원에 대해서는 100% 손실처리를 했다. 물론 "추후 회수를 하면 수입으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폐간의 근거로 삼고 있는 보고서가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포기한 상태로 상정'하고 작성됐다면 그 신뢰성은 전무할 뿐 아니라 폐간을 위한 의도적 조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광삼 사장이 퇴사한 이후 대표이사로 부임한 혜월 스님과 경영총괄본부장 청월 스님은 회사를 경영 했다고 하기 보다는 현상 유지와 폐간 절차 진행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혜월 스님은 회사와 관련된 대외 행사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월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낮 외에는 근무조차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태가 지속 되는 가운데 진행된 실사는 결국 폐간을 위한 수순 밟기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4.부실경영 · 경영관리 소홀의 책임은 누가 지나?

현대불교의 재정 위기는 최근 3년여 간 김광삼 전 대표이사와 현재의 경영총괄본부장 청월 스님의 무리한 투자와 자산유용으로부터 비롯됐다. 김 전 대표이사와 청월 스님은 2003년 이후 △인터넷 관련 사업(부다피아 포탈 사업 등)을 위해 직원을 50명 이상 새로 충원 했으며 △케이블 방송 추진과 고가장비의 구매 등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 채 투자만 하며 재정상태를 악화시켜 왔던 것이다. 청월 스님이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4년 이후 2006년 초까지 회사의 지출은 그 이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직원의 증원과 시설 장비에 대한 무리한 투자 때문이었다. 인터넷 사업을 통해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방송사업까지 추진하며 고가의 장비를 사들이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경영이 계속되어 온 것이 회사에 재정 부담을 안겨준 주된 원인이다.

거기다 김 전 대표이사는 일간지로의 진출을 위해 회사의 기본 운영 범위를 넘어선 지출을 했고 이를 위해 사옥을 담보로 막대한 자금을 대출했다. 결국 2006년 2월 부산 국제신문 사장으로 취임하며 담보 대출한 20여 억 원을 국제신문에 투자 해 그 이자를 현대불교가 납부해 왔다.

대표이사와 총괄본부장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투자로 멍이든 회사를 폐간이라는 극약처방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은 내가 했으나 벌은 너희가 받아라'는 논리다. 경영을 악화시킨 장본인들에 대한 단죄도 없이, 경영진을 관리 감독해야할 이사회의 반성과 대안 모색도 없이 폐간만을 주장하는 것은 책임회피일 뿐이다.

5. 노조의 자진 해체와 '비대위' 구성

이사회는 또 노조가 있는 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도 보였다. 현대불교신문사 노동조합은 2006년 7월 11일에 설립됐다. 일부 부서가 해산되고 직원들이 떠나가는 마당에 최소한의 생존권과 회사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일부(총 42명 중 28명)가 노조를 설립했다. 노조는 김 전 대표이사의 재취임설이 떠도는 가운데 '실패한 경영인이 일간지 사장의 현직 상태에서 취임한다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노조 설립을 서두른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 측의 '시간 끌기 작전'으로 노사협의회조차 운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별 활동 없이 명맥만 지켜 왔다. 2006년 11월 20일 회사의 사무실 이전과 관련 한마음 선원 주지 혜원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제'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혜원 스님은 "노조가 있는 한 지원 할 수 없다. 노조를 해산해야 살 길이 있다"고 강력하게 노조 해산을 종용했다.

회사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노조 역시 그 말씀을 거역할 뜻은 없었다. 11월 21일 기왕에 잡혀 있던 노사협의회를 앞두고 열린 간부 대책회의에서 "어제 주지 스님의 강한 의사 표현이 있었는데 오늘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면 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협의회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 의견에 따라 일부 간부가 노조 집행부에 그 뜻을 전하기로 하고 간부대책회의는 종료됐다.

그러나 총괄본부장은 노조 집행부의 문의에 대해 "그것은 전달한 사람의 개인 의사"라고 답함으로 노사협의회가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노사협의회에서 총괄본부장은 주지 혜원 스님의 20일 노조 해산 종용 발언과 관련 "그것은 주지 스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피력했다. 때문에 노조의 해산을 반대한 소수의 노조원들은 노조를 당분간 더 유지하자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노조 집행부는 현 상황은 노조의 해산이 우선적이라고 판단하고 해산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12월 7일로 공고했다. 그런데 7일 회사가 폐간 방침을 통보했고 총회는 11일로 연기됐으며 11일 낮 총회에서는 노조의 해산이 결의됐다. 노조는 당일로 종로구청에 해산을 신고했다. 이 같은 행보로 볼 때 노조는 회사에 위해 되는 행동을 할 생각조차 없었다. 오히려 해산을 방해하는 총괄본부장의 모호한 발언으로 해산의 시기가 늦춰졌고 그 사이에 이사회가 폐간을 결의했다. 총괄본부장의 모호한 발언이 폐간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아래 진행된 것이란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12월 7일 회사의 일방적인 법인 해산과 폐간 통보 직후 현대불교의 전 직원은 노조활동의 중단을 전제로 직원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경숙 편집부국장)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향후 회사 경영진과 한마음선원의 이사회 주주 등을 상대로 폐간 저지와 추후 방향 결정 등을 하는 직원전체의 의사결정 기구로 출범했다.

12월 9일 오전 비대위 임원진 7명은 한마음선원을 방문 한마음 선원 주지 혜원 스님과의 면담을 요청 했으나 주지스님이 지방으로 출타했다는 답변을 듣고 호소문을 전달했다. 비대위가 작성한 호소문은 9일 전국의 한마음선원 지원과 (주)현대불교신문사 주주 및 이사 전원에게 발송됐다. 12일에는 회사 측이 "오후 4시 회계법인에서 청산절차를 설명 한다"고 통보했으나 직원들은 이 설명회를 거부했다.

비대위 임원진은 12월 13일 오후 2시 30분 회사의 대주주인 혜원 스님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혜원 스님은 "더 이상 도저히 끌고 갈 수 없으니 해산에 협조해 달라"는 입장만 고수할 뿐, 새로운 경영자 물색과 그를 위한 시간 확보 등의 비대위의 요구를 거절했다.

6. 직원들의 입장 및 요구사항

현대불교의 직원들은 폐간 결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도 없다.

현대불교는 불교계는 물론 사회적 공기이므로 어떻게 해서든 그 가치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개신교의 경우 수많은 주간 신문과 일간지, 공중파 방송을 확보하고 치열한 선교 도구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

가뜩이나 포교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불교계 현실에서 비중있는 불교전문지를 없앤다는 것은 불교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범죄'행위다. 현대불교 직원은 현대불교를 살려내지 못하면 불교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는 각오로 현대불교의 유지를 위해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주장한다.

△현대불교 창간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제호를 유지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경비절감을 통해 독자적으로라도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 조처하라.

△신문의 지속적인 발간을 위해 현재의 사무실과 집기 각종 자료 온라인 시스템 등 일체의 유 · 무형 자산을 양도하라.

현대불교신문사 직원 일동

광주 '생명나눔상' 첫 수상자 박종민씨

"헌혈하면 할수록 마음 깨끗"

1년간 혈소판 헌혈 8회

광주에서 처음으로 '생명 나눔상' 수상자가 탄생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광주북구자원봉사센터 박종민(39) 소장. 이 상은 생명나눔 광주전남실천본부(본부장 현지 스님 · 이하 광주전남 생명나눔)가 한해동안 혈소판 헌혈 5회 이상 참가한 봉사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광주전남 생명나눔 설립 8년만에 처음이다.

광주전남 생명나눔은 12월 14일 KBC 컨벤션홀에서 '생명나눔회원과 함께 하는 어울림 마당'을 열고 박 소장에게 상장과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상을 수상한 박 소장은 수상 소감에서 "1시간가량 헌혈을 하고 있으면 불편하고 어둡던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낀다"며 "헌혈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편안하고 행복해 진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3년 전부터 혈소판 헌혈 봉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8회에 걸쳐 혈소판 헌혈을 했다.

광주전남 생명나눔 본부장 현지 스님은 "혈소판 헌혈 봉사자는 24시간 대기해야하며, 화순 전남대병원까지 직접 가서 검사와 헌혈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들은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영웅'이다"고 소개했다.

한편 한해를 마무리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음악가 유상호, 주권기 씨 등 모금활동에 앞장서온 봉사자와 후원회원들이 공로패와 봉사상을 받았다. 또한 지난 1년동안 영화 관람객을 대상으로 헌혈증서 5000여장, 나눔돼지통 200개 등을 모아 백혈병 환우에게 전달한 콜롬버스 시네마 김덕일 관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광주=이준엽기자

천태차문화회 1000명 참가

학술대회 · 헌다 작법시연 성황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가 주최하고 천태종 총무원 교육부가 주관하는 제4회천태차문화대회가 12월 8일 대구 대성사(주지도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부 법요식, 2부 천태차문화학술대회, 3부 육법공양 및 헌다 작법 시연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장 춘광 스님을 비롯한 천태종 전국 18개 사찰의 다도회 회원과 차인등 10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배지선 기자

어르신 2000명 오색떡국 공양

미륵사 선재원, 새해엔 월 2회 봉사

광주 미륵사 선재원(원장 혜법)은 12월 11일 광주공원에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오색떡국으로 대중공양을 올렸다.

연말을 맞아 마련된 이날 대중공양에는 다섯 가지 색의 떡으로 끓인 떡국 2000인분과 김밥, 초밥 등 다양한 음식이 선보였다. 4년 전부터 봄, 가을마다 지역의 어르신이 모이는 곳을 직접 찾아 떡국공양을 하고 있는 선재원장 혜법 스님은 "효도를 행하는 것은 곧 불법을 실천하는 것이다"며 "새해에는 매달 2회씩 노인정과 사회복지관을 찾아 음식공양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어르신을 위한 떡국 공양에는 미륵사 신도와 선재원 후원회원 100여명이 자원봉사했다. 이준엽기자

대구불교합창단련 6대 회장

기원정사 김태영씨 선출



대구불교합창단련 연합회는 12월 13일 대구불교회관에서 총회를 갖고 기원정사 비둘기합창단 김태영(62 · 사진) 회장을 제6대회장으로 선출했다. 김태영 회장은 1981년 은적사 룸비니합창단 창립회원으로 활동했으며 96년 이후 기원정사 비둘기합창단을 이끌며 전국환경행사의 홍보도우미로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왔다. 김 신임회장은 "내년 임기동안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사회적봉사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소년소녀가장 돕기 자비 탁발

영덕사암련, 첫 대외활동 … 130만원 모금

12월 9일 오후 2시, 영덕 강구시장에 염불 소리와 함께 지역 스님들의 탁발 행렬이 나타났다. 영덕불교사암연합회(회장 덕명)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을 짓게 하기위해 매일 일곱 집을 탁발하셨던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이어 소년소녀가장돕기 자비탁발에 나선 것.

이날 행사는 지난해 출범한 영덕불교사암연합회가 처음 갖는 대외 활동이어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영덕불교사암연합회는 12월 9일 소년소녀가장돕기 탁발에 나섰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공식적으로 나선 소년소녀가장돕기 탁발법회에는 보문사 덕흥사 영명사 등 영덕군 10여개 사찰 스님과 신도 30여명이 동참했다. 오전 10시 서남사에서 고불식을 가진 후 시작된 탁발행렬은 12시까지 영덕읍내를 돌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강구시장을 돌았다. 또 10일에는 영해지역까지 지났다.

9일과 10일 이틀간의 모금액은 모두 130여 만원. 노력에 비해 성과가 좋지 않은 것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탓도 있겠지만 영덕지역의 불교세가 그만큼 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바닷가 지역은 주민들이 기복적 타력 신앙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아 불교세가 약한 편이지만 지난 해 까지만 해도 사암연합회조차 결성되지 못했던 지역이어서 그 영향이 큰 듯 보였다.

그래도 영덕불교사암연합회의 첫 대외활동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의아하게만 생각했던 지역민들도 탁발의미를 생각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뻐했고, 자비탁발법회에 따라나선 불자들도 용기와 신심이 고조됐다.

해동사 신도회 총무 김미숙(39) 불자는 "처음에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랐지만 활동하면서 자신감도 갖게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영덕사암연합회장 덕명 스님은 "첫 활동이라 미흡한 점이 많고, 모금액도 예상외로 적었지만 지역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는 첫 걸음이었다는데 큰 뜻을 두겠다"며 "이 활동을 계기로 지역불교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덕불교사암연합회는 동지 때 쌀을 더 모아 탁발 모금액과 함께 영덕군청을 통해 지역의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전통불교영산회 법인출범 기념

광주시민초청 영산작법 시연

전통불교영산회(회장 혜령)는 12월 11일 광주 시민회관에서 창립 13주년 및 법인출범 기념 축하공연을 개최했다.

불교 전통의식인 영산작법 시연으로 펼쳐진 이날 공연에는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 태고종 광주전남 종무원장 금명 스님 등 각 사암 스님과 박광태 광주시장, 강박원 광주시의장 등 지역 기관장, 시민, 불자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공연에 앞서 영산회장 혜령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예향 광주에서 우리문화의 근간이 되는 불교전통의식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불교의식을 보존 전승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광태 광주 시장도 축사에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인 광주에서 불교전통 의식인 영산작법이 스님들에 의해 계승발전 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며 "불교 전통의식을 통해 부처님의 밝고 지혜로운 진리를 중생들에게 전하며, 독창적인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영산회원 40여명이 출연해 복청게, 천수바라, 다게작법 등 영산작법을 시연했다.

이준엽기자



캄보디아에 우물 35개 설치

대구 정법회거사림

대구 정법회거사림(회장 남두희)은 최근 캄보디아 현지마을에 1150여만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우물 35개를 설치하고, 의류 2370여점과, 학용품 1200여점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정법회 거사림 남두희 회장은 "지난 3월부터 거사림 산악회(회장 전광웅)의 주관으로 이석해 부회장을 단장으로 황보규태 부회장을 간사장으로 하는 국제봉사활동 준비기획단을 출범시켜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준비기획단은 캄보디아 시엠립 공항에서 동북 방향으로 반데스레이를 지난 35km지점의 푸웁칸 프롬 마을 426가구 2278명의 주민들에게 우물 20개를, 그 옆 마을인 돌 그로랑 마을 318가구 1670명에게 15개의 우물을 설치하는 국제구호활동을 펼쳤다.

우물 공사는 지난 10월 착공해 중간검사와 수질 분석을 거쳐 11월 27일 정법회 거사림 해외봉사단 22명이 참가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배지선 기자

대구운불련 신상용 회장

교통봉사상 국무총리상 수상



운불련대구지역회 신상용(49 · 사진) 회장은 12월 1일 서울중구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6회 교통봉사상 본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1991년 서울신문사가 제정한 교통봉사상은 건강한 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으로 신상용 회장은 선진택시문화정착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1996년 창립한 대구운불련은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를 표방하며 지역포교 뿐 아니라 선진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신 회장은 650여 회원들에게 제복 및 넥타이 착용을 계도해 택시 이미지 개선에 힘썼고 월1회 자율교통질서 확립 자체 교육을 실시해 회원들이 부처님의 제자로 자긍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서비스 개선에 노력했을 뿐 아니라 독거노인에게 김장보내기, 무의탁노인관광 시각장애인등 장애인 수송을 돕는 등 소외된 이웃돕기에도 힘썼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어린이 동안거 단기출가 시행

김천 직지사, 내년 1월 8~13일

김천 직지사가 제3회 어린이 동안거 단기출가를 1월 8일부터 1월 13일까지 초등학교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 50명을 대상으로 만덕전에서 시행한다.

어린이 동안거단기출가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은 5박6일간 직지사에서 생활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예불에 참석하고, 발우공양과 도량청소 등을 하면서 바른 생활습관을 익히게 된다. 또, 매일 오전에는 <한글 108 대참회문> <부모은중경> 읽기, 참선 및 요가를 하고, 저녁에는 <반야심경> <부모은중경>, 부처님말씀을 사경하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고 한문을 배우게 된다. 다도 및 예절교육, 레크레이션, 암자순례, 장작불 고구마 굽기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접수마감은 12월 28일. 회비는 12만원이다. (054)436-6174

성 명 서

현대불교신문 폐간 결정을 철회하라

한마음선원의 12월 3일 현대불교신문 폐간 결의에 대해 한국불교기자협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폐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대불교신문은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포교 원력에 의해 창간됐고, 지금까지 12년 동안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더불어 불교계 언론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도 공헌한 바가 크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이 축적해 놓은 수많은 자료는 불교의 공공자산이자, 불자들의 자양분이기도 하다. 폐간으로 인해 이 소중한 자산이 묻힌다는 것은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폐간은 곧 법인해체를 의미하며, 그것은 현대불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 · 무형의 자산을 송두리째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사장시키겠다는 폐간은 불교 언론은 물론 불교계 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결정이다. 더욱이 현대불교신문 폐간은 불교계 전체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경영부실로 인한 한마음선원의 부담은 이해하지 못 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현대불교신문사 직원들은 110여명이었던 직원 수를 40여 명으로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감수하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었기에 폐간 결정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또한 다른 운영주체를 모색할 여지마저 차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이런 방법이 부처님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더욱이 폐간을 통고하면서 3주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것은 현대불교신문사 직원들의 생존권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한국불교기자협회는 우려를 넘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따라서 한국불교기자협회는 한마음선원이 더 이상 현대불교신문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주체가 신문을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폐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불기 2550년 12월 14일

한 국 불 교 기 자 협 회

(관음불교신문, 금강불교신문, 만불신문, 밀교신문, 법보신문, 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한국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월간 불교와문화, 월간 불광, 월간 여성불교, 불교TV)

새해 일출 山寺에서 '만끽'


갓바위 일출

범어사·삼화사 등서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마련
연등국제선원·홍법사 어린이 특화프로그램 눈길

올 연말연시 산사에서 때로는 고즈넉하게 때로는 치열한 수행의 마음으로 부처님 품안에서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등 전국의 사찰들이 일제히 불자들과 함께 하는 연말연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부산 범어사는 12월 31일 타종식과 더불어 2007년 1월 1일 금정산 정상 고당봉에서 보는 해맞이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가족 소원 및 해맞이 소원 세우기 등과 함께 탑돌이 차담 타종식 등이 이어진다. 직접 재야의 종 타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해맞이 등반은 떡국 공양 후 1월 1일 새벽 5시에 시작된다. 범어사 뒤편 금정산 고당봉에 올라가슴에 품은 원대한 꿈을 일깨워보자. (051)508-3122~5

동해 삼화사는 12월 30일~1월 1일 2박3일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첫날은 범종체험 컵등 만들기 등으로 불교에 친숙해지고, 둘째날은 명상과 108배, 참회문 서원문 작성 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만든다. 서원의 종 타종식으로 2006년을 마무리하면 '새해 일출'을 만끽하는 자리가 기다린다. (033)534-7676

'송광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송사모)'이 순천 송광사에서 제4회 2007년 새해맞이 산사체험을 준비한다. 속세의 번뇌를 털어놓고 저녁9시에 취침에 들어보자. 송광사를 둘러싼 자연의 소리는 자장가처럼 마음을 울린다. 다음날 새벽 3시 새벽예불을 마치면 해발 762m 조계산 대장봉으로 해맞이 등반을 간다.


아침햇살을 받으며 도량을 청소하는 것도 마음을 비우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중 하나다.

예산 수덕사는 새해맞이 가족 행복기원 촛불제를 기획했다. 수덕사 촛불제는 촛불법회로 한 해를 마감하고, 기원제와 종이를 태우면서 차례를 올리는 것이 독특하다.(041)337-6565

불교에서는 섣달그믐 자정에 백팔번뇌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108번의 종을 치는 전통이 있다. **대구 동화사**는 108타종의 전통을 보존 전승하기 위해 31일 밤 9시부터 동화사 대웅전과 봉서루에서 108참회 정진기도를 봉행하고 촛불기원탑돌이와 타종식을 가질 예정이다. 새벽예불 후에는 동봉까지 산행을 하고 동봉마애약사여래입상 앞에서 신년 해돋이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053)985-4404

영천 은해사는 저물어가는 병술년 한해를 되돌아보며 참회하고 희망찬 새해 정해년을 맞이하기 위해 제야의 타종 전과 후에 540배씩 모두 1080배 정진 법회를 밤새 이어간다. 묘봉암과 중암암에서 해맞이도 준비했다. (054)335-3318

신라문화원은 천년고도 경주의 첨성대와 안압지에서 백등을 밝히며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석굴암에서 제야의 종소리를 들은 후 삼국통일의 정기가 서려있는 동해의 문무대왕릉 앞에서 해돋이를 할 예정이다. (054)774-1950

연말연시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들을 즐기러 겨울 산사를 찾아가는 것은 어떨까.

강화 연등국제선원이 4박5일간 초등학교 4학년~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다도 및 참선체험 영어캠프를 개최한다. 1월 8, 15, 22, 29일 네 차례에 걸쳐 불교와 영어에 친숙해지는 시간을 제공한다. (032)937-7033

금정 홍법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2월 23일 2박3일의 숲 속의 명상학교를 개교한다. 1월 중으로 9박10일간의 어린이한문학당과 영어체험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051)508-0345

보은 법주사도 어린이 겨울 한문학당을 1월 6~12일 연다. 한문 교육과 함께 황토염색 다도교실 예절교육 목판인쇄 등 불교문화체험이 가능하다. (043)543-3615

경주 골굴사의 선무도 화랑템플스테이 역시 주목할 청소년 전문 맞춤 템플스테이다. (054)744-1689

강지연 · 배지선 기자



해맞이 템플스테이개최 사찰

사찰	연락처	사찰	연락처
공주 영평사	(041)857-1854	해남 대흥사	(061)535-5775
공주 갑사	(041)857-8921	공주 마곡사	(041)841-6226
경주 골굴사	(054)744-1689	해남 미황사	(061)533-3521
원주 구룡사	(033)732-4800~5	보은 법주사	(043)543-3615
부안 내소사	(063)583-3035	양평 용문사	(031)773-3797
		고양 흥국사	(02)381-7970

2006年 불교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불서 10

'올해의 불서 10'은 3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 엄선된 올해의 대표적인 불서입니다. 한해 동안 출간된 불교서적 중 학술, 입문, 어린이, 응용, 수행 등 각 부문에서 불자들에게 추천하고픈 책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진정한 불자는 불서을 읽습니다

● 전국 불교서점과 일반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 연초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길위의 삼국유사



8백 년 전의 일연 따라 삼국유사를 거닙니다?

『길 위의 삼국유사』는 삼국유사 연구자이자 시인인 고운기가 삼국유사의 현장을 찾아가며 쓴 새로운 형식의 삼국유사 답사기다. 삼국유사를 21세기의 눈으로 새롭게 발견해가는 이 여행은 삼국유사 속 백제의 존재를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신라 문화의 고갱이가 담긴 경주와 그 일대, 강원도의 절들을 둘러보며, 설화와 오늘의 현실을 연결짓고 옛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만나게 한다.

글 고운기 · 사진 양진 / 신국판 / 반양장 / 올컬러 / 334쪽 / 값 15,000원
미래M&B ☎02)562-1800

생명과학과 선



생명을 모르는 생명과학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러한 지식이 지닌 빛과 그늘에 대하여 우리 자신들의 신중한 성찰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생명과학의 흐름 속에서 잠시 숨을 가라 앉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명과학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희종(서울대 수의대 면역학 교실) 교수 지음 / 240쪽 / 값9,800원
미토스 ☎031)955-4871

소 찾는 아이



어린이의 눈으로 풀어낸 "십우도"이야기

내가 잃어버린 소는 어디에 있을까? 첨벙! 한 마리. 첨버덩! 두 마리 ……
심우는 물고기를 세다 말고 문득 소나무 쪽을 바라봅니다.
"우리 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소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우는 깜짝 놀라 소를 찾아 나섭니다.
소는 어디로 간 걸까요?
심우는 소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김종민 그림 · 이상희 글 / 양장, 40쪽 / 값 9800원
사계절출판사 ☎031)955-8588

인도불교사 1,2



인도불교 역사의 정수 에띠엔 라모뜨의 고전 !

뷔르누프와 케른의 시대 이래, 인도의 새로운 필사본들의 발견, 중국과 티벳트 자료들의 조사, 금석문들의 발견과 고고학적 발견물들 덕택으로 인도역사에 관한 정보들이 증가되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자료들을 근거로 불교 연구 역사에 있어 한 시대에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저술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이 책을 통해 가지게 될 것이다.

에띠엔 라모뜨 지음 / 호진 옮김 / 915쪽 / 값35,000원
시공사 ☎02)588-0831

절 수행 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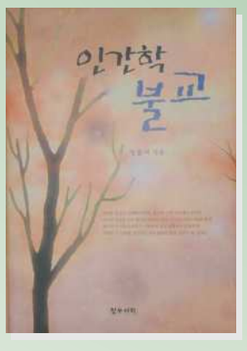


수행 초보자를 위한 종단 차원의 절 수행법 제시!

'불교수행입문' 시리즈의 두 번째 책으로, 여러 가지 절하는 방법 속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불자들에게 종단 차원의 절 수행 지침을 제시한다. 절수행을 하다보면 무아의 경지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낄수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과 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절 수행은 운동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현대인에게 적합한 수행법이다.

조계종출판사 / 불학연구소 엮음 / 신국 136쪽 / 값 6,000원
조계종출판사 ☎02)733-6390

인간학 불교



"인간학 불교란 불교를 인간학으로 규정한다는 뜻이며, 그 목적은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불교에서 찾는 것

인간학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불교의 전체 역사에서 전개된 교리와 사상을 모두 끌어낼 필요는 없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불교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향하여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불교 입문이 될 것이다.

정승석 지음 / 4×6판 양장 / 238쪽 / 값8,000원
정우서적 ☎02)722-2920

자녀교육의 지혜



부처님 가르침대로 키우면 자녀교육 성공한다!

현직 교사인 저자가 교육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교육이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넘나들며 쓴, 불자들의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위한 지침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딪치게 되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들을 뽑아, 그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일깨워 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민병직 / 국판 / 288쪽 / 9,800원
운주사 ☎02)926-8361

불교, 이웃종교로 읽다



붓다와 예수의 깊은대화 넓은 공존!

불교의 발생부터 세계화 속 불교의 현주소까지, 사상적 · 문화적 의미의 불교를 그리스도인의 이해와 시각으로 되짚어 본 풍요로운 종교의 세계가 펼쳐진다!
진정한 부처를 만나려면 잘못된 부처를 죽여야 한다.
그 길의 종착점에는 다른 종교로 자신을 돌아보는 이해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열린문이 있을 것이다.

오강남 지음 / 신국판 376쪽 / 값 15,000원
현암사 ☎02)365-5051

포교 전념할 수 있게 군법사 전폭 지원해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일면 주지)와 본사가 공동으로 진행해온 '2006년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은 군포교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포교에 대한 관심 제고, 군포교 시스템 강화 등 여건의 변화와 불교계의 인식전환을 이끈 점이 캠페인의 수확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할일이 많다. 열악한 포교 환경 개선은 물론 군법사 확보와 재원 충당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1년간의 캠페인을 마무리하며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지상 좌담을 마련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과 예비역 군법사이자 군종교구 산하 군포교연구실장인 정선진 법사, 현역 가운데는 5군단 김갑영 법사와 종합행정학교 김창모 법사에게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군종교구 중심의 조직적 포교활동과 군불교 후원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사진은 지난 11월 30일 서울 종로구 하림각에서 열린 제38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일면 스님 정선진 법사 김갑영 법사 김창모 법사

'군포교 활성화' 지상좌담

일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출범 1주년을 맞아 군포교의 위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요? 저는 교구장 취임 이후 군 사찰을 직접 방문해 보면 군 신자들의 사기가 충천되어 있고 기대가 큰 것을 느낍니다. 향후 제반 포교 여건을 활성화하여 군법사가 오직 포교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구의 지원과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각 군사찰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신도들의 신행활동 지도 및 군법사의 포교활동이 교구 중심으로 조직화되었으며 신도관리 및 교육, 연수 등의 사업도 체계화된 것 같습니다.

김갑영: 교구의 출범으로 군승단 시절에 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군내의 불교 위상 제고와 함께 법사들의 조직에 대한 귀속력과 결속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군종교구 출범이후 많은 변화 있어

김창모: 개인적으로는 개별적이고 분산되어 있던 군포교 활동들이 점차 군종교구로 집중되어 가는 느낌을 갖습니다. 아울러 조직이 시스템화 되어가고 법제화 되어감에 따라 활동 근거들을 찾을 수 있어 조직발전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변화된 조직에 대한 공유와 참여의식의 결여에 따른 조직구성원간의 사고와 행동의 차이가 공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일면: 조계종 군종교구 예산은 종단 지원금과 군사찰 분담금 등 약 4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만인동참입니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군불교에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구책이었습니다. 현재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격려와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2,100여명에 달하는 등록인원이 4,000구좌 이상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진: 주지스님 말씀처럼 전국의 주요 사찰과 신도들의 후원으로 만인동참이 군포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표치에 아직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종단 및 전국 사찰의 대덕 스님들과 군불교를 사랑하는 사부대중의 동참이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모금된 후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군불교가 활성화되는 모습으로 여러 후원자들로부터 신의를 쌓아가야 하겠습니다

김갑영: 만인동참에 후원을 해주신 모든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밝힙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이 절실합니다. 종단에서도 군 포교 주간 등을 정해 그 주간에 나오는 보시금을 군포교 기금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후원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종단 및 교구본사에 상시로 군포교 지원 보시함을 따로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해요. 한국불교의 미래가 곧 군 불교에 달려 있음을 모든 불자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인동참, 재원 확보에 도움

김창모: 교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 한 일입니다. 보완한다면 만인동참에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형태의 후원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가령 후원 방법을 다양화해서 일시 회원(1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정기 회원(월 1만원), 평생회원(500만원 이상)의 구분을 두고 회원에게 부대방문 행사, 군종지 발송, 연말 정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일면: 최근 군법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비구니스님이나 군포교 원력을 가진 타종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군장병 종교인 숫자에 비례해 군법사 정원이 결정되는 만큼 군포교 원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해 군불자 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총무원장스님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셨고 현재 조계종 총무원과 군종교구 관계자들이 실무팀을 꾸려 세부 사항을 논의 중입니다. 군불교가 타종교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비구니 스님과 타종단의 군승 파견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선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바로 군법사 스스로의 노력과 정진을 통한 자질향상입니다. 제도적으로 비구니스님이나 타종단의 불교 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군포교의 원력을 가진 사부대중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군법사 확보에도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갑영: 일정 연령과 자격을 갖춘 스님들을 의무적으로 군법사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군법사 경력을 주지 임명 등 인사 고과에도 반영한다면 많은 스님들이 군법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것입니다. 또한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 교육, 해외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어학, 상담, 의례 등 각 방면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첨단의 포교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타 종교의 경우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불교도 이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문가 양성에 매진해야 합니다.

군포교 주간 정해 기금 조성을

김창모: 군승 확보를 위해 타종단 참여나 비구니스님 영입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의 수급 문제로 30년간 쌓아온 군승 조직을 타종단과 거래하듯 하여 영입한다거나 비구니 승가를 군승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교감이 없이 받아들인다면 포교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수급 차질이 있더라도 내부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고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군법사 배출의 산실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정상화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군종교구와 종단이 긴밀하게 협조해 불교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불교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아울러 현실적인 군문제 해결과 사명감을 가지고 불교에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일면: 저는 교구장으로서 일선의 어려움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구에서 우선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선진: 28년간 군법사로 살면서 무엇이 군포교의 큰 걸림돌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군법사 확보 및 자질 향상, 군법사의 포교 의지와 원력, 신도교육, 합리적인 군사찰 운영, 군종교구의 종무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군법사 복무 스님에 인센티브 부여

김갑영: 사부대중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은 군불교의 현실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가슴으로 절실히 느껴봐야 합니다. 절집안에서는 불교가 있는 듯 하지만 절문 밖에서는 불교도, 불교인도 찾아볼 수 없다는 어느 외국인의 지적과 같이 우리 군불교도 현 실태가 얼마나 절박한지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김창모: 우선적으로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직도 군종교구와 종단과의 거리가 커 보입니다. 내부적으로도 군종법사와 군종스님의 간격도 있어 보입니다. 이원화된 정체성으로는 단결된 모습으로 포교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군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종교 활동이 없습니다. 군법사 개인 성향에 따라 신도들에게 제각각 전달됨으로써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포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면: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각 군사찰, 군신자 통합 네트워크 구축에 전력해왔고 비구니 스님 운용 방안, 타종단 군법사 파송, 민간인 성직자 활용, 후원 조직 체계화, 군신자 과반수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선진: 군종교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군법사는 포교에 진력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대급 법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포교 지원비 지원, 신병교육대 법회 프로그램 개발 및 빔 프로젝트, 노트북 등 장비지원과 수계활성화를 위한 금박수계첩 지원 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요.

김갑영: 지금은 양적인 포교보다 질적인 포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신자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한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불자 만들기가 더 큰 과제입니다. 아울러 각 계층과 세대에 맞는 새로운 법회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불사에 있어서도 주먹구구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군특성 살린 법회 프로그램 개발

김창모: 군포교 연구실을 활성화해 전체적인 포교 혁신 장 단기 프로그램과 군승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몇 년간의 개론서적인 불교지식과 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과 경험이 바탕이 되지 않는 이벤트성 프로그램만으로는 포교의 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또, 조직 발전은 내부의 끊임없는 혁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관료주의적 조직 문화, '나를 따르라'는 하향식 시스템으로는 조직의 발전을 기할 수 없어요. 군종 교구가 출범하여 얼마 되지 않아 하향식의 일처리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수도 있습니다. 군법사들이 '화이부동(和而不同)' 자세로 참여한다면 조직의 발전과 포교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리=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제26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상담학 박사 임재형

개강 1월 4일 오전 10시

기간 매주 목요일 6시까지 (7회과정)

통신교육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림(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특전 :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심리상담사 자격취득 可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같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대화를 통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소멸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명리학 성명학	사주 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최신기법, 심리치료, 자율훈련,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망법,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최면학회장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커버넌트대학교 최면치유학 교수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외 다수 대학과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강의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전 화 : (042)255-0734~5
•주 소 : 대전연정국악원(구)시민회관후문 청운빌딩(2층) 대전역에서 5분거리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전생 · 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공연시작을 알리는 전통북공연.


청담문화센터 수강생들의 경기민요 공연.


경기민요 이수자 방인숙(앞줄 중앙)씨와 문하생들이 아리랑을 불렀다.


청담문화센터 소속 B-boy팀 '런피플 브레이크댄스' 팀의 공연.


흥이 오른 미군들도 무대에 뛰어올라 자신의 기량을 선보였다.

미군과 한국 B-boy 신나는 춤 한마당


"한국문화 대단해요!" 주한미군 제3지역 캠프 험프리스 소속 신병 80여 명이 공연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디카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장병도 있었다.

한미친선 문화교류한마당 '제1회 청담문화공연' 현장

한국에 주둔할 미군신병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 문화교류 한마당이 열렸다. 평택 청담문화센터(원장 이근우)가 12월 11일 개최한 '제1회 청담문화공연' 현장은 감동과 웃음바다였다.

이번 공연은 매월 한국에 첫 부임하는 주한 미군장병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해 한·미 양국 간의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친선을 돈독히 다지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청담문화센터에 출강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쳐 온 유범동 주한미군 제3지역 지원사령부 공보관에게 이근우 원장이 이 같은 문화공연을 제안하면서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초대된 미군장병들은 청담문화센터에서 불과 1.5km정도 떨어진 주한미군 제3지역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 소속 신병들이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도 채 안된 신병들 80여명과 지역주민 200여 명이 청담문화센터 평생교육관 2층 대강당을 가득 메우자 "한국의 안보를 위해 이 땅을 찾은 동맹국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라는 멘트가 울려 퍼졌다.

#미군들도 무대 올라 춤추며 함께 어우러져

이어 방인숙(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이수자) 선생과 학교법인 청담학원(이사장 혜자) 산하 청담중 국악반 청소년 15명이 선보인 장구연주와 경기민요 가락으로 공연이 시작됐다. 박성실(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이수자) 선생과 문하생들의 고전 무용 '태평무', 창작무용 등을 지켜보던 미군들은 이어서 무대에 오른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이석씨의 유창한 영어인사에 환호를 보냈다.

황실문화재단 총재 자격으로 이날 공연에 참가한 이석씨는 "한국은 미국을 우방으로 생각한다"며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나를 부드럽게 사랑해 주세요(Love Me Tender)"를 열창해 미군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무대가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것은 청담정보통신고 졸업생 복영민(28)씨가 이끄는 청담문화센터 직속 B-boy그룹 '런피플 브레이크댄스' 팀의 공연이 펼쳐지면서 부터다. 가야금과 대금소리가 어우러진 강한 비트의 배경음악에 맞춰 '런피플 브레이크댄스' 팀이 춤을 추기 시작하자 미군들은 일제히 환호를 보내며 손을 흔들었다. 특히 B-boy들이 고난이도 헤드스핀(바닥에 머리를 대고 빙글빙글 도는 묘기)과 몸을 공중에 띄워 정지시키는 프리즈 동작들을 선보이자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급기야 몇몇 혈기 넘친 신병들이 무대로 뛰어올라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춤을 추며 함께 어우러졌다.

#한국전통 북소리 가슴을 울리네요

한국인 B-boy들과 함께 신명나는 춤을 춘 캐넌 라이트(22) 이병은 "한국에서도 브레이크 댄스를 접하게 될 줄 몰랐다"며 "한국인들 사이에 반미감정이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웠다. 또 다른 신병인 윌리엄 스티븐슨(28) 이병도 "태권도의 나라 한국에 와서 기쁘다"며 "맨 처음 연주됐던 한국전통 북소리에 가슴이 울리는 듯한 큰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공연을 감상한 미군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며 미리 연습해온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를 복창하고 청담문화센터를 떠났다.

글=이은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interview —— 청담문화센터 이근우 원장

"한국주둔 미국신병들에 우리문화 소개합니다"



"늦어도 2013년까지 미군 용산기지가 평택기지로 이전완료될 겁니다.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는 것을 환영하느냐 안하느냐를 떠나서, 평택에 주둔하게 될 미군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난 4월 20일 문을 연 청담문화센터 이근우 원장은 미군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 친선대사로 자청하고 나섰다. 앞으로 신병과 한국을 찾는 미군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민요, 전통악기 연주, 현대무용 등의 공연을 통해 한국문화를 보여주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매달 둘째 주 화요일에 미군신병들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부대가 펼치는 New Commers Brief Tour와 셋째 주 화요일에 미군 배우자들을 위한 Spouses Orientation Tou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담문화센터 문화공연을 넣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원장은 더 나아가 청담문화센터가 '미군부대 장병들이 편안하게 찾아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명상, 참선 등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대상의 한글교실, 참선강좌 등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곳이 미군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부처님 법까지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 미군이 팽성읍 주민들과도 상생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 × 30Cm
2 돈타레 5.6ϕ × 27Cm
5 약쑥향 1호 5.9ϕ × 20Cm
6 약쑥향 3호 4.7ϕ × 13Cm
7 약쑥향 4호 4.7ϕ × 10Cm
8 약쑥향 등초 3.1ϕ × 12.5Cm


▶ 식물성 양초
1 식물성양초 원기둥 7.4ϕ × 29Cm
2 식물성양초 돈타레 5.6ϕ × 27Cm
3 식물성양초 밀 대 4.6ϕ × 26Cm

일주문



해인사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합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1029일 천도법회 및 해인사 신행회 화림회가 기증한 수익금 등 1300여만원을 불우이웃돕기로 12월 11일 KBS에 기탁했다.



도서 기증 감사패 받아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국회도서관에 경전을 비롯한 도서 1008권을 기증해 12월 12일 국회도서관 배용수 관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청전 스님 초청 법회

마산 정인사 주지 원행 스님은 12월 20일 오전 11시30분 정인사 3층 법당에서 청전 스님을 법사로 '티베트불교 스님들의 수행과 정진' 주제 법회를 봉행한다.



'경계허물기' 주제 발표

광주 증심사 주지 진화 스님은 12월 14일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가 마련한 워크숍에서 '경계 허물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백혈병 치료비 모금콘서트 개최

광주 원각사 주지 도제 스님은 백혈병을 앓고 있는 김경희양의 치료비 모금을 위해 12월 24일 오후 2시 원각사에서 생명나눔사랑 콘서트를 개최한다.



서초구 불교사암련 회장으로

서울 대성사 주지 법안 스님은 12월 18일 열린 서초구 불교사암연합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02)583-1475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받아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12월 14일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06 동국인의 밤'에서 자랑스러운 동국인 상을 받았다.



부산불교실업인회 송년법회

부산불교실업인회 김윤환 회장은 12월 27일 오후 6시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051)818-9914



정목 스님 초청 명상법회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이석현 의무원장은 12월 27일 오후 6시 5층 대강당에서 정목 스님 초청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주제 명상법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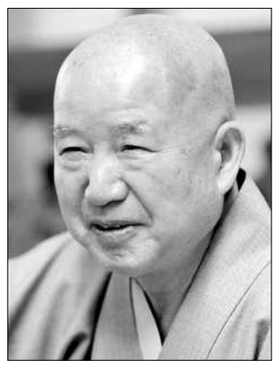


보관문화훈장 수훈

동국대 임돈희 교수(사학과)는 문화유산보호 서훈자에 선정돼 12월 8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보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어린이에 바른 국가관 심기도 '백년대계'"

제18회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정관 스님



'불교가 뭐했나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어린이 포교에 있다.'

어릴 때 불교 공부는 평생을 지탱하는 지혜가 되고 성장 후 삶의 방향까지 바꾼다. 100만 명에 가까운 어린이에게 불심을 심어 준 정관 스님(부산 영주암 회주 · 사진)의 포교 원력이 지대한 이유다.

정관 스님의 제18회 포교대상 수상은 어쩌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관 스님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어린 불자들을 키워 국가관, 우주관을 바로 세워야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해왔다. 종단에서 이렇게 챙겨주니 오히려 고맙다"고 밝혔다.

정관 스님은 "25년 전, 추운 겨울 대각사 지하에서 법회 교재를 등사기로 밀어 우편물 작업을 하던 지도교사들을 본 후 충격을 받아 어린이 포교에 눈을 떴다"고 말했다.

'어린이 포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정관 스님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에는 그늘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어린이 지도교사들이 있었다.

"어린이법회를 한다는 것은 지도교사, 공양주, 아이들의 마음을 두루 살펴가며 해야 하는 일"이라며 스님은 스스로 어린이 포교에 적절하게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털어놨다. 정관 스님은 천진불의 미소를 지닌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였던 셈이다.

정관 스님의 한결같은 지원과 관심으로 사무실도 없이 영주암 지하방에서 업무를 보았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유급 직원과 사무실을 갖추고 사단법인 동련으로 우뚝 섰다.

스님은 "매년 두 차례 열리는 연수회에는 사고 없는 연수회를 기원하는 기도를 하며 항상 행사장을 지켰다"며 "어린이 포교는 불교가 나라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고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종단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스님은 "앞으로 어린이 포교 인센티브제를 실시, 포교에 앞장선 스님이 공찰 주지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원혜 스님 태고종 충북종무원장 취임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장에 원혜 스님(충주 정심사 주지 · 사진)이 선출됐다. 태고종 충북교구종회는 12월 13일 종무원 회의실에서 교구종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원혜 스님은 "교구 종무원의 살림이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종단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종무원에 상주하면서 종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종헌종법에 따라 종도들의 기강을 바로 잡고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회에서는 또 종무원 부원장에 청원 금불사 주지 광해, 사정원장에 음성 신흥사 주지 운공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정덕 스님 불교상담개발원 3대 원장에



불교상담개발원은 12월 12일 2006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정덕 스님(사진)을 3대 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정덕 스님은 1992년 2대 원장에 선출된 뒤 3대 원장까지 연임하게 됐다.

정덕 스님은 "종단이 불교상담심리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공인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등 불교상담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불교상담개발원은 앞으로 불교상담대학과 대학원을 운영하는 등 전문 불교상담인력 양성을 위해 앞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서울 경기 부산 등지에 불교상담개발원 지부설립을 추진한다.

이은비 기자



대원상 상금 500만원으로 군법당에 책 보내

민족사 윤창화 대표

민족사 윤창화 대표(사진)가 대한불교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제4회 대원상 특별상 상금 500만원 전액을 군불교 발전을 위해 기탁했다. 윤 대표는 이 성금을 바탕으로 호국금강사, 화랑호국사, 호국백일사 등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로부터 추천받은 군법당 50곳에 15권씩 총 750권을 12일 발송했다.

윤창화 대표는 "군법당에 불서를 보내려 고민하던 차에 예상치 않게 큰 상금을 받게 돼 보시하게 됐다"며 기탁 이유를 밝혔다.

김원우 기자

원효종 창종 44주년 종도대회



원효종(총무원장 향운)은 '원효종 종도화합과 종단발전'을 주제로 창종 44주년 종도대회를 12월 15일 대전 그린타워에서 봉행했다. 1000여명이 참석한 대회에서 총무원장 향운 스님은 "원효성사의 화쟁통교, 원융무애 사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포교를 펼쳐나가자"고 당부했다.

김병관 장군, 군불총 제5대 회장에 취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병관 장군(육군대장)이 12월 10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열린 법회에서 국군불교총신도회 제5대 회장에 취임했다. 이날 김 장군은 "부처님 법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며 군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불자 장병이 되도록 솔선수범하겠다"라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조계종 포교사단 군포교팀 연수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는 12월 9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포교사단 군포교팀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는 부주지 계성 스님의 '군불교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수기사 이주완 법사의 '신병교육대 법회 활성화를 위한 슬라이드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예술제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12월 13일 장안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제7회 어르신 예술제'를 개최했다. 예술제에서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수강한 80여명의 어르신들이 태극권, 풍물, 댄스스포츠 등을 공연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7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영주세무서, 근일 스님 초청 강연회



영주세무서는 12월 13일 영주 부석사 회주 근일 스님을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화합'을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근일 스님은 "어려운 납세자들의 실정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안옥자 영주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정착을 위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아! 내 업장이 이렇게 두텁구나. 다 겁생 동안 쌓인 업장을 녹여야 비로소 참선(參禪)의 길로 들어설 수 있구나. 그래서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일과 중에 능엄주를 염송하는구나!"

'부처님 정수리에서 나온 진언' 이라 불리는 대불정능엄신주(大佛頂楞嚴神呪). 능엄주 인터넷 수행도량 '정림사랑방(cafe.daum.net/jeonglimsarang)'에 올라온 한 재가불자의 글이다. '왜 능엄주인가'에 대한 대답 그 자체다. 때문에 조계종 前 종정 성철 스님 서옹 스님 등 큰스님들은 "부처님 마음과 직결되는 능엄주력을 화두참선에 들기 전에 병행할 것"을 후학들에게 신신당부했다. 왜 그랬을까? 그 까닭이 무엇이고, 능엄주를 어떻게 외야 하는지 등을 알아본다.

번뇌망상 없애고 정진력 키워줘

'능엄주 염송' 이 선수행의 기초가 되는 이유



'능엄주' 염송은 수행자들의 업장을 녹이는 기초단계가 된다. 일반적으로 '예불대참회문(禮佛大懺悔文)' 독경에 맞춘 108배와 함께 진행된다. 사진은 불자들이 의왕 정림사에서 능엄주 염송을 하고 있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 철저한 '자력 정진'

타력에 의한 기원이나 스님들에게 부탁하는 기도와 불공을 배격했던 성철 스님. 선승(禪僧)인 스님은 왜 능엄주 염송을 강조했을까?

성철 스님은 '철저한 자력 정진'에 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자기가 지은 악업을 자신의 노력으로 참회하고 삼업(三業, 身 · 口 · 意)이 맑아질 때 비로소 과보가 바뀐다는 것이다. 즉 요행이나 사행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업장만 쌓이게 할뿐,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의미다.

특히 봉암사 결사 때부터 일과 중 능엄주를 독송했던 성철 스님은 "화두참선을 하는 재가불자들이 쉽게 화두에 몰입할 수 없을 때 능엄주 수행을 통해 번뇌망상을 없애고 정진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고 강조했다.

이런 까닭에서 성철 스님은 능엄주 염송이 참선 수행자들에게 타력과 자력을 겸한 수행방편이 된다고 말했다.

성철 스님의 능엄주 염송 강조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월운 스님은 "간화선 수행의 핵심인 신심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접근해서 체험을 얼마나 하느냐에 있는 만큼, 능엄주 염송은 '내 본래부처를 찾는 일에 부처님의 신력을 빌어 찾겠다'는 얘기가 같다"고 말한다.

월운 스님은 또 "자기 힘으로 깨닫는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자체가 부처님 진리를 믿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력에도 타력의 요소가 있고, 타력에도 자력의 요소가 있다"며 "이 둘은 상치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부상조적 관계에 있어 자력에 의해 타력을 빛내고, 타력에 의해 자력을 빛낼 수 있다"고 덧붙인다.

 # 신심과 빌심 일으켜

1988년부터 생활참선을 위주로 도심포교를 해온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능엄주' 염송이 선수행의 길잡이가 된다고 강조했다. 능엄주 염송의 핵심이 회광반조에 있다는 것.

혜거 스님은 "빛을 보면 빛을 보는 그 놈을 돌이켜 보듯, 빛이든 소리든 냄새든 보는(觀) 그 놈을 원만히 통달(圓通)해 삼매로 들어가는 행법이 바로 능엄주 염송의 고갱이"라며 "이 때문에 능엄주 염송이 선수행자에게 깨달음의 확신과 발심을 일으켜준다"고 말한다.

하남 정심사 주지 원영 스님도 "능엄주를 지송하면 청정 근본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역설한다. 능엄주의 뜻이 '용맹스럽게 정진해 선정을 닦는 데 힘을 돕는 주문'인 것처럼, 마음의 온갖 장애를 이겨낼 수 있고 수행의 힘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 때문에 능엄주 염송이 선종 사찰에서 전통적인 수행법으로 전해왔다는 것이다.

원영 스님은 "'능엄경'의 정수를 담은 능엄주 염송은 종합수행도량인 총림의 중요한 기도법이었다"며 "427구로 이뤄진 능엄주를 일념으로 지송하면 온갖 죄업이 남김없이 사라져 청정한 본래 근본으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밝힌다.

 # 정확히 큰 소리로 빠르게

능엄주 1편을 염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7~8분. 하지만 능엄주 염송 초심자에게는 하루 종일 외도 20번 넘기가 힘들다. 그만큼 주문 자체가 낯설고, 입에 익는데 시간이 걸린다.

30년전 성철 스님에게 능엄주 염송을 지도받은 꿈바위불교교육원 공세화 원장(65)은 "한 번이라도 정확히 발음하고 큰 소리로 빠르게 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입속에서 능엄주를 '웅얼~ 웅얼~' 거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느려도 정확한 발음으로 능엄주를 외야 한다는 주문이다.

무엇보다도 능엄주 수행자는 횟수에 집착하기보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하다.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은 "능엄주 염송은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움직여 부처님 법에 이탈되지 않는 생활을 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며 "병을 모르는 것보다 병을 알고 의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듯, 정신집중을 하는 데에만 위신력의 도움을 받겠다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김철우 · 노병철 기자

능엄주 염송은 언제부터?

중국 당대 총림 수행법 성철 스님 국내 퍼뜨려

능엄주 염송은 아비라 기도와 함께, 한국전쟁이 끝난 후, 성철 스님이 실의에 빠진 불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모든 고통과 악업은 과거생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지어온 업장의 과보"라며 일러주면서부터다. 그 연원은 중국 당대(唐代)의 총림 수행법으로, 현재는 해인사 백련암을 비롯해 전국 성철문도회 사찰 10여 곳을 중심으로 매년 네 차례씩 기도를 하고 있다.

능엄신주 염송 도량

합천 백련암	(055)932-7300
서울 정안사	(02)523-8088
수람가마선원	(02)2603-9175
부산 정수사	(051)246-3065
부산 옥천사	(051)781-1744
부산 해월정사	(051)703-9641
부산 고심정사	(051)464-0068
대구 정혜사	(053)624-9852
마산 정인사	(055)256-5450
하남 정심사	(031)791-7732
의왕 정림사	(031)426-4004
산청 겁외사	(055)973-1277
산청 길상선사	(055)973-6861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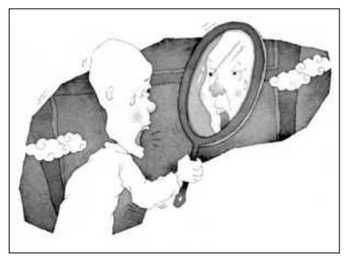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90〉 얼굴가난 (上)

칠십을 한참 넘긴 그래도 곱게 늙은 노보살님이 어여쁜 20대 손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가난 가난해도 '얼굴가난' 만큼 서러운게 없단다."

지금도 그런대로 봐 드릴만한 얼굴이다. 젊을 때는 인물값도 했을 것 같은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 더욱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그렇다면 현재의 저 차분한 얼굴은 기도수행의 결과란 말인가? 그 시절에는 성형외과도 없었을 텐데?

이른 바 '얼짱 시대'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몸짱'까지 함께 요구해온다. 그 와중에 '못생긴 건 용서해도 뚱뚱한 건 용서할 수 없다'는 새로운 유행어까지 횡행한다. 하긴 그 말이 맞긴하다. 얼굴이야 부모 탓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만은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한 순전히 자기책임이기 때문이다. 준수한 용모와 균형 잡힌 건강한 몸매를 갖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큰 복임에 틀림없다.



못난 외모로 서러워하는 그대여
양지 있으면 음지도 있는 법
相이 相 아닌 도리 알아야

어찌 보면 금생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삼생에 지은 복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불가에서는 어느 사찰 할 것 없이 모든 주지스님들은 단월들에게 꽃공양을 시킬 때 언제나 "다음 생에는 더욱 미인으로 태어나라"는 덕담을 빠뜨리지 않는다.

젊은이들한테 자주 듣는 소리인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지는 "필이 꽂혀야죠" 라는 말은 따지고 보면 거개가 그저 껍데기에서 받은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게 없다면 뒷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것을 탓할 일도 아니다. 문제는 법문삼아서 '고운 마음씨' 운운하는 말들이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별로 설득력이 없고 또 위로가 되지 않는 시대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相)이 상(相) 아님을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상(相)을 볼 수 있다는 도리를 함께 알려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절집안이 가진 딜레마이기도 하다.

순임금은 키가 매우 작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성군의 소리를 오늘까지 듣고 있다. 현대심리학에서도 키가 작은데서 오는 열등감을 '나폴레옹 콤플렉스' 라고 부른다. 그러고 보면 나폴레옹 역시 단신이었다는 말이 된다. 공자는 머리통이 언덕같이 평평하게 생겨 공구(孔丘)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각이 진 머리 땜에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보건대 설사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신체적 콤플렉스에서 자유롭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을 극복하고서 인류역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하게 장식하고 있으니 범부와는 다소 차별성을 가진다.

혜능선사 역시 등신불을 보면 인물이 별로였고 방아를 찧을 때 몸무게가 모자라 돌을 허리춤에 찼다는 것으로 보아 덩치도 왜소했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노스님들은 인물 없는 제자들을 보고는 '나한같다'는 표현을 종종 하시곤 한다. 나한전에 가보면 정말 개성 있게(?) 생긴 군상들이 즐비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얼굴모양보다는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수행결과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걸 칭찬인줄 알고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심을 알고 보면 그게 아닌 것이다.

3조 승찬 스님은 풍병으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 '적두(赤頭)찬' 즉 '대머리 승찬'으로 불렸다. 도안법사는 얼굴이 검어서 스스로 '흑두타(黑頭陀)'임을 자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교단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고령신찬 선사는 목욕탕에서 스승의 등을 밀어주면서 "법당은 좋은데 영험이 없다"고 하여, 허우대는 멀쩡한데 수행력이 받쳐주지 않고 있음을 비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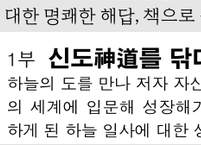
아난존자는 매우 미남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다정다감하여 비구니 그리고 우바이들에게 인기가 그만이었다. 두타행을 일삼는 허수구레한 늙은 가섭존자에게 '찍힌' 이유에는 이것도 포함될 것 같다. 삼십이상 팔십종호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수려한 모습은 남들로 하여금 신심을 더욱 내게 하고 불법에 귀의토록 하는 유효한 수단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미인박명(美人薄命)이란 말처럼 좋은 점이 있으면 그 못지않게 음지도 있는 법이다.

■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여러분 아직도 레이키(Reiki 靈氣)를 모르십니까?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개발해 20세기 전반기에 약손요법, 氣주입법, 氣치료법으로서 일본의 대중사회에 일대 유행을 일으켰던 대체요법 보완요법의 체계입니다. 바로 氣요법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1980년 부터 미국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한 후 현재는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국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질병의 치료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특히 여러가지의 심신상과성 질환과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내용
• 자기치료법 • 타인치료법
• 원격치료법 • 마음의 버릇 치료법
• 영성향상법 • 면역력강화법
• 동식물에 대한 氣 주입법, 종합요법 등
▶ 교육 후 1개월 내외 무료복습 · 보충 교육제도실시
인터넷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회장 박희준)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방향으로 10분

불자님께 알립니다
고통받는 불자님들을 위하여 자비행을 고심한 끝에 청정고을 경북영양천의 오지 일월산에서 생산되는 자연산나무와 뿌리만을 가지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와 경험으로 정성껏 다려서 병마에 고통 받는 불자님 여러분들께서 고민없이 복용 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불자님들께서 건강하셔야 불국정토가 이룩됩니다.
1. 자연산 * 돼지감자의 효능 *
• 당뇨(천연이눌린이 다량함유)에 탁월한 효능 및 강장식품
• 각종암과 성인병예방 및 고혈압, 간, 위장, 심장두근거림과 대장운동촉진으로 변비에도 효능(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됨)
2. 자연산 * 헛개나무의 효능 *
• 간장, 대장, 신장, 위장치료의 효능
• 간경화, 지방간, 간암예방, 만성 관절염의 치료와 알콜해독은 물론 술로 인한 황달에 효능
3. 자연산 * 뽕나무의 효능 *
• 고혈압, 중풍, 당뇨, 대장, 소장, 관절
• 수족마비, 각기병, 소변불리에 효능
위 내용으로 고통 받는 불자님께서 전화를 주시면, 108분께 「50봉들이 1박스」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전화번호 : 054)682-5808
※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관 법 사 총무 성덕 합장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인비록 人秘錄 www.heaven777.com
죽어서 가는 길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해광 하순천 지음/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372쪽/15,000원
2005년 사단법인 대한명인 문화예술교류회에서 선정한, 관법 분야 해광 하순천 대한명인이 밝히는 하늘도의 기도와 수도의 과정, 사후세계의 비밀, 전생과 현생, 신의 세계에 대한 갖가지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 책으로 출간되다!
1부 신도神道를 닦다
하늘의 도를 만나 저자 자신이 직접 체험하게 된 세계, 저자가 하늘도의 세계에 입문해 성장해가는 과정, 그 과정중 증거인이 되어 증거하게 된 하늘 일사에 대한 생생한 기록.
2부 죽어서 가는 길
사후세계의 비밀, 사람의 사후세계의 세 가지 모습
당신의 선택은 어느 방향으로…?
3부 전생과 현생
저자 자신이 직접 본 자신의 전생, 그리고 사람들의 전생 이야기
자신을 뒤덮은 업과 살과 가피에 대한 진정한 통찰과 깨달음
4부 내가 본 신의 세계
신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해답들이 저자 자신의 체험, 기도, 수도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다.
문의 : 도서출판 대도대한
전화 063) 643-7285 / 팩스 063) 643-7782

머무는 곳마다 지장도량 일궈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묘허 스님 (단양 방곡사 회주)



수행에 가속력을 붙여 깨달음이라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철저히 선방서 수행에 몰두해야 한다는 묘허 스님은 요즈음 후학 양성을 위해 무문관 불사에 전력하고 있다.

도심의 길거리에는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12월의 백주대낮, 소백산 자락에 위치한 방곡사로 들어가는 길은 밤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적막했다. 경내에 들어서기 전까지 인적은 거의 없었다. 이따금씩 들려오는 칼바람소리만 나그네를 맞이할 뿐이다.

방곡사에 들어서니 묘허 스님은 법당에서 신도들과 사시불공을 하고 있었다. 스님은 법문 초청이 있어 다른 사찰에 가더라도 반드시 사시에는 법당에 들어가 기도한다고 했다.

기도를 끝내고 회주실에서 만난 스님은 "아직 점심 공양전이시지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우선 밥부터 먹읍시다"며 공양간으로 안내했다. 스님에게 점심공양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루에 점심한끼만 먹는 스님에게는 지금이 하루중 유일한 식사시간이다. 한끼만 드시는데도 무척 건강해 보였다.

"일종식만 해도 살아가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투명해지는 것 같아 좋아요."

음식에 대한 집착이 많은 속세인의 고정관념으로는 정말 가능한 일일까 염려돼 물어보니 스님은 오히려 장점이 많다고 안심시켰다.

스님에겐 일종식의 원칙 말고도 자신과의 약속이 하나더 있다. 전국 어느곳에 가서 법문을 하더라도 밤에는 반드시 방곡사로 돌아와 잠을 잔다. "내 집을 놔두고 다른곳에 가서 자면 수행 리듬이 깨집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법문을 하더라도 반드시 한밤중에는 절로 돌아옵니다." 얼핏보면 당연한 원칙 같지만 평범한 것을 오히려 가벼이 여기며 사는 속세인에게는 자신에 대한 그 엄격함이 무척 거룩해 보였다.

겨울철이라 법문 초청이 많지 않은 요즘 묘허 스님은 방곡사 불사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방곡사는 선원과 대웅전 불사가 한창이다. 공양 후 불사 현장구경도 할 겸 산책이나 하자며 경내 구석구석을 안내한 스님은 거대한 지장보살상 앞에 서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스님은 "내가 그동안 불사한 신탄진 신흥사, 김해 원명사가 다 지장도량인데 왜 그런줄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기자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설명이 어어졌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은사인 화엄 스님 영향이 커요. 은사스님은 모친의 권유로 일본 오사카 의대를 졸업하셨지요. 그 후 2차대전 때 군의관으로 끌려가자, 은사스님의 모친이 매일 저녁 등을 밝혀놓고 지장보살님께 지극정성으로 무사안녕을 기원했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은사스님의 모친이 기도중 등이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상한 체험을 하게됐지요. 바로 그날밤 군대 막사에서 잠이든

> **일종식과 절에서 잠자는 것 원칙…수행리듬 철저히 지켜**
> **주지 소임 18년 맡는 동안도 참선공부 게을리 하지 않아**
> **철저히 수행해야 깨달음 빨라, 현재 '무문관' 불사 중**

은사스님은 잠결에 어머니가 부르는 소릴 듣고 막사밖으로 뛰쳐나왔답니다. 잠시 후 그 막사는 미군들의 폭격으로 산산조각이 났고 은사스님만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은사스님은 그 후 모친의 뜻을 이어 일생동안 지장기도만 하셨지요."

은사스님의 뜻을 받들어 머무는 곳마다 지장 도량으로 일군 묘허 스님은 주위에서 보기 드문 효상좌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50여년 출가생활동안 여러사찰의 주지 소임을 맡으며 불사도 많이 했지만 묘허 스님의 원래 꿈은 평생 선방수좌로 사는 것이었다. 어릴적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주지자리나 탐내고 재물이나 좇으면 사문이 아니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묘허 스님은 강원을 졸업하고 연이어 11하안거를 성만했다.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바로 인생인가 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업(業) 때문에 발생된 일이지요. 선방 도반들과의 인연을 뿌리치지 못해 신탄진 신흥사에 머물다가 신도들의 요청으로 주지직을 18년이나 맡았으니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인연때문에 계속 주지직을 놓지 못했어요. 하지만 참선 공부만큼은 게을리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묘허 스님이 현재 후학들을 위해 선원(무문관)을 짓고 있는 것도 바로 수행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유서깊은 고찰이라도 스님들이 수행하지 않으면 한낱 마구니 소굴에 지나지 않으며, 초가삼간일지라도 수행공부 열심히 하는 스님들이 많다면 바로 그 곳이 영험도량이라는 생각에서다.

"불교는 개신교 등 다른 종교와 달리 자기 스스로의 수행력에 의해 나를 구제할 수 있는 자력성이 강한 종교입니다. 똑같은 목적지라도 걸어가는 것보다 자동차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듯이 수행에도 가속력이 붙으면 깨달음이라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정기간 철저하게 선방에서 수행에 몰두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생각에서 하루라도 빨리 무문관 불사를 앞당기려고 묘허 스님은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독려한다.

스님은 마지막 발원인 대작불사의 원만 회향을 통해 이 무문관에서 출현할 수많은 선지식들을 머릿속에 그리며 오늘도 구슬땀을 흘린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세로 88 cm × 가로 58cm

불자가정의가보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 사는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애 좋은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소재화다. 소재화인 수월관음도는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번

수 월 관 음 도

가정의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에 감탄을 하고 둘째는 섬세함에 감탄을 한다. 험한 세상 자손만대로 안녕과 번영을 지키는 불자가정의 수호신인 수월관음도는 조계종 종정상과 대통령상, 한국불화대전 대상을 수상한 불화의 명장이신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불화로 100% 천연코튼 판화지에 28도 판화와 베틀린 왁시를 사용해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줘도 변색되지 않게 제작 했으며 최고급 2단 돌출표구로 거실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다.

불자가정의 3대 가보중 첫번째인 수월관음도는 뒷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 있는 소장인란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 등 지난번 KBS 역사 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 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 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개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가격 1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용 어 해 설

-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모습이 그윽한 연못위에 비치는 달처럼 무명의 어둠에 있는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구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 **소재화(消災畵)** 불교에서 소재화란 모든재난과 고통 액운등을 소멸하고 예방한다는 불화 그림을 말한다.

화제의 지갑

옴마니반메훔 福 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남성용중지갑(검정)



여성용銀나노 장지갑
(적색, 보라색)

원하는 재물과 땅속의 보물까지 얻는 평생 부자지갑!!

동서 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고 어려운 일들이 묘하게 풀리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다고 하여 신통묘통하게 만사가 형통 된다는 신묘장구대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지갑이 출시 6개월 간에 숫한 화제를 낳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까지 마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

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 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고 복권에 당첨되어 친지가족들에게 지갑을 선물하는 등 믿음의 지갑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고 만사를 형통하게 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 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 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 하는 팔길상 보병과 지갑을 가지는 순간부터 건강이 회복되고 장수하게 건장상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 소가죽에 은나노처리까지 한 지갑으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여성이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지니고 다니면 물질적인 고통이 해결되고 가정이 번영하며 후손들이 성공한다는 행운의 뜻이 있어 제일 인기다. 또한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지갑을 사용하신 분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까지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준다.

- **남성용중지갑** 65,000원
- **여성용장지갑** 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순간 순간 후회없이 살아야

묘허 스님의 가르침



통도사 등서 11하안거 성만

묘허 스님은 1943년생. 1957년 상주 남장사에서 한산당 화엄 선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1963년 상주 남장사 불교전문강원 대교과를 졸업했다. 1965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이후, 성암강백 화상 밑에서 대교 이력 및 〈전등록〉을 이수하고 이후 제방에서 정진하였다. 특히 통도사 보광선원 수선안거이래 11하안거를 성만했다. 1975년 은해사 말사 군위 법주사 주지를 거쳐, 1979년 신탄진 신흥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신탄진 신흥사 · 김해 원명사 · 단양 방곡사의 회주를 맡고 있다.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막상 연말이 되면 각자가 과연 올 한해 의미있게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월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람과 사물, 현상만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오고 갈 뿐입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세월에 집착해 시시한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본업(本業)입니다. 참 이 업이라는게 무섭습니다. 이 업은 생사의 근본이요, 윤회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마음이 산란해 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업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새해에는 선업을 짓고자 노력한다면 아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그렇게 서럽거나 초조하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업'이란 말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도 드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릴 때 뭐라 그럽니까. 전생에 왜 이리 업이 많은지, 업장이 얼마나 두터운지, 아이구 이래도 업이 다 소멸되지 않았는지 이런식으로 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체 업이란 무엇입니까?"하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째서 그러냐 하면 이 업이라는 말의 어원이 본래 우리말이 아니거든요. 업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인데 이것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중국땅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한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바로 업(業)자를 사용하게 됐어요. 업을 가장 알기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일을 물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 직업이 무엇이냐?" 그러지요 이것도 결국은 현재 하는 일 즉 업을 묻는 것입니다. 내 직업은 상업이다, 농업이다, 공무원이다 그럽니다. 이것도 일종의 업이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했던 일거수일투족 행위 자체도 업 아닌 것이 없지요.

업은 크게 '사업(思業)'과 '사기업(思己業)'으로 나눕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와 달리 선악시비를 누가 만들어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우리 목전에 선악과 시비가 왜 나타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선악의 원인은 우리가 일으키는 한 생각에 있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 이것이 선악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선과 악으로 갈라질까요.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죄가 되는 순간이요, 그다음에 착한 생각, 어진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예 이 생각 자체를 끊어 버리면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여기서 일어난 생각, 좋고 나쁜 생각 등 그 생각 자체를 '사업(思業)'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꺼 버리면 업이 되질 않는데, 이것을 마음속으로 결정지어 버리면 '작위업(作爲業)' 즉 '사업'이라고 합니다.

또 결정지어진 생각을 우리 몸뚱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행위업(行爲業)' 즉 '사기업'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통칭해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해 말하면 이 사바세계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생동안 우리가 지은 업은 끝이 없습니다.

그 셀 수 없는 업을 또 나누어 보면 선업과 악업, 무기업 등 세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과 상대가 함께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행위가 선업이고, 자신과 상대에게 피해를 미치는 것이 악업이며, 자신과 남에게 해도 득도 모두 안되는 것이 바로 무기업입니다. 무기업은 힘이 없는 업, 무기력한 업을 말합니다. 왜 나같이 힘없는 늙은이를 무기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이런 업들을 우리는 몇가지 신체기관으로 짓게 됩니다. 신구의(身口意) 즉 몸과 입과 뜻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바로 신구의 3업이라고 합니다. 첫째, 몸으로는 살(殺), 도(盜), 음(淫)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몸으로는 세가지 업을 짓게 돼 있지요. 둘째, 입으로는 네가지 업을 짓는데 망어, 기어, 양설, 악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뜻으로는 탐, 진, 치 세가지 업을 짓지요. 신구의 기관을 통해 나쁜 행위를 저지르면 악업이 되고 참으면 선업이 되지요.

업에는 또 나와 남이 함께 어떤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공업(共業)'이 있고, 그 과보를 혼자 돌려받는 '불공업(不共業)'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업의 종류는 다양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구의 3업을 통해서 한번 짓고 저질러 놓은 업은 백겁 천겁 만겁이 지나가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자기 스스로가 다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돌려받을 때에는 또 어떻게 받느냐 하면 선업은 선보(善報),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요. 내가 좋은 일을 해놨는데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업은 악보(惡報)라 했지요. 나쁜일을 지어 놓았으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는 없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업을 짓지 않는다면 이 업은 생유와 본유, 그리고 사유와 중유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자궁에 자리잡고 있을때인 입태, 세상에 나오기전까지 뱃 속에 있는 동안의 처태, 태어남의 출태, 이 세가지를 한마디로 생유라고 하고,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동안을 본유라고 합니다. 한 평생 살다가 죽으면 사유라고 하는데, 이는 다시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다시 이생으로 돌아올 때 까지를 중유라고 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생유에서 본유로, 사유에서 중유를 통해 다시 사유를 거쳐 생유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에서 사로 가면 돌아가신 것이지만, 사에서 다시 생으로 오니 돌아오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윤회와 업연의 원리를 정확히 알면 금생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정확히 나오지요. 불자여러분들 곧 희망찬 새해가 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업의 의미를 곱씹으며 새해에는 더 많은 선업을 쌓기 위해 마음을 다 잡는 연말이 되도록 합시다. 새해에는 날마다 선업쌓는날 되십시오.

정리=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85〉



술을 왜 마시지 말라 할까

부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술 취한 사람 세 명을 만났습니다. 평소 술 먹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부처님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 중 한 명은 부처님을 보자마자 숲 속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세를 바르게 하여 앉은 뒤에 제 뺨을 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계율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전혀 다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에게 보란 듯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내가 당신 술을 마셨소? 그것도 아닌데 왜 내가 두렵고 부끄러워해야 하오?"

서로 다른 행동을 취한 세 사람을 두고 부처님은 아난에게 말하였습니다.

"숲 속으로 도망친 사람은 미래에 미륵이 부처가 될 때 성자가 되어 해탈할 것이다. 자세를 바로 앉아 제 뺨을 때린 사람은 천 명의 부처님 세상이 지난 뒤에 성자가 되어 해탈할 것이다. 그러나 일어나 춤을 춘 저 사람은 결코 제도되지 못할 것이다."(구잡비유경)

술 마시기 딱 좋은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월급 타서 한잔(월요일), 화가 나서 한잔(화요일), 수금해서 한잔(수요일), 목이 말라 한잔(목요일), 금주의 날이어서 한잔(금요일), 주말이라서 한잔(토요일), 일을 안 해서 한잔(일요일)'이라면서 매일 술잔을 기울여왔는데 이제 저물어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아쉬움을 술잔에 담아 마셔버려야 하는 좋은 구실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술은 기원전 4~5천 년 전부터 인류와 함께 해온 음료입니다.

원시시대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먹고 목이 마르면 과일을 따 먹었는데 그러다 차츰 과일을 쌓아두게 되고 그렇게 저장된 과일들이 발효가 되면서 시큼한 액체로 변하고 그것을 마신 인류는 점차 그 맛에 길들여져 그 음료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술의 기원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지라 술과 인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도, 병을 고칠 때도, 추위를 이기거나 고통을 잊거나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술은 언제나 사람의 손 가까운 곳에 있어왔습니다.

술이란 참 오묘한 액체입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180도 바꿔놓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정고백을 할 때, 평소 직장 상사에게 억눌렸던 감정을 털어놓을 때 술의 힘을 빌리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친구와 다정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밤새 나누는 대화는 상상만 해도 정겹습니다. 어른이 된 자식에게 술을 가르치는 부모의 모습에서는 엄숙함마저 느껴집니다.

그런데 술이란 것은 딱 그 정도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일단 술을 마시기 시작한 사람은 "한 잔만 더!"를 외쳐대니 그게 문제입니다.

술 그 자체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술을 마신 뒤에 항상 실수를 저지르고 마니 반드시 지켜야 할 5계에 '술 마시지 말라'가 들어간 것입니다.

마시면 사람을 180도 바꿔놓는 '술'
마셔서 좋은것보다 나쁜것 더 많아
5계에도 '술 마시지 말라' 들어있어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참 많은 허물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쯤은 술자리를 피하고 이 허물들 중에 몇 가지가 내게 있는지 따져 봐도 그리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면, 첫 번째로는 재산이 허망하게 없어진다. 취해버린 탓에 절제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온갖 병에 걸린다. 세 번째는 자주 시비가 붙게 된다. 네 번째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주 벌거벗는다. 다섯 번째는 '저 사람은 술꾼'이라는 오명이 퍼져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는 지혜가 없어진다. 일곱 번째는 숨겨야 할 일을 모두 말해버린다. 여덟 번째는 성공하지 못한다. 아홉 번째는 취한 동안에 저지른 실수 때문에 깨어난 뒤에는 부끄러워지고 근심이 생기게 된다. 열 번째는 차츰 건강을 잃어간다.

열한 번째는 부모와 윗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열두 번째는 나쁜 이들과 어울려 다니게 되고 선량한 친구들이 떠나게 된다. 열세 번째는 점점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할 줄 모르게 된다. 열네 번째는 정욕에 휘말려 방탕해진다. 열다섯 번째는 못 된 짓을 저지르고 착한 일을 멀리하게 된다. 열여섯 번째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이 멀어져간다. 술에 취하면 게을러지기 때문이다. 열일곱 번째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며 설령 사람으로 태어난다 해도 미련한 이가 될 것이다."

〈법원주림〉에서는 이밖에도 더 많은 허물을 이야기한 뒤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새는 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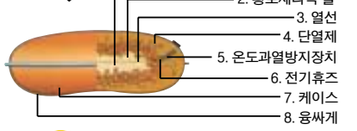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토황토 배찜질기



전화 주시면 즉시 물건을 받아 보시고 충분히 검증 후 결재하셔도 됩니다.
100% 환불 보장

제품구조설명



토 황토 배찜질기의 특징
1. 국내 최초 축열식 배전용찜질기
2. 직접가열 축열식 충전시스템
3. 고 기능성 황토볼 사용
4. 원적외선 이중방사
5. 사용 시 유해전자파 무
6. 제품사용의 편리성
7. 저렴한 전기료
8. 인체 공학적인 설계
9. 전기안정된 제품 설계

배만 따뜻하게 하십시오.
오장이 튼튼합니다.

배전용찜질 용도 이외에
허리, 가슴, 어깨, 손, 발, 무릎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쑥 베 게
밤새껏 쑥향을 맡으며 푹 주무십시요.



• 규격 : 가로 55㎝×세로 35㎝

머리가 맑아지며피로감이 사라져 몸이 참 개운합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옷 짓고 물염하며 사시는 맑고 밝은 김순옥 보살님의 솜씨입니다.

초특가!! 1+1+1+1=4개를 98,000원에 드립니다.

조계종 9대 종정 큰스님 친서화 부자되라는 글



• 규격 : 가로 29㎝×세로 24㎝
※ 금장도금, 고급 양장 케이스
※ 단체 주문시 보시 가격에 드립니다.

돼지 액자
불자님 각 가정마다
행운을 기원하며 큰 스님께서
친히 내리신 친서화입니다.



내년은 정해년 돼지해
내년은 100년만에 찾아온 금돼지 해 입니다.



쑥 방 석
천연 우리 쑥 100%
천연 황토물염
쑥향이 가득합니다.

• 규격 : 가로 50㎝×세로 50㎝×높이 5㎝
-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고 마음이 개운하며 머리가 참 맑아집니다.
- 30分만 앉아 있어도 방안에 쑥향이 가득하며 실내의 잡냄새가 제거됩니다.
- 혈액순환을 돕고 발한작용을 촉진시키고 심신 안정에 좋습니다.

큰마을 사람들
전남 순천시 석현동 896번지
주문전화 : 061)755-4879
농협 : 601063-52-099899 예금주 : 박미숙

예술가의 열정이 숨쉬는 동유럽 기행



예술의 도시-자유 사랑 그리고 열정
이태훈 지음 | 다른세상 | 1만6000원

서유럽에 비해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요한 열정으로 수많은 예술가들을 탄생시킨 동유럽의 모습은 어떨까?

<예술의 도시-자유 사랑 그리고 열정>에 담겨 있는 '모차르트의 선율이 스며있는 잘츠부르크' 편을 들여다보면 모차르트라는 걸출한 천재음악가를 배출한 도시의 숨겨진 이면을 소상하게 보여준다.

'소금(salz)의 산(burg)'이라는 뜻의 잘츠부르크는 소금을 유럽 전역에 공급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도시는 19세기부터 '음악의 도시'로 바뀌면서 예술의 꽃을 화려하게 피운 계기가 됐다. 잘츠부르크가 세계역사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차르트라는 걸출한 천재 음악가를 배출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카프카, 실레, 모차르트, 클림트, 베토벤, 심보르스카, 쇼팽 등 수많은 예술가들을 낳은 동유럽 도시들의 매력과 예술가들의 일화, 도시들이 가진 문화 · 역사의 세계를 간결한 필체로 써 내려간다.

책에는 천재화가 로댕이 사랑한 체코 프라하, 한 폭의 수채화 속에 음악이 흐르는 오스트리아의 빈과 모차르트의 선율이 스며 있는 잘츠부르크,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곳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그리고 아드리아 해를 울린 타르티니의 바이올린 피란이 소개된다. 이어 동유럽에 핀 이슬람의 꽃 보스니아 모스타르, 잃어버린 영원한 제국의 수도 폴란드 포즈난과 쇼팽의 선율이 흐르는 도시 바르샤바, 음악과 시가 흐르는 다뉴브의 진주 헝가리 부다페스트, 오선지 위에 사랑하는 여인을 그렸다는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등으로 안내한다.

또 크로아티아의 스플릿은 로마 문화가 스며 있고, 두브로브니크는 베네치아의 문화가, 헝가리 페치와 죄르는 오스만 투르크족의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도시의 곳곳에서는 잦은 침략과 전쟁 속에 피어난 자유에의 갈망과 번영, 그 속에서 피어난 예술가들의 사랑, 그곳 사람들의 열정을 골목길, 광장, 카페, 교회의 첨탑 등을 만나게 된다.

동유럽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옛것을 없애기보다는 그것을 바탕으로 도시를 개발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 결과 유네스코 선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도시가 수십 개나 될 정도로 문화의 보고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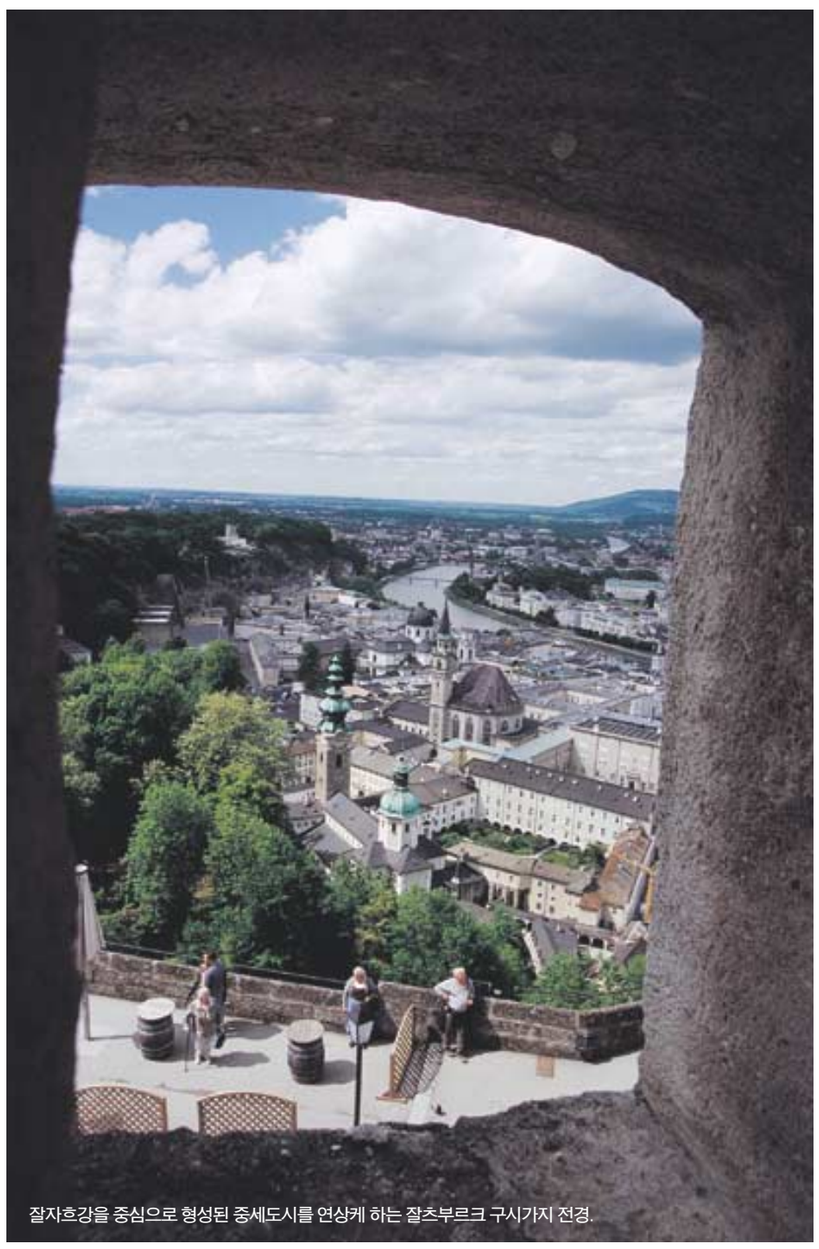
이 책은 동유럽 9개국 22개 도시들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의 자취를 400여 컷의 생생한 사진과 함께 풀어내고 있다. 마치 독자가 직접 그곳에 가 있는 듯한 사진과 예술가들의 열정과 동유럽인의 삶의 향취를 느끼게 하는 저자의 행간을 읽고 있노라면 동유럽 도시들의 유적과 문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다.

부록인 <포인트 가이드>에는 각 도시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와 꼭 둘러보아야 할 명소, 그리고 여행시 필요한 교통편, 음식, 페스티벌 등 자세한 정보가 가득하다.

저자인 이태훈 씨는 "동유럽의 이미지는 한편의 좋은 영화를 감상하는 것처럼 아름다웠다"며 "사람들이 남긴 발자취에서 따스한 인간애와 형이상학적인 예술의 미를 느끼게 해준 곳이 동유럽이다. 예술가들의 올곧은 열정과 사랑은 파란 동유럽의 하늘을 가득 메울 만큼 넓고 깊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현재 <스포츠 서울> 기자로 있다. 이 씨는 2003년까지 70개국을 여행하고 2차 아프리카 트레킹을 했다. 이 씨는 유럽문화의 향기가 듬뿍 담긴 문화여행서 <이태훈의 뷰티풀 유럽 여행>을 집필한 바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 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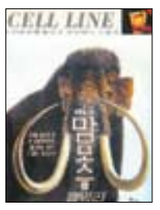
잘자흐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세도시를 연상케 하는 잘츠부르크 구시가지 전경.

함박눈이 피아노의 선율을 타고 소금의 도시 '잘츠부르크'에 내린다. 하얀 눈을 보면 사람들은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처럼 감상에 젖곤 한다. 더군다나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고향인 잘츠부르크에서 그의 음악을 들으며 가로등 빛을 벗삼아 도시를 산책하는 일은 어떠하겠는가?

인구 16만명의 도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는 250년 전에 태어난 모차르트의 흔적을 느끼기 위해 세계 전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차고 넘친다. 또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지이기도 한 잘츠부르크는 중세의 건축물들이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있는 예쁜 마을이다. –'모차르트의 선율이 스며있는 잘츠부르크' 편에서

네티즌 강추

영원한 삶을 향한 인류의 꿈과 상상의 세계



맘모스를 깨워라 김준엽 지음, 호영

소설, 그 가운데서 아직은 우리에게 낯선 장르인 사이언스 스릴러물을 처음 펴내는 것은 모험이자 도전이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에 관련한 소설이라고 해서 그저 그런 홍보성이 아닐까 망설여졌고 누구 책처럼 인신공격성 글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했다.

'창조의 제8일'이라는 첫 장부터 그런 걱정은 필요 없었다. 과학에 대해서 이만큼 자료조사를 하고 쓴 소설이 국내에 있을까?

김봉한 교수라는 북한의 과학자를 알게 된 것도 새로웠고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다보니 경락(봉한관)이 어쩌면 줄기세포가 이동하는 순환계일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다.

생명과학에 관한 쉽지 않지만 재미있는 소설로 추천한다.

이 책은 햅굿의 지각 이동설, 접해보지 못했던 북한의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 119세를 살았던 고구려 태조왕, 맘모스 복제의 일정을 찾아가며 이야기들이 빠른 호흡으로 진행된다.

소설 <맘모스를 깨워라>에서는 현실에서 아직은 이루지 못한 꿈을 상상의 세계 속에서 나마 성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이 담겨 있는 듯하다.

(digital1025,lifelog.blog.naver.com/digital1025)

책속의 밑줄긋기

윤회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우리는 현자들의 기쁨을 위하여, 다이바라타와 바가반의 대화를 기록하였다.

다이바라타: 삶과 죽음의 윤회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 존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바가반께서 기꺼이 하나를 정하셔서 그것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바가반: 최고를 갈망하는 구도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본성인 의식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것(의식)이 모든 행위들과 행위의 결실들이 있게 하는 바탕이다.

다이바라타: 참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숭고한 내적 비전을 오게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입니까?

바가반: 노력하여 모든 생각들을 감각의 대상들로부터 거두어들이면서, 대상을 향하지 않는 탐구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이 자기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알기 위한 수행이다. –<슈리 라마나 기타> 본문 41쪽 중에서, 슈리 라마나 마하리쉬 지음,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

운명을 바꾸려는자, 자기의 습기(習氣)와 과실을 먼저 보라



○…운명을 바꾸는 일이란 대체 어디에서 시작하여 바꿔야 할까요? 바로 자기의 습기(習氣)와 과실에서부터 시작하여야지요.

당신이 이미 자기의 과실을 알고 있다면, 이들 시험에 합격해서 공명을 날리지 못한다거나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따위의 과실을 모두 다 바로잡아 쇄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꼭 덕을 쌓아야 합니다.

과거의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자만심, 언제나 자기의 재능과 지혜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던 일, 가는 곳마다 힘을 과시하면서 이기려고 만 하던 일, 남을 용납 못하던 일, 이제는 그러한 결점들을 다 고쳐야 합니다.

'거칠고 더러운 것을 포용한다'는 것은 마음의 도량을 개척하여 일체를 포용한다는 말입니다. 불보살이 위대한 까닭은 이 마음의 도량이 커서, '마음은 허공을 포용하고 도량은 항하사 세계를 두른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의 도량을 개척해야 합니다. 마음도량을 개척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개조명운심상사성> 74쪽 중에서, 석정공 지음, 삼보제자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포교는 꽃과 벌처럼 상생하는 것입니다"

법문집 '꽃과 벌' 펴낸 헝가리인 청안 스님



"꽃과 벌이 만나면 벌은 꿀을 얻고 꽃은 씨를 맺게 됩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은 꽃과 벌처럼 상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에 이를 때 중생을 구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럽 각지를 돌며 한국 불교의 위대함을 알리고, 헝가리에 한국 사찰을 전통양식으로 건립하고 있는 청안 스님(사진)의 불교 이해와 명상 수행 이야기.

헝가리에서 태어나 숭산 스님의 가르침으로 불교에 귀의한 청안 스님이 지난해 겨울 화계사 대적광전에서 내외국인 불자들을 대상으로 연 '불교의 이해와 명상 수행'에 관한 열두 차례의 법문을 책으로 엮었다.

이 책 <꽃과 벌>은 인생의 길에서 나침반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과 삶에 대한 의문을 품고 진리를 찾으려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전한다.

책의 구성은 1부 상좌불교에서는 무상관(영원한 것은 없다), 무정관(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없다), 무아관('나'라는 것은 없다), 십이연기,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해 소개한다.

2부 대승불교에서는 상호의존, 중도, 불성, 의식의 여덟 단계, 보살도, 반야심경을, 3부 선불교에서는 선의 시작과 전법 전통, 선 수행의 단계, 명상법, 공안에 대해 세밀하게 설명해준다.

이 책에서 청안 스님은 명상 수행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스님은 "명상 수행은 현대 사회에 아주 중요하며, 인간에게 항상 중요한 그 무엇"이라고 말한다. "명상을 통해 인간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스님은 "명상은 철학이나 심리학의 일종이 아니며, 과학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다. 명상은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명상을 하면 진리를 얻을 수 있지만, 명상을 하지 않으면 책을 통해 배울 수도, 법문을 이해할 수도 없다"고 설명한다.

스님은 "수행을 통해 매 순간 명확함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존재를 도울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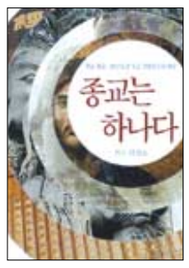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게 해주세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마실 것을 주십시오. 수행을 하면 '나'라는 생각, '나'의 작은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엔 큰 슬픔이 찾아오고, 큰 슬픔에서 큰 사랑이 나옵니다. 이것이 대자대비입니다. 불교의 기본 가르침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명확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꽃과 벌
청안 | 이민영 역 | 김영사 | 1만원

5대 종교에서 찾은 인류 구원의 길



종교는 하나다
함상호 지음
북인 | 1만8000원

유교, 불교, 그리스도교, 도교, 단군교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중요한 교리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터득하여 생과 사의 경계를 벗어나, 영원히 생사에 걸림이 없는 일체지를 이루어 대 자유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종교의 핵심 가르침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 생활에 활용한다면 한 차원 높은 마음의 경지를 터득하여 더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인류의 구원을 모색한다. 인간의 영원성과 완전성을 위주로 한 유교와 마음의 영원성과 완전성을 위주로 한 불교, 그리고 몸의 영원성과 완정성을 위주로 한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다.

내용은 각 종교의 종지(宗旨)를 이루는 최고 이상의 극치로 유교의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와 불교의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 그리스도교의 성부(聖父)·성자(聖子)·성령(聖靈) 삼위(三位), 도교의 천(天)·지(地)·인(人) 삼원(三圓), 단군교의 환인(桓因)·환웅(桓雄)·환검(桓儉) 삼신(三神)을 들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경전의 해설을 통해 그 뜻을 더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 5대 종교의 진리를 비교하면서 각 종교의 특성과 다른 종교와의 유사성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책의 구성은 저자가 깨달은 '참된 나'로 가는 '들어가는 장'과 3개의 장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특히 3장에서는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비교를 몹시 흥미롭게 다룬다. 두 종교의 비교를 통해 각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인 함상호 스님은 유교, 불교, 그리스도교, 도교, 단군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이 책은 그 동안의 관심 내용을 담아 8권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인도 고승이 티베트에 전한 대승불교



까말라씰라의 수습차제연구
중암
불교시대사 | 2만원

인도의 고승 까말라씰라(Kamalasila, 740~795)가 설산에 사는 붉은 얼굴의 티베트인들에게 대승의 아름답고 심오한 길을 바로 여는 주옥같은 법어들을 들려주었다.

이에 감탄한 티베트인들은 1200년 전 쌈예사(bSam yas)의 대가람을 건립해서 무명의 어둠을 벗어나 진리의 삶을 열어가고자 부처님의 말씀을 배워나갔다.

까말라씰라가 티베트인들에게 자상히 들려주었던 법어들을 모은 것이 티베트에서 저술된 모든 수행 지침서들의 의지처가 되는 어머니와도 같은 귀중한 책인 <곰림(sGom rim)>이다.

티베트인들은 까말라씰라가 몸을 바쳐 수호했던 인도불교의 전통을 온전히 보존하고자 어떤 이설과 편견도 한점 섞지 않은채 오늘날까지 그대로 지켜오고 있다.

이것을 번역한 것이 <중관수습차제(中觀修習次第)>다.

이 책은 광대한 대승의 심요(心要)를 빠짐없이 가려 모으고, 수행의 차제를 정연하게 안배해서 대승 보살의 수행의 바른 길을 여법하게 밝혀 놓았다.

특히 까밀라씰라가 당시 티베트에 들어와서 선종의 '돈수' 사상을 전파하던 중국 마하연 화상과 성불의 견해를 놓고 일대 격론을 벌인 쌈예논쟁이 소개된다.

또 까밀라 씰라의 <수습차제>가 쫑까빠의 <람림첸모>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귀중한 자료다.

또한 중국 선종과 인도불교와의 논쟁을 교리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 대승의 진실한 의미를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그 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티베트불교에 대한 선입관과 그릇된 이해를 불식하고, 교학적인 입장에서 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좋은 안내서다.

중암 스님은 1975년 사자산 법흥사로 입산 출가하여, 91년 남인도의 간댄승원 등지에서 티베트불교를 배웠다.

김원우 기자

고려시대 선승 34인의 시모음



한국의 시승-고려
로담 스님 | 고운 | 1만2000원

학교법인 승가학원 감사이자 불교문예 기획위원장인 로담 스님이 시 모음집 <한국의 시승-고려>를 발간했다.

이 시집에는 의천, 계응, 담수, 탄연 등 고려시대 선승 34인의 시를 담았다. 각 시의 앞부분에 시인의 생애를 간단하게 소개해 작품의 이해를 돕고 있다.

대각국사 의천, 무애지국사 계응, 대감국사 탄연 등 고려 전기와 중기 고승들을 비롯 <보한집> <시선> <북한지> <동국여지승람> 등에 시가 실려 있는 18명과 <파한집> <동문선> <동국이상국집> <한국불교전서> <대각국사문집> <진각국사어록> <나옹화상집> <태고화상어록>등에 나오는 16명 고승의 시를 더했다.

불교생명관 기초로 한 인생지침서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불교생명윤리정립연구위원회 편
조계종출판사 | 1만원

이 책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는 현대사회에 조응하는 불교의 생명관, 인간관, 윤리관을 기초로 삶의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불교생명윤리정립연구위원회의 결과물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결론을 정리하지 못한 미진함은 있지만 불교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현대사회의 윤리적인 주요 사안에 대해 불교적 관점과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불교생명윤리' '불교의 연기적 생명관' '불교문헌에 나타난 배아와 태아의 발달과정' '생명조작과 불교생명윤리' '낙태: 임신중절에 대한 불교의 견해' '뇌사, 장기이식, 안락사' '사형제도'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령소개' 등이다.

경전 읽으며 죄 참회합니다



천불 천배 자비도량참법
화남 지음 | 정우서적 | 1만5000원

자비도량참법은 경전을 읽으면서 죄를 참회하는 불교의식을 말한다.

이를 수행하면 죄가 없어지고 복이 생겨난다고 하며, 죽은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여 극락으로 인도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공덕기원의 뜻을 담고 있다.

<천불 천배 자비도량참법>은 운허 용하 스님이 번역한 참법을 현대인들에게 맞도록 윤문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10권에 적절히 안배하여 예참할수 있도록 편집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독송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간추리고 정리한 약본이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산사로 떠나는 여행	정인수, 김천미, 1만2000원, 문예마당
· 절수행입문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6000원, 조계종출판사
· 한 사상과 다이내믹코리아	최동환, 1만8000원, 지혜의나무
· 마음이 단순해지는 선화	김홍근, 1만2000원, 마음산책
· 꿈 미래의 열쇠	현오 스님, 2만원, 대유학당

도서주문 (02)2004-8219

"신수 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 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이름대사전"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음령 오행의 조화.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역학 개인지도 - 수시접수

효 타 암 주지 원 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좋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

방한용 털신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키높이 특수제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두산위브 맞은편으로 이전)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푸근한 겨울 낮, 조계사에서 원성 스님을 만났다. 사진=고영배 기자

interview 영국 유학 마치고 3년만에 돌아온 원성 스님

"깨달음의 말씀 그림과 글로 전하고파"

환경동화 '꽃비' 열흘만에 2만부 판매 인기

"동자승도 불교적 내용도 없는 책에 첫 도전"
유학 중에도 호주 등지서 3차례 전시회 열어
내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출간 예정
내년에도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 초청 줄이어



"동자승도 없고 불교적인 내용도 없는 <꽃비>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3년여 간의 영국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원성 스님이 선보인 환경동화 <꽃비>는 열흘 만에 2만부가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환경의 중요성을 요정과 인간의 갈등을 통해 판타지적으로 그려낸 작품. 요정왕자가 환생한 '코코'가 목신들의 시험을 받고 친구를 구하기 위해 도깨비의 부탁을 들어주는 등 '코코'의 모험을 통해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이 잔잔한 감동과 함께 전해져온다.

원성 스님이 영국에서 귀국한지 한달 남짓. 스님은 3년간의 유학생활 동안 영국 미술국립학교에서 수학하면서 원 없이 그림만 그렸다.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미술국립학교의 교육은 내면에 숨겨진 창의성과 소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었다.

"순수 미술을 전공했어요. 밤 세워 작업하고 그림 정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내 안의 여러 가지 몰랐던 것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유학 동안에도 2004년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2005년 호주 시드니, 2006년 호주 멜버른에서 각각 전시회를 가졌다.

"제 그림이 불교철학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처마 끝 풍경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 불교를 알리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제 그림을 보면서 관람객들은 자유로움과 고요하고 선적인 느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환한 미소 지으시며 나가는 관람객들을 볼 때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맑음 순수함 지혜 마음 닦는 길 등에 대한 지향점이 합일되는 것을 느껴요."

원성 스님이 1년간 꼬박 작업해 그려내는 그림은 70~80여점. "더 많은 이에게 그림을 보는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풍경> 등 책을 쓰게 됐다"는 원성 스님은 "그림은 한 번 걸러져 있는 유리창 밖의 아름다움이라면, 책 속의 언어는 상대방에게 직접 전하는 매개체이기에 좀더 내 안의 여러 생각들을 전할 수 있는데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까지 책을 쓰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자신의 책을 읽고 그림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포교라고 생각한다. 스님은 또한 독자들이 함께 마음 공부하는 도반이자 깨달음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스님은 그분들께 더 좋은 글과 그림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성 스님은 내년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책을 준비 중이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닮아가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그렇게 닮아가도록 만드는 책을 쓰고 싶어요. 세심하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내용이죠. 제 이야기가 50%는 될 겁니다."

책을 펴내는 외에도 2007년 봄 말레이시아 전시회도 있다. 2008년에는 홍콩 전시가 2009년에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초청전시회가 이어진다.

원성 스님은 2~3년 안에 경남 고성 옥천사 보리수동산으로 작업실을 옮길 예정이다. 내년 여름경 30여평 규모의 작업실을 만들면 보리수동산에서 사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겠다는 발원을 했다.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림도 가르치고 제 작업도 하면서 전시회도 열면서 살고 싶습니다. 동자승 아이들과 자연 그리고 부처님 깨달음의 말씀을 제 그림과 글을 통해 전하고자 해요. 매년 한철씩 꼭 선방에 들어가서 마음공부도 할 계획입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영산재는 사찰문화 발전의 중심

"세계 문화유산 등재돼야"

영산재보존회 학술 세미나

"조선시대 선비들과 스님들은 산사에서 격의 없는 만남을 이어갔고 그곳에서 만남을 가지던 당대 식자들에 의해 시 서 화 삼절을 즐기는 고급 문화예술의 장이기도 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의 제4회 학술 세미나에서 김갑기 교수(동국대 국문학과)는 이렇게 주장했다. 산사가 문화공간이 되면서 제영시(題詠詩) 가운데에서 사찰제영시가 한 분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문화공간으로서의 사찰'을 통해 사찰제영시의 세계를 분석한 김갑기 교수는 "사찰제영시를 통해 사찰은 해탈염원의 승무는 물론 바라춤 영산재 등 다양한 불교의식에 따른 각종 무용과 그에 따르는 음악의 시연장이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제4회 학술세미나가 12월 11일 서울 봉원사서 열렸다.

제영시는 '시적 흥취가 그 지역의 경치와 맞아서 그 진경을 그대로 묘사한 시'를 말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사찰제영시'로 분류되는 제영시에는 '금산사' '영은사' 등이 명작으로 전해진다.

12월 11일 서울 봉원사 범음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홍윤식 명예교수(동국대)는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불교의례 영산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돼야한다"며 "내 나이 70대에 들어서 마지막 원은 영산재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흥우 명예교수(동국대 연극과)는 '한국 목련극에 나타난 지옥형상'에서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담긴 목련극은 중국에서는 '목련희'라는 연극의 한 장르로 자리잡았다"며 "우리나라의 목련극은 죽은 자는 죽음과 후세 사이의 중간 세계에 머무는 동안생전의 업보에 상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장 공간보다는 사찰 경내에서 '우란분재'의 의식과 결부되어 이루어졌을 때 '목련극'은 확대 발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짓소리로 전하는 '옹호게' '창불' 두 곡의 선율적 특징을 살핀 '범패 반짓소리 연구'의 발표자 장휘주 박사(서울대 국악과)는 "'옹호게'는 첫 구와 둘째 구는 홋소리로, 세 번째 구는 평염불로, 네 번째 구는 홋소리 짓소리 홋소리로 부르는 것이 특징이고, '창불'은 시작부분의 봉청은 짓소리로 다음부터는 평염불로 쓰는 것이 나타난다"며 "반짓소리라는 것은 선율의 일부만이 짓소리로 전하는 소리라는 것이 입증됐고 한 곡을 두고 홋소리에서 짓소리로의 선율 이동이나 짓소리에서 평염불로의 선율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티베트 불교 의식의 수행적 의미-악 가무 등의 개별적 요소에서 종합 의례까지'를 발표한 최로덴 객원연구원(티베트 불교 고등연구소)은 "티베트 불교의 의례의식에는 깔라짜끄라 입문 관정식과 같은 큰 단위의 밀교 입문 관정 의식이나 티베트의 신년 불교 축제인 '뮌람', 세첸 승원의 춤극은 물론이고, 일상의 수행의식인 7지 작법 공양과 같은 조그만 의식 행위에도 악 가 무가 들어있으며 이 개별 요소들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상징성과 수행적 의미가 확대되어 대중 교화나 승가 교육의 전승 체계로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능화 스님(동방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의 '범패의 전승', 이명복 교수(동국대 법학과)의 '불교와 법 그리고 인간', 이애주 교수(서울대 체육학과)의 '불교와 무용' 이미향 박사(일본 용곡대)의 '한일 불교음악' 등이 발표됐다.

강지연 기자

瑞榮普洱
진년보이·진년오룡·철관음·오룡차
대흥포·화차·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100% 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인진쑥조청
◈ 산야초 오곡조청 한 숟갈에는 한끼 공양의 영양분이 농축 되어 있습니다. 오곡 (쌀, 수수, 조, 검정쌀, 옥수수)과 엿질금(100% 국내산)만을 써서 몸에 이로운 산야초 달인 물과 함께 정성껏 삭혀 만든 전통식 조청입니다.
옛날, 병약한 어느 스님은 오곡조청과 생수만을 드시고 백일 기도정진하여 지병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정진할 때, 여행 다닐 때, 빵·떡 드실 때 속을 편하게 하고 든든한 요기가 되어주는 영양간식!
산야초 오곡조청은 불자님들의 좋은 인연입니다.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위장, 간, 어혈에 좋은 인진쑥조청 1.2kg = 58,000원
산사조청원의 명품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6년근 산도라지로 만든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전화 :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정선 동강의 자랑 長壽청국장
동강 백운산 토종
長壽
청국장분말
청국장환
된장/간장
강원도 정선 동강 백운산 일대 청정 지역에서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 생산한 대두 100%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콩으로 만든 長壽 청국장 분말과 환
▶청국장이 우리몸에 좋은 것은 조상 대대로 각 문헌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 개발하여 논문이나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좋아야 좋은 청국장 분말이나 환을 만들수 있기에 長壽 청국장 분말이나 환은 정선 동강앞 청정지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여 조상님들의 재래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적정온도로 삶아 황토방에서 숙성, 네시틴 균이 죽지 않는 40℃에서 장시간 건조하여 분쇄한 것이 長壽 청국장 분말입니다.
▶분말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암반수를 이용하여 환을 만들어 희석이 잘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량생산이 아닌 소량 생산을 고집하며, 최고의 품질로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을 만들어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정진하는 동강백운산토종이 되겠습니다.
◆입금계좌 : 농 협 315012-51-078352 백승화
주문 및 문의전화 (033)378-4312 010-4634-4311
청국장 분말 1kg 35,000원
청국장 환 500g 25,000원
된 장 1kg 12,000원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조계사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천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봉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봉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반야보원
☎02-522-0122 www.zenparadise.com

과일의 왕 두리안
동안거를 맞이하여
올해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선방 공양하시는 스님께는
가격을 할인 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양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737-0696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강아지무료분양
청삽살개
생후 55일생
잘 키우실 분
016-528-3116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살풀이 모든 전통무용
051)557-6682(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동양최대 천수관음법도량
100억 불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 불교발전에 초석이 되실 후원불자님을 기다립니다
(중원의 최고 명사지)
제왕스님 합장
010-9443-7881

역학 · 전생요법 전생퇴행. 빙의천도
개인지도. 직접상담
02-2265-8023
011-772-4606
서울 지하철 종로5가역
비룡정사 제행스님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제1기 불교 마음 수련생 모집
참 나를 찾아서 떠나는 길에 마음을 찾으면 육신 또한 평안하리라....
일시 : 2550년 양 12월 5일
1. 일주일반 : 10명
2. 일박이일반: 10명
선착순 접수 후 2기 편성
접수 및 문의011-9371-8080
팔공산 묘적암 불교 마음 수련원

역 학 강 좌
명리 · 작명 · 택일 · 기문
둔갑 · 자미두수 (풍수 · 육효)
● 기초반 (무료)
● 중급, 고급반, 야간반 운영
3개월 완성
불광사 032)508-0381
019-9007-9746

법화경 특강
1. 셋째 토요일 오후 2시~3시 30분
2. 동대구역 옆 동대구빌딩 3층
3. 회비 만원 법화경(삼만원)증정
053)952-8711
017-501-8711
불 교 해 동 대 학 원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무료개인지도,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원장 학산 합장
054)383-4569
016-717-1592

황토 삼백초
신비한 기적의 약초
산삼과 동등한 氣발생
● 노폐물 배출 / 청혈작용
● 면역력 강화 신진대사 탁월
▷건강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041)932-3601

사주 명리 확실하게 배우실 분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작명 · 적성 · 기타
주1회 (2시간 30분씩)-6개월 완성
(기초에서 격국 용신 임상까지)
스승을 잘 만나야 대가가 될 수 있다
용산구 동자동 갈월빌딩 주차장 앞 한국명리교육원
02)756-4845

"특효" 혈압 · 당뇨
오래 가다 보면 결국은 합병증이 오는 무서운 병입니다. 소승은 오랜 세월 동안 대체의학의 연구와 경험으로 확실한 희망을 드립니다
◦잘 치료되지 않는 병 상담환영
◦침.구학 역학 개인지도
문의041)577-7210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경 전 · 명리 주역
학인무료강좌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모 십 니 다
불자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 사찰 중개에 관심이 있는 분들 모십니다. 약간의 재력과 덕망이 있으신분 우대함
02)733-0108

도량이 여법하면서 운영이 어려운 사찰 불사 도와 드리면서 수행코자 합니다.
본인은 역학 및 49재, 천도재 각종 불공의식, 서화 등에 능통한 법랍 31년
50세 청정비구입니다
011-854-8107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010-9929-950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세 이전
010-5255-038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469-6625

행 자 (女) 모 십 니 다
나이 제한 없음
▷대구 팔공산
053)981-3181
011-825-3181

사찰운영 맡기실 분
역학 · 침술
▷비구승
010-9386-232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30~50대, 용모단정
011-828-3618

대웅전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강화 전등사
032)937-0125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 라면 ○표를 믿겠죠.
X 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인근사찰
017-206-0113
011-744-1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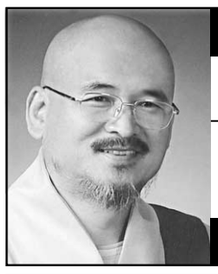
비구니도량에서 함께 수행 기도 하실 비구니 스님 연락 바랍니다
▷부산, 나이 50세 이상
011-832-4912

기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 (50대만)
▷대구 달서구 상인동 임휴암
053)632-4844
053)641-4844

경리보살 구함
(신심있는 PC가능자)
45세 이하
▷경주 왕룡사원
017-531-777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2~62세, 월 100만원
기도 모실때마다 5만원 추가
033)482-3382
강원도 양구 상운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울산시 울주군 산좋고 물좋은 사찰
052)254-6144
011-9660-4241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육임 백법 강의 수강생모집
지금까지 누구도 강의 하지 않았던 백법 강의를
1월부터 공념 학당에서 5개월 과정으로 강의 하고자 합니다
육임에는 아주 귀한 백법이라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숙지하면 누구도 사주 없이도 무슨 이유로 온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비법중에 비법입니다
문의: 02)793-7333 http://www.saju79.com

28숙 특별지도
● 28숙과 풍수와 사주를 바로 쓰게 1:1로 쉽게 전수하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행자(예비스님) 모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회주이신 우학스님 상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011-9852-0075(총무스님)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 2~3일
※교육 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탈종공고

● 사찰명 : 금성사
● 주 지 : 혜광(김덕화)
● 주 소 : 충남 천안시 입장면 호당리 1구 산 45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8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할아버지 · 할머니, 아들 · 딸, 손자 · 손녀
가족이 함께 기도함
전국에서 기도동참하고 있음 지방분 환영
개인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기도함
원하는 소원성취가 잘 향상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전국성지순례 영가천도 · 무병장수 상담환영
각종테이프 준비되어 있슴. 활용하셔요.
대불정능엄신주, 태아영가천도
지장경, 약사여래경, 영가천도
매주 토요일 철야 기도함
단계별 능력에 맞춰 개인별 특별지도
참회 · 정진 · 발원 · 회향
기도와 회양 보시와 불공 방법은 중요함
대불정능엄신주 독송하는 불자님 테이프 꼭 활용하십시오. 초보자에게는 중요함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분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스님 동참환영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맨발등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안성
치매예방

(재)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 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한다

● 종정대행 : 각암대종사 ● 원로의장 : 청산
● 중앙종회의장 : 무원 ● 사정원장 : 지원
● 총무원장 : 능 인 ● 총무부원장 : 허 허

본 종단 종지 종통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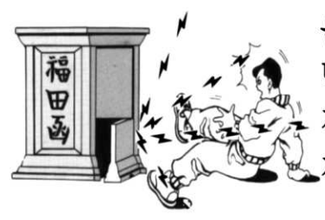
1. 각 사암 등록 및 각 교구 종무원 등록을 원하시는 분
2. 불교무술 자격증 및 단증을 취득 하실 분
3. 승려가 되고자 하시는 분
4. 종단간부 임원직을 맡고자 원하시는 분

- 산하기관 -
(사)세계불교 호국 무술 연합회
(사)호국 불교 단체 협의회
(사)전국 불교 체육인 연합회

◆ 총무원 : 구미시 사곡동 670-1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 문 의 : 054)464-4725, 464-4735
총무원장 010-7302-0077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덛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9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 양양
- 법당 및 요사: 70평
- 부지: 1,800평
- 가액: 2억 8천

- 위치: 강원(동해안지역)
- 법당: 25평
- 요사: 50평
- 부지: 270평
- 가액: 5억 5천

- 위치: 경남
- 법당: 24평
- 요사: 170평
- 부지: 500평
- 가액: 19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사직동 앞뒤 아파트 단지. 주변시장
- 평수 38평, 방 2개, 주방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불상 및 집기일체 포함)

019-291-5558

암자안내

- 위치: 충남 공주시 유어면
- 평수: 건평 50평, 방 4개
- 시설: 삼존불, 지장불, 산신각 집기일체 포함 (1년 이내 장만 새것과 같음)
- 가액: 6천만원

02)2603-2992
011-340-5963

포교당(급)안내

서울 강남 도심지 최상의 위치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중인 포교원

- 위치: 서울시 서초구 소재
- 평수: 50평
- 시설: 삼존불, 신중 산신 최상의 음향시설 시스템 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1-9269-8445

포교당안내

- 위치: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 건물: 5층에 3층
- 평수: 50평
-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3715-6333

사 찰 안 내

- 위치: 천안근교
- 부지: 370평산속
- 법당: 20평 한옥
- 요사: 30평 한옥
- 가액: 2억 7천만원

- 위치: 서울
- 부지: 만평
- 법당: 27평
- 요사: 35평
- 가액: 12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터 안내

- 위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보개산 각연사 밑 마을
- 대지: 500여평, 주택 30평 밭 1,500여평
- 가액: 2억 8000만원 (조절가능)

043)832-6144
010-3356-6144

사 찰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합천 진주에서 30분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 산신각, 용왕당 있음
- 요사3채(총 70평)
- 가액: 2억 2천만원

055)934-1719
011-9571-171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구미시
- 대지 800평
- 법당 24평, 요사채 45평
- 법당, 요사채 집기 일체 심야전기보일러
- 주차장완비
- 가액: 3억 5천만원

010-6554-3076

포교원건물(급)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내
- 대지: 121평
- 총건평: 150평
- 건물: 3층 건물
- 가액: 3억 3000만원

010-5688-4991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
- 대지: 450평
- 법당: 20평
- 요사: 3동
- 가액: 5억 5천

- 위치: 경기
- 대지: 약 2000평
- 법당: 25평(2동)
- 요사: 100평
- 가액: 18억

한국불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경기부근사찰과 교환원함

- 여주 이포대교 부근 파사성 산자락 대지 160평, 조립 24평
- 영월, 신림에서 25분 국도, 넓은 냇가 접 전 840평, 구옥을 황토 등으로 예쁘게 리모델링

위 물건을 적당한 경기인근지역 사찰과 교환 원함 (약 2억 5천만원) 필요한 경우 웃돈 가능

010-3730-5247

포교당(급)안내

- 위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최고의 위치
- 시설: 상가건물2층(단독주택과 같음) 옥불부처님, 신중 산신
- 평수: 60평
- 가액: 보증금 3000만원 시설비 4000만원 (절충가능)

011-395-1434
011-9269-8445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서생 간절곶부근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 평수: 300평, 건물 2동
- 법당 20평 및 요사채 (방7개, 전통한옥)
- 법당(삼존불)및 산신각 완벽하게 조성. 건강악화로 급 안내

017-578-2815

사찰안내

- 위치: 전남 고흥군 동강면
- 대지 591평, 법당 18평
- 요사채 23평 (화장실3, 방3, 큰 거실1)
- 조립식 건물
- 가액 : 1억 5000만원

061)832-2314
010-3635-1867

토굴겸암자안내

- 위치: 전남 해남
- 평수: 대지 352평 건평 32평
- 가액: 5천 5백만원
- 임법당
- 즉시법회가능

061)533-9046
011-631-2954

사 찰 안 내

〈사찰부지〉
- 위치:부산동해비닷가
- 부지: 600평
- 남향 8m도접
- 바다전망 확실
- 가액: 4억 5천

〈사찰〉
- 위치: 부산근교
- 천하절경 낙동강변
- 부지: 700평
- 법당: 30평, 요사 60평
- 기타건물 2동
- 가액: 6억

〈사찰〉
- 바다절경 한눈에 보이는 도심 속의 전망 최고의 사찰
- 부지: 1500평
- 목조법당: 30평
- 요사 및 기타건물 3동 대형
- 가액 : 18억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2천만원에서 20억까지 다양보유
사찰전문 부산연산부동산 직011)560-8522 051)863-6661

도심사찰안내

- 위치: 일산
- 7층에 5층. 114평
- 시설완벽, 위치 A급
- 가액: 4억 3천만원

은행융자 2억 포함, (임대가능)
011-749-4553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포교당 2층
- 평수: 70평(법당 ,방 2칸, 부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신규 종단 등록 가능함
042)531-0026~7

사 찰 안 내

- 위치: 군산시 근처
- 대지: 400평, 3층석탑(문화재)
- 절위로 등산로 있음, 산세와 시내와의 조화
- 가액: 3억 7천짜리 2억 8천까지 급히 양도

종단 타파 개인등기로 명의가 나있으며 유치원과 납골당도 할 수 있는 자리로써 되도록 서울분이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063)451-2410
010-6270-2410

사찰및휴양지터안내

토지의 배경이 된 하동 악양 구자산 계곡

- 위치: 경남 하동군 악양면
- 평수: 2500평
- 가액: 평당 5만원 (상담 후 조절가능)
- 용도: 사찰, 휴양지, 별장 등

055)883-1272
011-588-1272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미원면
- 평수: 1036평
- 대지 200평
- 법당, 대웅전(50평) 산신각, 요사채
- 가액: 5억 (절충가능)

043)284-7763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 내당동 전철역에서 걸어서 3분, 아파트 주택가
- 3층 법당 40평 다다미방
- 주지실, 상담실, 공양간, 화장실
- 삼존불,탱화,신중탱화,산신탱화
-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1,000만원(절충가)

몸만 오시면 됨. 시설완비
010-5710-1732

도심속의예쁜포교당

- 위치: 부산광역시 광안 전철역에서 2분거리
- 대지: 약 100평
- 건평: 1,2층 포함 55평
- 가액: 절충

011-345-5155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1동
- 대지: 100평
- 건물 2층, 1층 요사채 20평, 2층 법당 20평
- 가액: 2억 2천만원

011-580-1407

암자사찰터안내

- 위치: 경남 사천 (계곡있음)
- 평수: 7,350평
- 가액: 1억 2천만원
- 평당 3만원(분할가능)

010-5572-1501

사 찰 안 내

- 위치: 천안 아산역 (고속전철역)10분거리
- 법당(신축건물) 25평
- 요사채 35평
- 산신각 있음

011-9808-7181

사찰안내 (부산근교)

- 경남 양산 120평-2억 3천
- 부산 철마100평-2억 2천
- 경남 김해 2000평-5억 5억
- 부산 120평-3억5천
- 부산 250평-8억
- 부산 280평-10억

011-855-6699(남문)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금호 넓은 저수지앞 도량 갓바위 20분거리
- 법당, 요사채, 공양간 다 갖춰져 있음
- 가액: 7천 9백만원

010-6262-1407

불교용품판매점(만물상)

- 위치: 충남공주지역
- 평수: 약 20평
- 주거가능 방1, 주방, 현 성업중
- 집기 및 불기용품 일체, 건물포함
- 가액: 7500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 같이 수행하며 공부 하실분 , 행자구함

010-8828-3002

포교원안내

- 위치: 강원도 원주 시내
- 평수: 40평(법당, 방2, 공양간)
- 2층건물중 2층(옥상 단독사용)
- 상가아파트지역, 원불 모셔져 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7백만원

011-258-1147

토굴안내

- 위치:부산시 기장군 안광면 (해운대에서 20분거리)
- 대지: 100여평
- 건물: 법당 및 요사채 60평
- 시설: 깨끗하게 꾸며져 있음
- 전세: 1천만원/월 2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594-1526

최고명당절터안내

공들이는 보살님께서 많이 찾으시는 신비의 소나무

- 위치: 경북 군위군 고로댐 상류지역
- 평수: 3,000평
- 가액: 5,000만원 평당 17,000원
- 산세경관 특급, 관리지역 전기, 도로 인접

010-8312-1110

포교당안내

- 위치: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입구
- 평수: 35평
- 법당, 방3, 욕실, 넓은 거실
- 뜸방 갖춰져 있음
- 가액: 전세 5,500만원

017-236-1775

토굴안내

- 위치: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 평수: 92평
- 시설: 방 3, 큰 부엌1 화장실 2, 창고 1
- 정남향

016-671-1568
010-4587-1568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 종 대지: 854평
- 건물 3동, 214평
- 법당 포함 150평 분할가능
- 가액: 4억 5천만원

011-9509-4209

작은포교당(1층)

- 위치: 부산광역시
- 법당: 4평~5평
- 삼존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지장보살) 신중탱화, 산신불, 산신탱화
- 법당비품일체
- 공양간 겸거실 2평, 화장실 1평
- 가액: 전세 400만원 월 15만원
- 전체시설비: 300만원

011-594-1526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불교지도자 의술보시요원 연수프로그램

침술대체 편자요법 서울 부산 강좌

귀의삼보하옵고,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에서 1개월간 진행된 침술대체편자요법의 제1기 강좌가 성원 속에 종료되고 제2기 편자요법 특강을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여 제 2기 편자요법공개강좌를 마련하고 본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배달편자요법은 불자인 문광 이홍재박사가 발명한 획기적인 새로운 의술로 침이나 뜸을 상용하지 않고 작은 편자를 붙여 아무런 통증도 없이 경락을 조절하여 질병을 다스리므로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뛰어나며 누구나 쉽게 배워 사용 할 수 있어 대단히 편리합니다. 산사에서는 도시의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전문인에게 치료받기도 쉽지 않아 아파도 참거나 방치해 고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노 보살님들은 늘 몸 여기 저기 아프기 마련인데 스님이나 법사님 보살님 들이 편자요법을 배우신다면 통증이 전혀 없이 동료 스님은 물론이고 나이 많은 신도들부터 아기들 까지 모든 환자의 고통을 보살펴 주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편자요법을 발명한 문광 이홍재박사가 직접 강의하는 공개강좌와 본 강좌를 서울과 부산에서 아래와 같이 마련하오니 환자시술과 의술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서 울

-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
- 공개강좌 : 2006년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1시~3시
- 본강좌일시 : 2006년 12월 28일 목요일 - 2007년 1월 31일(1개월간)
  - ◎오전반 : 매 오전 10시 - 12시(매주 수, 목, 금 주 3일)
  - ◎오후반 : 매 오후 1시 - 3시(매주 수, 목, 주 2일)
- 수 강 료 : 공개강좌 무료
  1개월 전 과정 : 30만원(편자요법교재, 편자제공)
- 본 강좌 수료자는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 문의전화 : 02)735-3034, 핸드폰 011-9765-6999
- 교 통 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 버스 7016, 1711 경기상고,경복고 앞 하차 횡단보도 건너 청운초등학교 뒷골목 200m 도보 5거리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

부 산

- 장 소 :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3-16 문화빌딩 5층 불교복지보건대학
- 공개강좌 : 2007년 1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 4시
- 본 강좌일시 : 2007년 1월 7일 일요일부터 - 07년 2월 4일 (1개월가 4주 8회) 매 오후 2시 - 5시
- 수 강 료 : 공개강좌 무료
  1개월 전 과정 : 30만원(편자요법교재, 편자제공)
- 본 강좌 수료자는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 문 의 전 화 : 051)633-5633
- 교 통 편 : 전철 1호선 범일역 4번출구 철물상가길, 우신주차빌딩 옆

※ 자가용 주차 가능합니다.

■ 편자요법으로 치료 잘되는 증상 : 감기기침, 콧물, 코피, 전두통, 편두통, 후두통, 비염, 경항통, 어깨결림, 등줄기결림, 견통(오십견), 팔뚝아픔, 손목아픔, 손가락관절통, 담결림, 요통, 환도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발목염좌, 눈 피로, 갑상선염, 심통, 협심증, 고혈압, 당뇨, 소화불량, 숙취, 간장질환, 생리통, 생리불순, 멀미, 모든 부위의 통증, 신경성질환, 스트레스

현대불교신문사 부설 연수원 원장 문광 이홍재 합장

여래 아토피 천연 연고비누

천연생약 **25종의 성분**으로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을 사용치 않는 순수 생약으로만 제작한 **여래아토피 천연연고비누는 각종 특이피부,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두피 가려움증, 비듬, 두피영양부족으로 오는 진행성 탈모증 각종 피부 체질 개선과 피하속 혈행을 촉진시켜 혈액 순환 장애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 사용방법 ▤
1) 전신에 거품이 나도록 1~2회 비누칠 하듯 골고루 발라준다.
2) 부드러운 타올로 적당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을 충분히 제거해 준다.
3)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여래아토피 무보시 체험방 운영 :** 약효의 효능을 확인하시는 기회를 드리고자, 불자님들께 무보시로 약사여래광불의 가피를 체험할 기회를 드립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02)429-5093
011)9166-2575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

오랜 세월 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 15여종의 첨가물을 20년간 발효시킨 강정식품으로 50여 년전 법천 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비장된 비법을 전수 받은것 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할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이 회복되며,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장질환** 모든 위장질환이 회복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장생 할수있는 선약을 구하러 우리나라에 직접 다녀 갔다는 전설의 「不老化精」은 MBC방송에서 절찬리에 방영된 사극 「대장금」의 극중 한상궁이 땅속에서 20년간 묻어둔 「감식초」에서 비방한 비법으로 **진액중의 진액**으로 만든 「不老化精」입니다.

◆ 가격 : **정가 육십만원**(2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 2병)**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1병 30만원)**

농협 705-12-337974 (예금주 : 이준식)

전 화 : (053)257-7032
휴대폰 : 011-1756-9550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51> 예배란 공경과 하심의 뜻

낮춤과 공경하는 마음 우러나면 심신 깨끗해져

'나' 라는 무명조차 사라지면 부처님 세상 드러나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를 삼보(三寶) 사찰이라고 한다.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다 하여 불보(佛寶) 사찰이라 하고, 해인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긴 목판본 '팔만대장경'을 모셨다 하여 법보(法寶)사찰이라 하며, 송광사는 대대로 훌륭한 16국사를 배출했다고 하여 승보(僧寶) 사찰이라 한다.

삼보는 불교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보물로서,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 그 진리에서 나오는 가르침으로서 법 그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을 말하는데 보통 불(佛) 법(法) 승(僧) 삼보라고 한다. 절에서 드리는 예불은 이 삼보를 공경하는 뜻을 드러내고자 두 손 모아 자신을 낮추어 절하는 의식이니 예배라고도 한다. <선가귀감> 51장에서는 예배가 지닌 참뜻을 일러주고 있다.

禮拜者 敬也 伏也, 恭敬眞性 屈伏無明

예배란 공경과 하심의 뜻이 있으니 참성품을 공경하고 하심하여 무명을 없애는 것이다.

부처님이나 조사스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분들이 무명을 끊고 자신의 성품을 보아 참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우리 처지에서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귀의해야 할 곳이며 공손히 받들어서 잘 모셔야 할 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절속에 자신을 낮추는 마음과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야 한다. 자신을 낮추는 마음은 '나'라는 생각으로 시비분별을 일으켰던 마음을 잠재우면 마침내 시비분별의 근원인 미세한 무명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요,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이 담긴 절로써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면 자신의 참성품에 나아갈 수 있다.

옛날 법달(法達) 스님은 일곱 살에 출가해 법화경을 읽고 줄줄 외우면서 다녔다. 하루는 선사의 가르침을 받고자 육조 스님을 찾아와 절을 하는데 자만심 때문에 태도도 불손하고 머리가 땅에 닿지도 않았다. 육조는 이 건방진 모습을 꾸짖어 "가르침을 받고자 절을 하면서도 태도가 불손하구나. 공손히 예를 갖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그대 마음속에는 반드시 '나' 잘났다는 어떤 생각이 있을 것이다. 무슨 공부를 해 오고 있느냐?" 묻자, 법달은 "지금까지 법화경을 삼천 번이나 읽었고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외우고 다닙니다" 라고 답했다. 육조는 "법화경을 천 번 만 번이나 읽고 외워 뜻을 환히 알고 있더라도 그대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와 더불어 법을 이야기 할 만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화경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잘났다는 허물'을 짊어지고 있는 것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나의 게송이나 들어라.

禮本折慢幢 頭奚不至地 有我罪卽生
忘功福無比

절은 본디 아만을 꺾는 것인데 / 어찌하여 머리를 숙이지 않나 /
잘났다는 그 생각이 죄를 만드니 / 나 낮출 때 생겨나는 그 복이 으뜸.

법달은 육조 스님의 가르침에 크게 잘못을 깨달아 참회하며 아만을 떨치고 나서야 법화경의 참뜻을 깨달았다. '나'라는 생각이 떨어져야 시비 분별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니 아만을 꺾고 하심을 하는 데에는 절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절의 종류는 일곱 가지나 된다.

첫 번째 법달 스님처럼 '나 잘났다는 절'이니 공손하지 못한 절이다. 이런 절은 엎드려 절을 해도 불편한 절이 되어 옆에서 보기에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심한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명예를 구하는 절'이니, 교만한 마음을 숨기고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도모하고자 절을 하는 것이다. 요즈음 이름난 명사들처럼 무엇 좀 해보려고 아무 관련도 없는 행사에 일부러 참석하여 절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눈도장을 찍어 뒷날의 이익과 명예를 도모하려는 것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이 공손한 절'이니, 절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이 공손하여 정중하고 깍듯하게 올리는 절이다. 절을 하는 사람과 절을 받는 사람이 즐거우니 곁에서 보기에도 아름다운 절이다.

네 번째는 '지혜로워 맑고 깨끗한 절'이니, 절을 하는 사람이 절 자체가 수행임을 지혜롭게 알고 열심히 절을 하여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닦는 것이다. 절을 하고 난 뒤에는 세상을 보는 안목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제껏 살아왔던 모습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두루 법계에 들어가는 절'이니, 한 번의 절로써 두루 법계에 계시는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이다. 절을 계속 하다보면 절을 하는 중생과 절을 받는 부처님의 마음이 서로 통하여 법계 이치를 통달하게 되는데 이때는 한 분의 부처님께 절을 해도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 올리는 절이 된다.

여섯 번째는 '올바른 통찰로 정성들여 하는 절'이니, 이 절이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 올리는 절임을 깊이 깨닫고 지극정성을 들여 하는 절이다. 절을 통해 중생과 부처의 경계가 사라짐을 보면서 자신의 성품에 있는 부처님께 하는 절이다. 일곱 번째는 '실상 그 자체가 평등한 절이니, 몸과 마음이 맑고 깨끗하여 절하는 사람의 실상이 '텅 빈 충만'이 되어 모든 것이 평등하여 중생이 부처이고 부처가 중생이 되는 절이다.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절로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절이니 절 자체가 부처님이요 깨달음이 된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身口意 淸淨則 出世

몸과 입과 뜻이 맑고 깨끗하면 이 세상에 부처님이 나투신다.

절이란 자신을 낮추는 마음과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이 어우러져야 한다. 자신을 낮추어야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이 우러나고,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야 몸과 마음이 맑고 깨끗해진다.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고, '나'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나를 만들어내는 무명도 없어진다. 무명조차 사라지면 참성품이 드러나니 이 자리가 바로 부처님 세상이다. 곧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성껏 드리는 절 한 번에 우리도 바로 그 자리에서 '텅 빈 충만'이 되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lust.org)

아름다운 베품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안심(安心)

달마 스님과 제자 혜가 스님간에 오간 안심법문(安心法門)을 아십니까? 어느 날 혜가 스님이 달마 스님에게 "마음의 평화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죠. 달마 스님은 "그대의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라. 마음의 평화를 주리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혜가 스님은 이렇게 되묻지요. "마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달마 스님은 "찾을 수 있다면 어찌 그것이 그대의 마음이겠는가? 나는 벌써 그대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 끝에 혜가 스님이 크게 깨닫습니다.

안심은 마음을 한 곳에 안주시켜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크게 깨닫거나 마음을 꿰뚫어 보아서 절대의 경지에 이른 것을 표현할 때도 씁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안심은 근심 걱정 없이 마음을 편안히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안심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어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경지'를 말한 것에서 비롯된 불교용어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미타부처님께 귀의하여 극락왕생의 신앙을 확립하는 일'이라고 뜻을 풀어냅니다.

달마 스님은 "안심은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이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안심은 마음이 벽과 같아지는 것이며 이때 비로소 도에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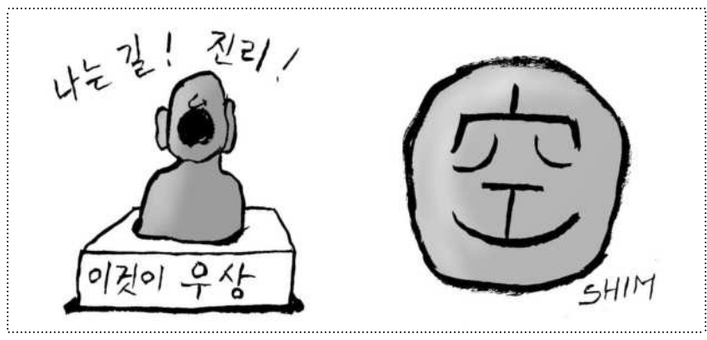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26)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72강 왜 불교인가

無實無虛, 삶의 역설적 기술



<금강경>은 50회의 횡설수설에도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또 한편 절반의 본문 강좌 곳곳에 <금강경>은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에, 불교는 문자와 경전 밖의 불교를 말하지만, 또 한편 충분히 드러내기에, "사구게 하나를 수지독송하라"고 권한다. 이 모순은 문자보다 위대한, 문자를 잊게 한 바로 '그 삶'이 시킨 일이기 때문이다. 그 뜻을 14장이 요약하고 있다. "수보리야, 여래가 얻는 법, 이 법은 무실무허(無實無虛)하다."

무실, 문자는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

무실(無實)이 무엇인가. 불교는 경전이나 강의에 있지 않다. 문자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삶을 위해서,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주셔야 한다. 문자가 삶과 접맥되지 못하고 겉돌 때는 차라리 낫다. 문자가 삶을 위한 충실한 노복 혹은 조언자의 역할을 벗어나 주인 행세를 하게 될 때, 생기는 비극은 차라리 문자 없는 세상의 불편함보다 못할 때가 많다.

이 폐해는 너무 많이 듣고 보아 왔다. <장미의 이름>에는 '웃음'이라는 불순한 바이러스가 담긴 책의 유포를 막기 위해 살인을 불사하는 근엄한 수도사가 나온다. 조선의 유교, 그 가장 큰 패착은 옛 경전에 담긴 문자를 절대적 권위로 여겨, 현실의 삶의 요구와 변화를 돌아보지 않은데 있다.

기독교와 유교, 이슬람은 자신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말한다. 자부심이 강하고 넘쳐 '노 아더 네임(no other name), 즉 또 다른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지 않으려 한다. 과거의 수많은 종교 전쟁들이 그렇게 생겼고, 지금 운위되는 문명간 충돌도 그 반복과 연장선에 있다. 이럴 때면 차라리 '종교가 없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 물론, 기독교와 유교 안에도 '말씀이 도구이며, 그런 점에서 상대적일 뿐'이라는 겸손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이들은 곧 이단으로 단죄되어 박해를 받거나 순교했다.

불교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성찰했고, '자신의 전통 내부에' 이 독극물에 대한 해독장치를 해 놓았다. 그 유연성이 불교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내가 길이요, 진리이다"라고 말하는 종교들은 넘쳤으되, "얘야, 나는 다만 강을 건너는 뗏목일 뿐, 나를 우상으로 경배하지 마라"라고 권한 종교는 내가 아는 한 불교가 유일하다. 불교는 인간의 삶을 위해 길을 밝혀 주었으되, 자신이 금박에 봉인되어 신전에 모셔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수보리야, 내가 말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한다."

삶을 위한 경전

무실(無實)이 어디 경전만에 해당되겠는가. 우리가 '전통'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 모두 기실은 '이름'에 불과하다. 이름 밖의 소식과 만날 때, 이름이 빛을 잃으면서, 동시에 완성되는 법이니, 이름을 지우지 못한 진리는 아직 진리가 아니다.

육조에서 화두선의 발전까지가 늦추잡아 500년, 그로부터 1,000년이 다시 지났다. 갓 쓰고 도포입다가 현대문명의 네온사인 속을 살고, 좁은 반도에서 글로벌한 지구로 영역이 넓혀졌으며, 한문에서 영어로 쓰는 언어까지 바뀌는 21세기, 우리네 삶은 다른 불교를 요청하고 있다. 거기 부응해서 다양한 실험과 접맥, 발굴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럴 것이다.

불교는 21세기 정신문명을 리드할 중심에 있다. 틀림없다. 그러나 이전의 전통 그대로, 그 권위와 자산을 곳간에 두고 있으면 자연 그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사람이 도를 넓히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 공자의 말이다. "티벳에는 승려들만큼의 불교가 있다"는 금언도 불교가 책이 아니라, 사람에 매여 있고, 전통의 묵수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과 요청에 맞는 재혁신 여부에 달려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자면, 과감한 시도들을 해야 한다. 스님들, 불교의 프론티어들에게 내가 늘 요청하는 것이 있다. "전통이라는 '이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전통의 '실질'은 사람에게서 완성되며, 불교는 삶에 구체적으로 접맥되는 곳에서 활발발(活潑潑), 살아있습니다. 그 지점을 떠난 곳은 모두 이름이고, 허상입니다. 선이 바로 그 일점에 쬘저하고자 하는 혁신 아니었습니까. 선의 이름으로, 바로 그 정신에 입각하여 선의 전통을 묵수하려는 악착들을 떨쳐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를 만났을 때 부처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라는 조사들의 뜻입니다."

선도 화두도 이름이다. "이름 밖에서 어떻게 선을 만나고, 화두를 들 것인가." 그것이 늘 나의 화두였고, 지금도 그렇다.

이 강좌를 붙쏘시개로

여러분들도 그래 주시기 바란다. 각자의 삶이 화두 아닌가. 화두는 삶이고, 불교는 조언이다. 각자의 인생이 다르다면, 조언은 다를 수밖에 없다. 불교는 다만 '원론적 조언'을 할 뿐이다. 그것은 우리가 각자 만나는 삶의 곤혹과 곤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태도'로 이들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를 가르친다. 핵심은 '상(相)의 성찰'이다. 사물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과 접근을 관찰, 조견(照見)할 때, 내 자아가 세상을 분열시키고, 내 이해관계가 세상을 공정하게 다루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그것 하나이다.

불교는 상(相)의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풍부한 노하우를 제공한다. 그것이 불교의 전부이다. 이 이해는 다른 정보와는 달리 존재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에, 특별히 '깨달음'이라고 부른다.

변화는 즉각적이고 심원하게 다가온다. 우선, 자기를 옭죄고 있는 짐이 덜어지고, 막혀있는 사람 사이, 일의 진척에 돌파구가 생긴다. 상(相)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법이 다르다. "내가 문제였다, 미안하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 지식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으니... 완전하지는 않지만, 평심하게 생각해보니 이것이 아무래도 좀 나은 길이지 않겠느냐." 아, 그러고 보니 누구보다 지금 청와대와 386세대의 정치가 불교를 배웠어야했다.

자신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때, 일은 좀 더 수월하게 풀릴 수 있고,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는 겸손이 사람 사이의 갈등을 푸는 열쇠가 된다. 틀림없다. 사람들은 그런 태도에 더 큰 신뢰를 두고, 신뢰가 있는 곳에 비경제적인 신비와 기적의 교환이 때로 일어난다. 계산에 밝아야 손해를 보지 않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판단은 특히 생소한 경우, 계산 밖의 비합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수가 많다. 어떤 사안에 얽힌 수많은 사항들, 문제들을 내가 다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거래에 있어 지식뿐만 아니라 교양과 태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내 경우, 내가 잘 모르는 일이라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몇 마디 듣지 않고 수긍하고, 전폭적으로 밀어준다. 사안을 직접 스터디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실패율이 훨씬 적었다. 아니, 거의 실패한 적이 없다. 실패하더라도, 상황 때문에 일어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요컨대, 상(相)을 관찰하고, 상을 덜어내는 일이, 사람들 사이를 좋게 하고, 일을 화엄으로 승화시키는 지혜요 노하우임을 절감한다. 이것은 역설이 아닌가. 너를 비우라는 손해(?)를 강요하는 가르침이 자신과 남을 동시에 요익되게 하는 이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온다는 것이, 거의 기적에 아니 가까운가. 그러니 무허(無虛), 불교의 가르침은 '쓸데없거나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최종적으로 배워야할 삶의 기술(ars vitae), 그 중심이며 그것의 이익은 그야말로,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보시받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기술이다." 누가 불교를 비현실적이라 코웃음치는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상을 사는 이유 (상)

이권상 (충북 영동군 영동읍)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이 망설였다. 혹자는 이 글을 읽고 너무나 행복한 넋두리를 한다고 비아냥거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3년 불교와 인연을 맺은 이후 너무나 많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기 때문에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피력을 소개하고 싶어 이글을 쓴다.

1993년 가을 동료 여직원으로부터 불교교양대학이 있으니 한 번 나가볼 의향이 없느냐는 권유가 있기까지 난 불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아니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 따라 교회에 몇 번 다녀 본 적은 있었지만 종교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도, 기독교에 관심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단순히 친구따라 놀러 간 것 이외의 의미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와 외가에서는 불교와 인연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런 환경은 내가 불교에 관심을 갖게 한 배경이 되었다.

어찌됐건 이렇게 인연이 되어 부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교양대학에 나가려면 불교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금강경> <천수경> 등 기초서적을 읽으며 1년을 끌다가 1995년 중앙불교대학(대전시 동구 자양동 소재)에 입학하여 그 다음해에 졸업을 했다. 이렇게 부처님과 맺은 인연은 다시 한 번 인생을 열심히 살아 보라는 부처님의 말씀이자 내 자신과의 약속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

나는 지체장애인이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은 후유증의 결과다. 다른 사람들처럼 가난했고 아버님을 일찍 여읜 탓으로 어려서부터 남다른 고통을 겪고 성장했다. 그런 가운데서 역경을 딛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직장도 있고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피력일 것이다. 1994년 4월 고혈압으로 쓰러졌는데 다행히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회복되었다. 이것도 부처님의 가피력임을 알고 있다.

비록 가족하고는 직장관계로 떨어져 생활하고 있지만 분명 내 생활에는 활기가 넘치고 있으며 매사 일을 함에 있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오늘이 있게 해준 부처님께 진심으로 참회하며 감사드린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지난 세월은 참으로 참담했다. 인간으로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까지, 아니 벼랑에서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 천신만고 끝에 올라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다. 물론 그 원인은 전적으로 내 자신에게 있었지만, 그 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장애의 고통 벗어나려 술 입에 대기 시작

알콜 중독으로 이어지며 가족과 멀어져

점점 업무 의욕 떨어지고 삶을 비관하게 돼

알콜중독! 어쩌면 이 단어가 내 성장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온 단어, 아니면 숙명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닌가 싶다. 내 불행은 그렇게 시작됐다.

술을 처음으로 먹어본 것이 초등학교 6학년시절 아버지 기일날이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할 때 장남은 한잔해야 한다고 해서 막걸리를 반잔 마셨고 트림을 할 때마다 이상한 역겨움 때문에 그 이튿날까지 고생을 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술을 먹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다.

사춘기 시절을 맞아 이성에 눈뜨기 시작했을 때 지체장애는 한마디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수도 없이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고, 수없이 많은 밤을 그런 고민으로 보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선택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당장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어리석게도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이 알콜중독으로 이어지면서 모든 것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놓으리라고는 꿈엔들 생각하지 못했다.

허약한 체질 때문에 많은 술을 마시지도 못했으며 조금만 먹어도 토하기 일쑤였다. 토하면서 괴로움과 외로움을 토해낸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남들보다 더한 가난 그리고 수줍음이 많던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 묻어두며 생활했다. 그리고 술로 마음을 달래는 것이 유일한 위로 방법이 되었다.

29세 된 해 중매로 어렵사리 결혼을 했다. 사실 장애인이 결혼을, 그것도 아주 정상적인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기까지 당사자인 내가 겪었던 아픔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보통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고통이다.



그림 · 문병성

중매결혼이기에 정들이며 사는 것이 과제였고, 서로를 아는 노력이 필요했다. 우리 둘은 노력했고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얻고 얼핏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한 것처럼 살았다. 사글세 150만원짜리 방을 얻어 생활했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 처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노력도 많이 한 것 같다.

그러나 어느 일면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과 그리고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술 인생은 계속 이어졌다. 27년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술로 인하여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부부지간의 갈등은 깊어만 가고 자식들과의 정도 멀어지고 인간으로서 버틸 수 있는 의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아상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에만 매달렸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다.

서서히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 1994년 봄부터였다. 막중한 업무도 업무지만 상사와의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술로 인하여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 나는 그때서야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알았고, 잘못했으면 죽음이 왔으리라는 생각을 하며 오열을 했다. 당시 내 나이 마흔 셋이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가족들의 냉담함이었다. 하루하루를 술로 사는 남편과 아버지를 어떤 가족이 곱게 봐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런 자책 보다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다.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독한 소주보다 순한 술을 마셨지만 그래도 술을 먹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혈압약은 혈압약대로 먹으면서 술을 마셨던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직장업무가 잘 될 리 만무였다. 점점 업무의욕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급기야 사표를 쓸 일보 직전까지 갔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직장을 그만두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체 장애인이 해야 할 일은 그리 많지도 쉽지도 않았다. 너무도 비참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나라는 존재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할인 봉사 기간이 2006년 말로 끝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200만원에 공급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대행스님

오직 팔랑개비대 하나만 쥐고 다닐 수 있어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또 한자리를 하게 됐군요. 여러분이 마음먹는 대로 같이 있다면 같이 있는 거고, 혼자 있다면 혼자 있는 겁니다. 그 뜻이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그렇게 묘법이랍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연화장불(蓮華藏佛)' 이러면 아주 최고의 한울을 꿰들어서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주인이라는 뜻도 되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은하계에 또 더 큰 은하계도 있고 또 더 큰 은하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소속된 은하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은하계 속에 있는 우리 생명력들은 사분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질적한 데서 사는 것이나 물에서 사는 것이나 한 부분으로 친다면, 또 나무들 풀들을 한 부분으로 치고, 날아다니는 것 또 땅을 딛고 다니는 것, 이렇게 네 부류로 치는 이 속에서 알로 낳는 것, 태로 낳는 것, 질적한 데서 낳는 것, 화(化)해서 낳는 네 가지가 소속돼 있습니다.

그 소속되어 있는 생명이 한데 합쳐진 마음, 즉 공존하는 그 주장자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름해서 사왕천(四王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이름을 지어서 이름이지, 총 합해서 지도를 하는 자가 사왕천이라고 이름해서 붙인 겁니다. 이름해서 붙였다고 그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오갈 수 있고 광력이나, 전력, 자력, 여러 가지 힘이 서로서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왕천에서도 벗어난다면 원심력을 얻는다, 지난번에도 이런 얘길 했을 겁니다. 원심력을 얻는다면 그 원심력은 어떡해서 원심력이 될까? 그리고 사무사유(四無四有)라는 그 뜻은 뭐냐? 죽은 사람들의 마음, 산 사람들의 마음이 둘이 아닌 그런 뜻을 가지고 사무사유 한데 합쳐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한마음의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無)의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천차만별로 돼 있는 영령들, 그 처절한 영령의 참혹한 일들, 이름해서 부를 수 없는 일들, 또 산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참혹하고 처절한 영령들, 즉 산 사람한테 침입해서 악이면 악, 선이면 선 그렇게 침입을 해서 인연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그래서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한다는 뜻이 거기에 있고, 팔자 운명이라는 것도 거기에서 이름이 속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팔자 속 운명 속 업보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야만이 사왕천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왕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얻는 것은 악이나 선이나 다 놓는 것뿐인데 여러분은 '나는 놓을 수 없다'고,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어려우냐?'고 나는 그러죠. 그게 아주 아리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렵다고들 그러지만 나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유스럽습니다. 지금도 자유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제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가고 오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만나고, 스스로 교차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여러분 자유자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끄달리지 말고 모든 것이 바로 내 근본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전부 여러분의 한마음이 근본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이, 즉 말하자면 오고 감이 없는 빛보다 더 빠른 누진통(漏盡通)으로 하여금 천체무전통신기처럼 광력이나 전력에 종합된 그 에너지는 바로 저 은하계로 통하게 됩니다. 은하계의 별들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직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의 뜻을, 무(無)의 세계의 한마음의 뜻을 알려면 내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는 상봉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안테나는 근본의 전체 통신을 할 수 있고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죠. 즉 말하자면 심안이 밝아진다는 뜻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고 감도 없는 육신통, 이것이 천백(千百)으로 화(化)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이 의심치를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를 자기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구, 내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믿는 사람이 이거를 해서 안 되는데….' 꼭 후회가 들어가고 반성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데는 정말 나를 깨닫는 그 길을 택하려면 후회도 반성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없는 거다 하고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내 마음 근본 주인공 속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즉 직속으로 같이 상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두 각각 논다면 이거는 정말이지 여러분은 자기 몸 하나 추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거를 했든지 뒤돌아보지 마세요. 잘못됐어도 그것은 잘못되게 한 장본인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 되놓는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정돈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냥 참 행이요, 그것이 참선이요, 행선(行禪)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왜 잘 써야 하느냐? 여러분이 한번 잘못 쓰면 이 몸뚱이 속에 업식으로 뭉쳐집니다. 저지른 대로 업식이 돼서 내 몸뚱이에 뭉쳐 있으니 거기에 속지 말고, 잘못되는 것도 업식으로 뭉쳐져 있는 인과로 인해서 나오는 거니까 모든 걸 놔라, 맡겨 놔라.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녹일 수밖엔 없다. 거기서 해결할 수밖에는 없거든. 어떤 때 보면 여러분이 재밌게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있는데 시커먼 게 거기 죽들 앉았어도 여러분은 눈이 멀어서 못 봐. 잠시 잠깐 웃고 즐길 거라면 차라리 그게 뭡니까? 그게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의 그 업식으로 인해서, 업식을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바깥에서 오는 거,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잘나잘나 닥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우리가 '구정토(九淨土)'라고 말을 합니다.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에 소속되어 있는 구정토다 이 말이죠. 지금 은하계가 있으면 은하계의 별들을 보호하고 있는 태양계가 있습니다. 다 같이 그 태양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사생(四生)입니다. 태양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자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어도 안 되고 바람이 없어도 안 됩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도 생명이 있고 흙도 생명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도 안 되고 흙이 없어도 안 되는 이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흙과 물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태양과 바람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죠. 태양이 위로는 근본 별성을 보호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들을 자라게끔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정토는 어떻게 해서 구정토라고 그러냐 하면 은하계에 있는 혹성들만 해도 이거는 삼심(三心)에, 삼심! 이렇게 하는 건 개별적인 것이 되지만, '삼세심(三世心)' 하는 것은 구정토가 다 들어갑니다. 혹성이 다 포함되죠. 혹성 외에 있는 것은 구정토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 그 구정토가 소속돼 있는 건 은하계에 소속돼 있는 거죠. 그건 왜냐? 힘은 각자 강하지만 우리 생명체들은 전부 별성에 있으니깐 말입니다. 그래서 별이 떨어진다, 별이 떨어지면 이승에서 사람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잘못된 마음들이 한데 모인다면, 지금도 한데 모여서 이렇게 덩어리가 져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별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여기 세상에서 살면서 깡패나 강도나 도둑, 마적 이런 거와 똑같은 얘깁니다. 또 이걸 비교해서 한번 말하죠. 여간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공직에 있어서 사람을 너무 못살게 자꾸 일을 저지르니까 추방을 시켜서 내쫓았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앙심을 먹고서는 나쁜 놈들을 전부 모으는 거야. 오년이 되던 십년이 되던 모아가지고서는 단결이 돼가지고는 사람을 해치는 거야.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마음들도 악이 있고 선이 있다면 악이 그렇게 선을 해치기도 해. 악과 선을 다 놓은 상태에는 하나의 주장자가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있는데, 그 주장자 밑에서 악과 선을 다루고 일하는 그 주모자를 해치게 되면 혼란이 오거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령들의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면 소소한 우리 백성들이 손해를 보는가 하면, 정말 이 별성에서 싸움박질이 난다면 이거는 무슨 조그마한 하나만 잘못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피해가 있단 말이야. 마음세계에서 싸움이 나면 어떤 때는 파산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라죽기도 하고, 굶어죽기도 하고, 화산이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물로 인해서 죽기도 하는 변화가 생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혼란을 정돈하고 잘 이끌어 나가려면 우리 한국에서도 대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으로써 경지를 못했어.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남한테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어.

어느 날은 말을 타고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스님 한 분이 절 지을 돈, 시줏돈을 짊어지고는 끙끙하고 올라가는데 도둑들이 들이덤벼서는 스님을 죽이고 돈을 뺏으려고 하니까, 그걸 물리치고 스님도 살리고 돈도 빼앗아서 그 스님에게 다시 주었단 말이야. 그러고는 후미진 데 혼자 다니시지 말라며 잘 보좌해서 올려 보내곤 말을 타고 다시 내려왔단 말이야. 그래 그 스님은 무사히 절에 도착해서는 시줏돈으로 절을 잘 지었지. 자기 생전에는 그거 한 가지밖엔 잘한 게 없어, 자기가 나중에 늙어가면서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모든 게 자기한테 조건이 불리해. 그런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이 어른이 죽었단 말이야.

죽었는데, 독사지옥으로 떨어졌어. 독사지옥으로 떨어졌어도 그냥이나 놔뒀으면 좋겠는데 그때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산돼지들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하는 소리, 이 소릴 잘 들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죽였다고 해서 원망을 안 했다면,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 그렇고, 자기가 지은 인연이라 그렇고,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렸으면 산돼지로도 되지 않았을 텐데, 이건 앙심을 먹곤 잔뜩 이를 가니까 산돼지밖에 될 수가 없거든.

한쪽은 산돼지가 됐고 한쪽은 독사지옥으로 떨어졌는데 아, 독사지옥으로 떨어져서 오백년을 지내도 독사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거든. 그냥 그 소굴 속으로 들어가면 그거 다 업식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촉각이나 시각으로나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심안의 눈이 있어야 보지. 그러니 이게 독사뱀이 둘이 사랑을 하는지 사람이 사랑을 하는지 몰라. 자기 모습이 흉악한지 자기한테 독이 있는지 그것도 몰라. 그러고선 그 속에서 또 낳게 되고, 죽으면 또 뱀이 되고, 잡아먹히고, 또 쫓기고 밟혀죽고 찢겨죽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자식이 찢겨죽게 되면 또 애미나 애비가 그냥 독을 품고선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자식은 죽고 이렇게 애를 말리면서 살기를 오백년을 살았다 이거야.

오백년을 살다보니까 하루는 어느 결에 새끼들을 오물조물 낳아놓고는 다복하게 음식을 먹는데 웬걸, 산돼지들이 약초 뿌리를 패먹느라고 그 땅을 막 파헤치는 동안에 뱀 소굴이 모두 벌겨졌단 말이야. 그게 원수로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를 갈면서 너 잘 만났다 이럭하고선 전부 죽였단 말이야. 전부 죽고 나서 독사, 즉 남편이 말이야, 자식, 부인 다 죽이고 자기도 죽어서 애처롭게 떠억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기가 막혀! 영이 돼서 보니까 말야.

살 길이 없나 하고 휘적휘적 보다가 이제는 살모사 굴로 들어갔다고. 그게 또 우연히가 아니야. 자기가 한 것대로 길을 받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이 안에서 다 업식으로 만나서 업보로 인과로 됐으니까 자기를 끌고 간다는 게 나쁜 데로만 끌고 가는 거지. 그래 거기에서 살모사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장가를 들었단 말이야. 장가를 들었는데, 살모사는 새끼를 낳으면 애비는 능구렁이가 되고, 살모사 새끼들은 애미를 잡아먹어야 구렁이로서의 모습을 바꾼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이 내 말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고것만 잘 들어요, 인과에 대해서.

그래서 살모사 속에 들어가서는 떠억 장가를 들어서 자식들을 낳아놓고 보니 아주 재롱도 잘 부리고 귀엽고 좋거든. 그런데 어느 날 오몰쪼몰한 자기 새끼들이 제 어미를 잡아먹는단 말야. 먹고 자라. 이 노릇을 어떡합니까? 자기는 그런 걸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는 거야. 그래 가만히 보니 그 애미가 이 목줄기의 독을 팍 없애면서, 요즘으로 치면 그게 마취나 한가지지. 그 독을 딱 빼버리고 쫙 드러누워 있으니까 아 그냥 새끼들이 그저 너도나도 뜯어먹고는 또 자라요. 그렇게 뜯어먹는 그 광경이라니! 뼈다귀만 남겨놓고 다 뜯어먹고는 뼈다귀는 뼈다귀대로 개미 떼들이 또 와서 뜯어먹고 가져가는 그 광경! 그거를 다 보고 난 뒤에야 이제 그게 능구렁이가 된대요.

그걸 다 보고 난 남편은 너무 허무해. 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슬슬 나왔어요. 나와서 어느 풀섶에 처억 기대서 강을 내려다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소리를 그 스님이 들었어요. 오백년이 지나고 벌써 십만년이 지났다는 얘기야. 십만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뱀 생활을 한 거야. 그러니깐 그 소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지. 이거 거짓말로 알아들어서는 안 돼요. 진짜 지금도 그래요. 뱀뿐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쥐새끼로 들어갔다면 쥐새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은 아주 쉬울 것 같지만 쥐새끼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스님이 도솔천(兜率天)에서 열반을 하시고 도를 통하시고서 저 도솔천의 연화장불(蓮華藏佛)이 돼 가지곤 터억 보니까 아, 그 뱀에 연관이 돼 있거든. 우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때 살려준 그 고마움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 보니깐 아하! 이거 그때에 인연이 이제서야 참회를 하고 허무감을 느끼고 생에 대해서 후회를 하니 참….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제 들린 거지. 그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얼른 들렸을 텐데 그전엔 아주 좋기만 하고 그게 사는 걸로만 알았으니까 뉘우치지 않는데 스님한테 들릴 리가 있나요. 그래서 그 소릴 듣고 옥황상제한테 한 잘나에 연락을 해서 참, 그 인연을 제도하러 내려갔단 말이야.

그건 그렇고, 이 구렁이가 앉아서 울고 있는데 말이야, 훈련대장으로 있을 때에 그 밑에서 사람을 끌어오고 죽이고 재산 뺏고 그러던 그것이 두

☞22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무(無)의 세계의 한마음의 뜻을 알려면
내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는 상봉할 수 없어요!

그냥 묵묵히 일체를 나와 같이 보는 마음이어야

☞21면에서 계속

꺼비가 돼가지고선 눈물을 흘리면서 자꾸 뱀 앞에 와서 약을 올리는 거야. 그런데 이 뱀은 그 사연을 몰라. 두꺼비가 계속 뱀을 놀리고 있는데 어느 스님이 터덜터덜 오시거든. 오시니까 거기서 터억 소리가 나는 거라, 이 뱀이 그 소리를 들어, 인제. 두꺼비도 듣고 뱀도 들어.

"너희 둘 잘 만났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만난 것도 과거로부터의 인연이니라. 너희들은 악행을 너무 저질러서 만남도 이러한 것이니라. 저 두꺼비도 본심은 착한데 너의 말을 듣고 일을 저질렀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니까 네 놈이 더 잘못했어. 너는 나를 한 번 살려준 것밖에는 선행한 게 없어.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이 두꺼비…." 그래 그런 설법을 쭈욱 했어. 그러니까 그만 뱀이 우는 거라. 울면서 두꺼비한테 하는 소리야. "만약에 내가 너를 잡아먹으면 내 몸은 그냥 버리고 나는 빠져나갈 수 있지만, 너는 내 몸에 의해서 몸이 두꺼비로 다 화(化)하게 되니 너는 두꺼비를 또 벗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러지 말라." 하니까, 그 스님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을 했지, 뱀더러.

"네가 저지른 거니까 빨리 두꺼비를 삼켜라. 그러면 내가 인도를 할 테니 요 들판만 내려가면 암자가 있는데 거기 큰 솥 걸어놓은 데 그 아궁이에 오늘 밤에 들어가 있으면 내일 아침에는 거기다가 불을 지필 테니 절대로 뜨겁단 말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몽땅 타 없애라. 던져라. 네 몸뚱이를 하나 던지면 두꺼비도 살고 너도 사느니라. 그래서 인도환생을 하되 그때는 인간으로 태어나 나쁘게 살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라. 십만 년 만에 인간으로 도로 갖다놨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하기 달렸다. 나는 그 은혜로 인해서 절을 짓고 내 목숨이 살고, 내 목숨이 살았기에 도를 이루었고, 도를 이루었기에 네 울음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러니 그렇게 알고 몸을 던지는 것이 네가 빠져나갈 길이니라." 그러거든.

그래서 뱀은 두꺼비를 냉큼 집어 삼키고서는 스님을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서는 다른 사람 몰래 아궁이 속으로 들어갔지.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서 눈을 꿈벅꿈벅거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몸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단 말이야. 두꺼비는 독이 있어서 먹으면 그냥 죽어서 그게 뼈 마디마디마다, 즉 말하자면 썩는 대로 두꺼비가 돼요. 그 독이 퍼지니깐 얼마나 아픈지 비꼬곤 그냥 있어도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 어떤 스님이 와서 불을 지피거든. 불을 지피니 얼마나 죽겠느냔 말이야. 그러나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인도환생을 못 한다는 말에 그냥 꾹 참고 그 고비를 넘겨서 인도환생을 했대요. 그 뒤는 뭐 또 자기 할 탓이지만 말이야, 도로 갖다 놨으니.

그래서 우리의 이 몸속이라는 자체가, '천상 인간도 벗어나야 된다.' 하는 소리는 뭐냐 하면 사왕천(四王天)의 천상 인간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벗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선이라고 해서 선은 짓되 악은 놔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선으로서 선을 짓게 되면 선으로 가다가 악을 또 지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미(迷)해질 수가 있고 길지가 못해. 또 한 점은 선과 악은 다를 수가 없어. 또 한 점은 영령들과 인간 산 사람들과는 또 다를 수가 없어.

그러니 모두 놔라 이거예요. 모두 모두 맡겨 놔라 이거야. 놓으라니까 무슨 놓을 게 있어서 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믿고 거기에서밖에는 해결 못하고, 거기에서밖에는 감사함을 주지 못하고, 거기에서밖에는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고, 거기에서밖에는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서 모두 품안으로 안을 수도 없고 지혜롭게 해나갈 수 없다, 거기밖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은 거기밖에 없다 하고 믿고 나가라 이거지, 그것이 놓는 거라고.

자기를 자기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놓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놓고 두 번 놓고 자꾸자꾸 놓아 들어가면 업보로 뭉쳐진 이 중생들이 다 그냥 보살로 화해 버려. 그러니 얼마나 편안하니 좋습니까. 거기에서 호법신(護法神)도 생기고, 수호신(守護神)도 생기고, 화신(化身)도 생기고, 법신(法身)도 생기고 모두가 수효가 없이 생기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냐고요. 가정이 화목해지고 하는 일마다 귀인이 생기고 발이 넓어지고 속의 모든 두려움이 없어져 떳떳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죠.

그냥 묵묵히 일체를 나와 같이 보는 마음으로만 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실천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 공부 하지만 사실 공부라는 이름도 붙이지 말고,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 그건 불쌍한 게 아니라 애처롭습니다. 여러분은 산 사람, 산 물질만 봐도 애처로운 일이 많은데, 죽은 영령들이 부모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마음, 애처롭게 끌고 다니는 그 마음, 세상에 그렇게 애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연이 뭐고 사랑이 뭐기에, 자식이 뭐고 부모가 뭐기에, 남편이 뭐고 아내가 뭐기에 그렇게들 인연줄이 질기고 질겨서 그걸 놓지 못해 붙들고, 애처롭게 피를 흘립니까.

그러니 사람 사람이 누구나가 몰라서 그렇지 여기서도 살고 있고 저 별성에도 살고 있다. 여기 모습대로 거기도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데 그건 화신(化身)입니다. 여기는 이것이 육신이지만, 그 모습들은 화신으로서 모두 보현보살(普賢菩薩)로 화해서 영계들이나 산 사람들이나 다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화(化)해서 직속 왕래를 해보세요. 얼마나 떳떳한가?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러죠. 그런 일이 왜 없습니까! 빛보다 더 빨리 왕래를 하는데. 그러니 여러분은 기복으로만 만날 빌고 "아이구, 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이러지 말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뭐 또 죽을까봐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를 씁니까?

나는 이날까지 나 살려달라고 빌어본 예가 없어요. 항상 그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오직 팔랑개비대만 쥐고 다녔다고. 그게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대만 쥐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내가 대를 쥐면 나한테도 바람도 있지. 지수화풍이 다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고 믿고 나가라 이거지, 그것이 놓는 거라고.



불자 세상보기

김 유 일
동국대 가정의학과 교수

트랜스 지방 '규제' 해야

최근 우리나라도 생활의 변화로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미국의 뉴욕시에서 트랜스 지방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켜 관심을 끌고 있다.

트랜스 지방이란 불포화 지방산의 수소 원자가 이중결합의 탄소들의 각각 반대방향에 있는 것을 말한다. 좀더 쉽게 말하면 불포화지방산인 식물성 기름을 가공식품으로 만들 때 산패(酸敗)를 억제하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방산이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불포화지방산의 경우 시스형이 대부분이지만 유지방에는 약간의 트랜스형이 존재한다.

식물성 지방은 주로 시스형을 함유하지만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키고 산패를 억제하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시스형이 트랜스형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즉 편의를 위하여 만든 마가린, 쇼트닝등에 트랜스 지방이 많이 포함되게 된다.

이러한 트랜스 지방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로 들어가면 세포막을 단단하게 만들어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게 되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필수지방산을 더 많이 요구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저밀도-콜레스테롤(LDL)을 높이는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콜레스테롤(HDL)은 낮춘다. 이로 인해 트랜스 지방산 섭취를 2% 늘리면 심장병 발생 위험이 25%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당뇨 발생 위험을 높이고,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줄이며 유방암 · 대장암 등의 발생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종종 발표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산의 양은 2005년 식품의약안정청 조사에 의하면 마가린 쇼트닝은 100g당 10.2~14.4g의 트래스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었고 버터 7.2g, 팝콘 11g, 도넛 4.7g, 감자튀김 2.9~4.8g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WHO에서 권장하는 트랜스 지방산의 하루 섭취량은 총열량의 1%이내인 약 2.5g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트랜스 지방산은 청소년이 즐겨 먹는 피자 · 팝콘 · 마가린 · 마른 토스트 · 튀김류 등에 많이 함유된다.

특히 냉동피자와 전자레인지용 팝콘의 경우 최고치를 나타낸다. 이런 식품에는 마가린이나 버터가 발라져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기름에 구운 파이 · 쿠키 등도 요주의 식품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가공식품들을 너무 자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요리를 할 때도 버터 · 마가린 등 고형 지방보다는 옥수수기름 · 콩기름 · 참기름 · 들기름 등 액체성 지방이 권장된다.

트랜스 지방산은 튀겨 놓은 음식을 상온에 오래 놔둘수록 많이 생성되므로 튀긴 음식은 튀기자마자 먹는 것이 좋다. 한번 튀긴 기름을 다시 튀기거나 여러 번 가열할수록 트랜스 지방산은 많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한번 튀긴 기름은 버리거나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트랜스 지방산에 대한 규제가 없고 내년부터 트랜스 지방산 표기만 의무화 될 예정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함량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정부나 관련 단체들은 소비자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자료 제작과 교육 및 홍보에 힘을 더 쏟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도 가공 식품에 표기된 성분 중 지방의 함량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식당이나 가정에서 섭취하는 음식에 어떤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서 자신과 가족의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신라시대 원광법사가 만든 세속오계(世俗五戒)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지주가 된다. 새로운 시대 시대적 요청에 의한 가르침으로서 세상의 빛이 되고 국가적 토대를 이루어서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게 된다.

오늘날 지구환경의 위기를 시대적 처방으로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새로운 공동율(共同律)의 마련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고, 정토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 시대 인류들의 소명이다.

알다시피 불교내에는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 등 오늘에 되살려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희망이자 빛이 될 무궁한 보고이다. 그러나, 보물창고안에 아무리 좋은 보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잘 활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아직까지도 불교계 내부에는 불교가 원래 환경 친화성을 강조하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점도 많았으며, 그동안의 불교환경활동은 현실적으로는 환경활동과 관계하는 일부스님과 단체들만의 활동이었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다.

'환경오계' 합의 · 동참이 관건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과 친환경사상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환경오계(環境五戒)의 제정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사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환경오계의 제정은 불교계가 이미 지난 9월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담아 선포한 '불교 환경의제 21'에 포함된 사업의 하나로서 의제의 실천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가 있다.

그리하여 이번에 추진되는 환경오계의 실질적인 제정과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교계의 전체적 합의와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단이나, 일부관련단체만의 활동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점에 대한 불교적 가르침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하여 불교계가 선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천활동으로 구심력을 모아 나가야 한다.

사실 제대로 된 환경오계의 제정과 실천만으로도 이 시대의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될 수가 있으며, 지금 추진되는 환경오계의 제정은 불교계의 장점을 오늘에 되살리는 새로운 포교활동이자, 사회적 실천활동이기 때문이다.

■ 이병인(부산대 지역환경시스템공학과)

이렇게 들었다 믿음

국방의 안전을 기하고 정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원한다면, 백성들의 공포를 없애주어야 한다. 〈아함경〉

어느새 연말이다. 이맘때면 송년회다 설이다 하며 가는 한 해를 축하하고 오는 한 해를 기뻐하기 마련인데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춥고 지난하게 느껴진다. 소비시장은 얼어붙었고, 정국이 불안해진 여파가 그대로 경제 분야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은 오히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 당장 부동산 시장은 11 · 15 부동산대책 이후 급등세가 진정됐다고 하나 여전히 노무현 정부가 억지스럽게 만들어 놓은 각종 부동산 가격 견제장치가 이완돼 집값이 오르리라는 심리가 팽배하다. 민생관련법안이 뒷전으로 밀려난 채 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만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서민들은 최대한 숨죽이며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결국 이 상황의 중심에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서로 서로 믿지 못해서 불안하고, 불안해서 믿지 못한다. 믿지를 못하니 정부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해도 마음이 모이지 않고, 결국 민심도, 지방자치단체도, 야당도 어느 하나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것이다. 일찍이 부처님은 민심을 다스리는 방법을 묻는 대왕에게 "겉모양보다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며 "사람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그 마음을 가라앉혀라"라고 설법하신 바 있다.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근본도리는 백성의 마음과 믿음을 얻는 일이라는 소리다.

믿음은 더러운 작용이 없기에 청정함을 가지고 교만을 없앤다. 따라서 믿음이야말로 공경의 근본이며, 법장의 제일가는 재물이어서, 청정한 마음의 손이 되어 여러 덕행을 받아들인다.〈화엄경〉

■ 이은비(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91
(담당: 김두식 기자, doobi10@hanmail.net)

'현대불교' 폐간 말도 안돼

불교계 신문 가운데 가장 신선하고 가장 권위있다는 생각이 들어 '현대불교'를 평생구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붓다뉴스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현대불교'의 폐간 소식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주인 한마음선원이 직원들에게 3주전에 폐간을 통보했다는 것은 독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적어도 신문사 사주라면 독자에 대한 배려가 기본입니다. 신문지상을 통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더 이상 신문을 발간하기 힘들다는 양해를 구하는 것은 기본이며 독자들에게 일일이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그간의 어려움과 폐간을 상세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평생독자에게는 최소한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같은 양해는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마음선원이 '현대불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면 다른 주체에게 신문을 계속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현대불교'가 계속 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승호(평생 독자 · 경북 구미시)

'현대불교' 제3자가 인수하길

'현대불교' 폐간 소식을 듣고 말이 안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2년간 불교계의 소식을 가장 짜임새 있고 빠르게 전해온 현대불교신문은 이미 한마음선원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불교계 언론의 얼굴임과 동시에 불교언론의 자랑이었는데 심사숙고하지도 않고 단번에 날려버리려 하다니, 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모를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네요.

무슨 일을 결정하려면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대응해야지 한집단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수행인이라 하겠습니까? 이미 선원측의 요구로 노조도 자진 해산을 했다고 하는데 막무가내로 폐간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습니다.

대각심 보살(붓다뉴스에서)

흥청망청 송년회 되지 말아야

한해를 정리하기 위해 많은 단체나 직장에서 송년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술마시는 송년회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회식이나 뭐다 해서 직장내 음주를 강조하는 술문화가 그대로 송년회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년 모임 경비를 줄여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불우시설을 방문해 자원 봉사를 한다면 얼마나 의미있는 송년 모임이 될까요.

직장이나 단체에서 송년 모임에 대한 발상 전환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시간을 내고 술로 버릴 돈을 모아 불우한 내 이웃과 연말연시를 함께 한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밝고 행복해지겠습니까? 내가 속한 단체나 직장에서 이같은 의미있는 송년 모임을 한번 제안해 봅시다.

김관호(천안시 두정동)

전문경영인 영입한 동국대

동국대학교 총장에 전 행정자치부장관이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최근 기업에서도 전문 경영인 영입으로 기업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학생수가 줄어 경쟁력을 잃은 학교는 조만간 문을 다닫아야 할지 모른다. 그런 측면에서 동국대가 외부인을 총장으로 선출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동국대는 100년이 넘은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대학으로 졸업생이 우리나라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만 만족하고 있을 수는 없다. 불교이념을 널리 표방하며 다음 백년, 아니 천년동안 세계 리더 대학으로 도약해야만 한다. 졸업생의 한 사람으로 새 총장에게 많은 기대를 해 본다.

김기연(고양시 일산서구 거주)

'현대' 만평 심 민 섭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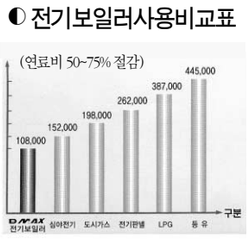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	66.8원/kw	1250원/㎥	1000원/ℓ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월)	588kw	1650kw	124㎥	1569/kw	124㎥	182 ℓ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182,000원
단가지수	100	155	202	267	3950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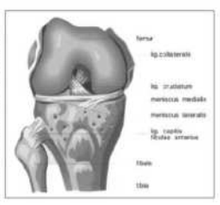


■ 시공단면도

◐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큐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골반명가
天一氣功
천일기공은 93년도에 창립되어 14년간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건강법을 전수 해 왔습니다.
소백산 수련원에서 실시하는 「3박4일코스 건강기공강좌」에는 전국각지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꾸준히 참가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독일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만성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요통, 좌골신경통, 관절통, 오십견, 견비통, 팔저림, 목디스크, 요실금, 코골이, 무호흡증, 수족냉증, 위장병, 비만, 불면증, 당뇨, 고혈압, 갑상선, 우울증, 초조불안, 두통, 안짱다리, 생리불순, 생리통, 부인병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소주천수련법, 임,독맥소통법, 천지관기법 등 다양한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수승화강의 원리를 모르고 병치료를 논하지말라
※ 사기(음기)를 배출하지않고 어떻게 병을 고치시렵니까?
※ 전화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서울본원 (02)3436-3206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감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캄보디아, 출가자 '정치참여' 논란



캄보디아 스님들이 출가자의 선거참여 기권을 촉구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평화행진.

국민당 당수 "선거 기권 반대" 의사 밝혀
2003년 이후 논쟁 재촉발…불교계 침묵

'출가자가 선거에 기권해야 하는가, 투표해야 하는가?'

앙코르와트 사원으로 유명한 불교국가 캄보디아. 최근 들어 출가자들의 정치참여 문제가 불교계와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논쟁의 촉발은 캄보디아 의회 대변인이자 캄보디아 국민당(C.P.P) 당수인 체아 심(Chea Sim) 의원의 "출가자의 선거 기권을 반대한다"는 발표.

아시아뉴스(AsiaNews) 지는 11월 30일자 보도에서 "불교 수행자들의 선거 기권 관련 이슈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국민당(C.P.P) 체아 심 당수가 다음 번 지방자치 선거와 국가 선거에서 종교인들에게 투표권이 유지된다"며 "이런 상황에도 몇몇 불교지도자들이 (출가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를) '유혹'으로서 제기한 견해에 (출가자 선거 참여가)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뉴스는 특히 "2007년 지방자치 선거와 2008년 국가 선거에서 불교도의 종교적 ·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이 최대가 될 것"이란 체아 심 국민당 당수의 말을 인용, 향후 논쟁의 향방에 대해서 언급했다.

체아 심 캄보디아 국민당 당수는 올해초 500여 명의 원로 출가자가 참가한 '15차 캄보디아 불교출가자회의(Congress of Cambodian Buddhist Monks)'에서 "출가자에게는 완전한 투표권이 있다"며 "도덕성을 가르치고 사회적 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출가자의 사회적 위치를 동시에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불교계의 입장은 다르다. "출가자가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캄보디아 국민당 당수의 이번 발표는 불교계와 정치권의 상반된 입장을 재확인하게 했다. 또한 지난 2003년 국가 선거 전부터 격발된 이슈인 '출가자의 정치 참여' 논쟁에 불을 다시 붙이게 했다. 당시 캄보디아 불교도 종정 텝봉(Tep Vong) 스님과 마하니카야(Mahanikaya) 불교 학교의 지도자는 출가자들이 투표를 기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었다.

논쟁은 '출가자들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부분까지 가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 출가자들이 헌법상의 투표 행사권리를 가졌음에도, 과연 출가자들의 정치적 역할과 제시하는 의견이 우월한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다.

이 같은 논쟁에도 캄보디아 국민들의 관심과 걱정은 다른 곳이 있다. 프랑스 식민지 통치 시대에 저항하던 출가자들의 정치적 역할을 기억하는 캄보디아인들은 출가자들이 선거 참여 과정에서 '파계(破戒)'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경계하는 분위기다. 가령 출가자들이 길거리에서 운집한 군중 가운데에서 투표를 하는 동안, 여자의 몸을 즉흥적으로 만지는 것과 같은 금기를 깨거나 유혹에 흔들리는 위험을 지적했다.

한편, 캄보디아 국민당의 후원자로 알려진 텝봉 종정 스님은 이번 논쟁에서도 '노 코멘트(No Comment)'로 일관했다. 지금까지 텝봉 스님은 출가자의 정치적 역할 관련 이슈와 출가자의 2007년 4월 지방자치 선거와 2008년 국가 선거에 직접적인 참여 등에 대해 논평을 철저히 삼가 해왔다.

캄보디아는 전체 인구 1,300만 여명 가운데, 불자가 95%가 넘는 동남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불교국가. 현재 출가자는 총 57,500명으로, 전 국토에 4,135개의 탑이 산재해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미국 교도소에 '불교바람'

교화 단체 활동 왕성 … 수감자 개종 증가

'3초에 한번씩 강도사건, 1분에 강간 · 살인사건 발생, 총기 사고는 집계조차 불가능….'

범죄발생 빈도수 세계 1위인 미국. 이 같은 불명예를 짊어진 미국이 달라지고 있다. 변화의 진원지는 교도소. 이곳에 불자 교정인이 증가하는가 하면, 수감자의 불교 개종 사례가 늘고 있는 등 교도소에 '불교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미국 인터넷언론 투데이스닷컴(www.todays.com)은 최근 보도에서 "뉴욕, 버클리, 미주지, 콜로라도 등 미국 전역의 교도소에서 불교 열풍이 일고 있다"며 이 현상에 대한 원인 · 분석 기사를 썼다.

투데이스닷컴은 대부분 과거부터 요가나 명상 등의 수행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수행자들과 '불교평화우의회(Buddhist Peace Fellowship, B.P.F)', '국립불자교정승단(the National Buddhist Prison Sangha)'과 같은 불교 단체들의 왕성한 교도소 교화활동을 주목했다.

이들은 수감자를 대상으로 요가와 명상수행, 불서 보급운동, 경전읽기, 잡지 제작, 평화를 만드는 수감자 모임 조직 등의 활동을 전개하면서 불교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투데이닷컴은 또 현재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교도소에는 불교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수감자들의 모임이 결성돼 활발한 신행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철우 기자

세계적 가수 리키 마틴
불교철학에 매료



세계적인 라틴 가수 리키 마틴(Enrique Ricky Martin · 사진)이 불교철학에 푹 빠졌다. 미국 연예정보 사이트 TMZ 닷컴은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리키 마틴이 불교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11월 28일자로 전했다.

이 소식에 따르면, "리키 마틴이 헐리우드의 매력남 리차드 기어처럼 독실한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철학이 다른 종교를 폄하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리키 마틴은 "불교 신도로 개종할 의사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누구든지 스스로 행복할 권리를 결정할 수 있듯이, 종교도 그렇다는 것. 좋든 나쁘든 믿음은 존중돼야 한다고 리키 마틴은 말했다.

김철우 기자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전법과 미디어의 역할

불교언론의 열악한 현실
타종교와 비교조차 힘들어
'현대불교' 폐간 지켜만 볼건가

인류 역사상 숱하게 많은 종교가 탄생했지만 대부분은 발상지에서 짧은 기간 명맥을 유지하다가 사라졌다. 시공(時空)을 초월해 이른바 '보편종교'로 발전한 것은 불교를 포함해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이다. 지구상에 태어났던 그 많은 종교들이 왜 그리 수명이 짧았을까?

첫 번째 이유는 가르침의 내용이 부실해서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창시자의 깨달음이나 종교적 자각, 가르침이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라져간 종교 사상도 분명히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전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대에는 불교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종교와 사상이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제자나 신도들을 한 자리에 모두 모아놓고 육성으로 '가르침'을 전해야 했다. 그 가르침을 암송하여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갔고, 나뭇잎이나 나무 조각에 새겨 후세에 전해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갈 수 있었다.

이른바 패엽경(貝葉經)이나 죽간(竹簡)으로 남아있는 논어 · 노자 등은 다 이런 과정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이다. 자기 종교나 사상의 가르침을 당시 최고의 미디어 수단을 활용해 시공을 초월해 전한 곳은 살아남았다.

이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 시대가 변하였다고 해도,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일대일로 법담을 나누시던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신심과 종교적 열정이 특별한 사람은 옛날 방식대로 나무 판에 한 글자 한 글자씩 정성을 들여 경전 내용을 새기고 먹을 갈아 고운 한지에 찍어서 전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 차원의 신심이기는 해도, 이 시대의 전법과 전도 방식으로는 맞지 않는다. 최신 미디어 매체인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고는 전법이 불가능하다.

미국 내에는 이미 각 불교 전통에 따르는 다양한 불교 수행법을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붓다넷(www.buddhanet.net)도 수준 높은 불교 정보를 전해준다. 타이완 불광산사에서 운영하는 위성TV는 이미 전 세계를 시청권으로 하고 있고 최근 세계 최대의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에 TV 방송을 시작하였다.

말레이시아의 불교홍법회(The Buddhist Missionary Society)에서 설립 · 운영하는 부디스트채널(www.buddhistchannel.tv)은 현재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불교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나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불교계 신문의 국제면에 등장하는 해외불교 관련 소식은 대개 이곳에서 얻는 정보이다. 그러니 이곳을 가리켜 '말레이시아 사이트'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세계불교의 종합사이트'라고 해야 옳다는 생각이다.

이쯤에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자. 한국 불교가 이른바 왜색불교를 청산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마무리하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이 정도까지 발전한 데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법 전파를 위해 고생한 불교계 언론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몇몇 불교계 신문사가 폐간되거나, 대주주의 경영 포기로 어려움을 겪었고 양대 방송사도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다.

우리 불교계 언론의 상황은 다른 종교계의 미디어 선교 전략과 현실과 비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치는 식으로 더욱 나쁜 상황이 벌어졌다. 13년 가까이 나름의 색깔을 가지고 불교계 언론의 한 축을 이루어온 현대불교신문이 법인청산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이 신문의 폐간뿐만 아니라 인터넷 '붓다뉴스' 등 그 동안 '현대불교'가 해온 일체 사업이 중지되는 것이다.

"'현대불교'의 폐간은 한마음선원의 일이니 그곳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고 방치하지 말고, 조계종단을 비롯한 전체 불교계가 살려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자유기고가

지난해 8월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 스님은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을"** 떠납니다. 출발은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회향은 내년 3월 10일 임진각에서 봉행 됩니다.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속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하며 숙식을 비롯한 모든 경비는 각자부담 원칙으로 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님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 kipoo255@yahoo.co.kr / db4676@chol.co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1(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정진기간 : 2006년11월30일부터 ~ 2007년3월10일까지 ●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엠티씨(주)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 휴켐스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출발시간 - 아침 08:00

제 2주 12월 7일 - 12월 13일 [128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2월 7일[목]	광 치	-	원통읍	21km
12월 8일[금]	원통읍	-	용대리	18km
12월 9일[토]	용대리	-	소똥령	17km
12월10일[일]	소똥령	-	건봉사	18km
12월11일[월]	건봉사	-	죽 왕	21km
12월12일[화]	죽 왕	-	속 초	20km
12월13일[수]	속 초	낙산사	홍련암	15km

제 3주 12월 14일 - 12월 20일 [139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2월14일[목]	낙산사	-	하조대	22km
12월15일[금]	하조대	-	주문진	20km
12월16일[토]	주문진	-	강 릉	20km
12월17일[일]	강 릉	-	정동진	17km
12월18일[월]	정동진	-	망상역	21km
12월19일[화]	망 상	-	동해항	20km
12월20일[수]	동해항	-	근 덕	19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차씩 연속해서 회향 일정까지 게재해 드립니다.